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보 연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 근대시기
여성미술가들의 여성운동의 전개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노 현 화

한국 근대시기
여성미술가들의 여성운동의 전개

이 보 연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노 현 화

인 준 서

노현화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11월

심사위원장.....(인)

심 사 위 원.....(인)

심 사 위 원.....(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한국 근대시기 여성미술가이자 여성운동가였던 나혜석, 방무길, 정칠성, 이숙중에 주목하여 여성미술가들의 여성운동 전개 양상에 대해 조명해보았다. 이는 근대시기 여성운동을 미술사적으로 조명해봄으로써 전체적인 여성운동에서 여성미술가들의 여성운동에 대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도이며, 당시 여성미술가들이 신여성으로 출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주목해보는 시도이기도 하다. 한국 근대시기에는 많은 현상이 새롭게 생겨났는데, 그 중 신여성의 등장에 따른 여성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으며, 미술 분야도 근대기 신문화의 산물로써 새롭게 출현하였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먼저 한국 근대시기 전반적인 여성운동의 출현배경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1910년대에서 1920년대까지 일반 여성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서 여성미술가들의 여성운동에 대한 비중을 조명해 보았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장에서는 여성미술가들이 신여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여성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각자가 수용한 근대식 신교육과 신사상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통해 형성된 여성미술가들 각자의 사상적 범주를 구분하여 1910년대 자유주의적 여권문제를 다룬 나혜석, 1920년대 민족주의적 여성 계몽문제를 다룬 방무길과 사회주의적 여성 계급해방문제를 다룬 정칠성, 1930년대 민족주의적 여성 계몽문제를 다루었으나 변질된 이숙중으로 나누어 여성미술가들의 연계적인 여성운동의 전개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한국 근대시기 여성미술가들에 의한 여성운동에서는 미술의 특성이 가시화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먼저 근대시기 여성교육 과정에서 미술 분야의 비중이 컸으며, 미술의 전공은 졸업 후 미술교사라는 직업

으로 선택이 용이하였기 때문에 여성미술가들은 경제적 활동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었다. 또한 1922년 조선총독부가 개최한 조선미술전람회와 같은 전국적인 전시 체제를 통해서 여성미술가들은 남성과의 경쟁 속에서 여성의 위상을 드러낼 수 있었으며, 개인 전시회 및 전국 순회 전람회와 같은 전시 기제를 통해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부각될 수 있었다. 이러한 미술 분야의 특징이자 장점을 조명해봄으로써 여성미술가들에 대한 여성운동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한국 근대시기 여성미술가들은 여성의 주체의식을 기반으로 조선여성들을 계몽·해방시키는데 주력하여 여성운동의 다양한 층위에 기여하였던 실상에 대한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머리말	1
1. 연구배경	1
2. 선행연구	3
3. 본문구성	5
II. 근대시기 여성운동의 출현 배경	7
1. 한말 개화파 사상가들의 여성교육론	7
2. 여성들의 의식 전환과 사회 참여 활동	9
III. 근대시기 여성운동의 전개 양상	15
1. 1910년대의 여성운동	15
2. 1920년대의 여성운동	18
1) 민족주의계열의 여성운동	19
2) 사회주의계열의 여성운동	23
3) 근우회의 여성운동	26
IV. 근대시기 여성미술가들의 여성운동 전개 양상	29
1. 근대적 여성교육을 통한 여성미술가들의 출현	29
1) 나혜석의 진명여고보와 동경여자미술학교	29
2) 방무길의 숙명여고보와 서화연구회	41
3) 정칠성의 동경여자기예학교	47

4) 이숙종의 숙명여고보와 동경여자미술학교	55
2. 여성미술가들의 여성운동의 전개	61
1) 1910년대 여성운동의 발단	61
① 나혜석의 일본유학 시절 문학을 통한 자유주의 여권운동	61
② 나혜석의 국내 민족운동과 자유주의 여권운동	70
2) 1920년대 여성운동의 발전과 전개	83
① 방무길의 민족주의 여성단체의 여성 계몽운동	83
② 정칠성의 사회주의 여성단체의 여성해방운동과 근우회 활동	94
3) 1930년대 여성운동의 심화와 변질	107
① 이숙종의 민족주의 여성 계몽운동과 여학교 설립	107
② 민족주의 여성 계몽운동의 변질	116
V. 맺음말	122
참고문헌	126
도판목록	133
도 판	136
ABSRTACT	144

I. 머리말

1. 연구배경

한국 근대시기 여성운동은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맥락을 형성하여 전개되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억압에 따른 전근대적인 여성의식이 지배적이었던 조선사회는 개화기에 이르러 국민계몽에 따른 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여성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의 근대식 교육이 시작되면서 여성들이 스스로 주체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각자의 전문 분야에 따른 근대식 여성교육을 받아 신교육과 신지식을 수용하여 소위 ‘신여성’이라 일컫는 근대식 여성으로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들은 일제시기 식민지 사회구조와 맞물리게 되면서 식민지적 억압과 더불어 성차별적 억압과 계급적 억압까지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조선사회에 대한 변혁에 앞장서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신여성들은 각자 추구한 사상과 활동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의 범주로 구분되어 근대기 조선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저항하였다. 1910년대부터는 개인으로 활동하여 남녀평등의 문제와 여권문제에 중점을 둔 자유주의계열이 있었으며, 1920년대 이후로는 단체의 조직으로 활동하여 남녀평등의 문제와 여권문제에 중점을 둔 부르주아 민족주의계열과 여성의 계급해방문제에 중점을 둔 사회주의계열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특히 식민지시대에 따라 세 계열 모두 공통적으로 민족적 항일문제는 일차적으로 타파해야 할 문제로 여겼다. 이처럼 신여성들은 각자의 의식에 기반을 둔 범주 속에서 민족해방운동, 여성해방운동, 계급해방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여성운동이라는 하나의 큰 맥락으로 형성되어 근대시기의 새로운 전개 과정을 이루었다.)

‘미술’ 역시 근대시기 새로운 문화의 산물로써 다양한 종류를 포함하여 등장한 분야였는데, 이는 크게 도화(圖畵), 수공(手工)의 두 가지 측면의 맥락으로 구체화·보급되고 있었다. 근대시기 미술은 전통으로부터 유래한 ‘서화’와 외래에서 유입된 ‘서양화’ 등의 순수미술을 아우르는 도화의 측면이 있었으며, 당시 여성들에게 보다 더 관련 맺을 수 있었던 과목으로 실용적 수공의 측면이 강조된 ‘자수’와 ‘편물’ 등의 미술 종류가 있었다. 특히 당시 서양화는 미술의 부르주아 계급이 주로 향락할 수 있었던 특성이 있었으며, 반면에 서화를 담당했던 층에는 기생들도 많이 포함되어 여성의 계급적 차이를 망라한 장르적 특성이 있었다.

이처럼 한국 근대기 ‘미술’ 분야는 신문화의 산물로써 등장하여 과거 남성 중심의 회화 장르에서 벗어나 점차 여성들에게도 허용되는 장르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미술을 전공으로 학습한 여성들은 점차 과거 전통적 의식으로부터 각성되어 여성으로서의 주체의식을 견비하게 되었으며, 전문적 여성미술가로 등장하여 사회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과거의 전통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주체의식을 형성하여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에서만 그친 일반 여성미술가들과 달리, 나혜석(羅蕙錫, 1896-1948), 방무길(方戊吉, 1899-1934), 정칠성(丁七星, 1897-?), 이숙중(李淑鍾, 1904-1985)은 여성문제와 민족문제, 그리고 계급문제에 대해 자각하여 여성운동을 전개해 나간 여성미술가들로 꼽을 수 있다. 이들을 선정한 기준은 모두 미술 분야의 전문적 학습을 위해 일본에서 유학을 하거나 국내에서 신식 교육 및 신사상을 수용한 ‘신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주체적 미술 창작활동과 조선사회의 차별적인 문제점을 직시하여 시대적 한계와 정치적 한계, 문화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어 일반 여성미술가들과 의식적인 차이를 보인 인물들이라는 공통점

1) 이배용, 「일제시기 신여성의 개념과 연구사적 검토」, 『역사문화연구』 제12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0, p. 375.

이 있다. 또한 이들은 각자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제 각기 다른 사상을 수용하여 다양한 층위의 근대기 여성운동의 맥락을 형성한 여성미술가들로서 각 시대 사조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먼저 나혜석은 자유주의 사상을 수용하여 자유주의적 여권의식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방무길은 민족주의적 여성 계몽의식을 형성하였고, 정철성은 사회주의적 여성해방의식, 그리고 이숙종은 보다 심화된 민족주의적 여성 계몽의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네 명의 여성미술가들은 여성운동 측면에서 한국 근대기 미술 영역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여 미술계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 근대기 미술계의 측면을 여성운동의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 양상과 특징 및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한국 근대시기의 여성운동에 대한 미술사학계의 관심은 주로 나혜석에 관한 연구로만 국한되어 있으며, 대개 나혜석의 민족운동과 여성해방의식에 대한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다.²⁾ 방무길에 대한 연구로는 서화의 측면을 다룬 연구로 한정되어있으며, 이숙종에 대한 연구로는 근대시기 제국을 경험

2) 나혜석의 민족운동에 관한 연구로는 (이송희, 「신여성 나혜석의 민족의식과 민족운동」, 『여성연구논집』 제17권,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2006.; 김형목, 「나혜석의 현실인식과 민족운동에서 역할」, 『숭실사학』 제24권, 숭실사학회, 2010.; 김형목, 「‘금기된 인습’에 도전장을 던진 민족운동가 나혜석」, 『나혜석, 한국 근대사를 거닐다』, 서울: 푸른사상, 2011.; 박환, 「나혜석의 민족의식 형성과 3·1운동」, 『나혜석, 한국 근대사를 거닐다』, 서울: 푸른사상, 2011.; 최홍규, 「나혜석의 가족사와 민족의식」, 『나혜석, 한국 근대사를 거닐다』, 서울: 푸른사상, 2011)이 있으며, 나혜석의 여성해방의식에 관한 연구로는 (문정희, 「나혜석 회화창작에 나타난 근대적 자아」, 『한국문화연구』 제11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6.; 김경일, 「차이와 구별로서의 신여성-나혜석 사례를 중심으로」, 『나혜석연구』 제1권1호, 나혜석학회, 2012.; 김경애, 「나혜석의 여성해방론의 실현과 갈등」, 『여성과 역사』 제19권, 한국여성사학회, 2013) 등이 있다.

한 여성 선각자들에 주목한 연구로 일부 다루어져 있을 뿐 방무길과 이숙중에 대한 여성운동의 측면을 다룬 연구는 고찰되어지지 않았다.³⁾ 또한 정칠성에 대한 연구는 사회주의 여성운동가에 대한 연구로만 한정되어 있을 뿐 미술을 통한 여성운동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등 여성운동의 미술사적 고찰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⁴⁾

이 중에서 한국 근대시기 여성미술가들의 여성운동에 대한 연구 자료를 소개하면, 여성사 논문으로 이송희의 「신여성 나혜석의 민족의식과 민족운동」과 박순섭의 「1920~30년대 정칠성의 사회주의운동과 여성해방론」을 꼽을 수 있다. 이송희(2006)는 나혜석을 대상으로 하여 그녀의 민족의식의 형성과정과 이를 토대로 민족운동에서의 성과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박순섭(2017)은 정칠성을 대상으로 그녀의 근대시기 사회주의 여성해방의식의 형성 과정과 그에 따른 여성운동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연구들은 나혜석과 정칠성의 여성운동가에 대한 측면은 다루었으나, 여성미술가로서 전개한 여성운동에 대한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혜석과 정칠성의 미술사적 측면과 그에 따른 여성운동 양상에 대한 고찰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각 시대 사조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유형으로 여성미술가이자 여성운동가인 나혜석, 방무길, 정칠성, 이숙중에 주목하여 그들의 여성운동 전개 양상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그들의 활동 시기와 사상적 범주에 따른 여성운동의 특징들을 파악함으로써 근대기 전반적인 여성운동의 발단에서부터 결말까지의 맥락을 따르고 있는 여성미술가들의 여성운동 전개 과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3) 방무길을 다룬 연구로는 (김소연, 「한국 근대 여성의 서화교육과 작가활동 연구」, 『미술사학』 제20권,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6.; 김소연, 「한국 근대 ‘동양화’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으로 김소연의 서화 연구 자료에서만 일부 다루어졌을 뿐이다. 이숙중에 대한 연구로는 (김지혜, 「미술가에서 선각자로, 근대기 제국을 경험한 여성 미술가들」, 『나혜석연구』 제8권, 나혜석학회, 2016)으로 한정되어 있다.

4) 여성사의 측면에서 정칠성의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로서의 연구는 (박순섭, 「1920~30년대 정칠성의 사회주의운동과 여성해방론」, 『여성과 역사』 제27권, 한국여성사학회, 2017)으로 한정되어 있다.

3. 본문구성

본 논문의 본문 제Ⅱ장에서는 여성들의 의식이 각성되어 여성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까지의 출현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 여성의식이 지배적이었던 개화기에 점차 여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시대적 상황에 주목함으로써 한말 개화파 사상가들에 의해 제기된 여성교육론을 살펴본 후, 이를 계기로 전근대적인 여성의식에서 벗어나 점차 전환되기 시작한 여성들의 주체의식에 의한 사회 참여 활동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 제Ⅲ장에서는 여성들의 자각을 바탕으로 서서히 일어나게 된 한국 근대시기 여성운동의 전체적인 전개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1910년대의 여성운동과 1920년대의 여성운동으로 나누어 여성운동의 시대적 특징과 전개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여성미술가들의 여성운동 전개에 보다 주목하여 일반 여성운동의 흐름과 비교·대조함으로써 여성미술가들의 여성운동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근대시기 전체적인 여성운동에서 여성미술가들의 비중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한국 근대시기 여성미술가들의 여성운동 전개 양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근대시기 여성미술가이자 여성운동가인 나혜석, 방무길, 이숙중, 정철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여성미술가들이 여성운동을 주도하는 신여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배경에 주목하여 그들이 각자 시기별로 수용한 근대적 신교육과 신사상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이어 이러한 신교육을 바탕으로 각자가 수용한 사상적 범주에 따라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다양한 여성운동 활동을 전개하여 하나의 맥락을 형성하게 된 여성미술가들의 여성운동 전개 양상을 발단, 발전 및 전개, 심화 및 변질 단계로 구성하여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여성미술가들은 민족해방운동, 여성해방운동, 계급해방운동을 모두 아우르는 신여성이자 여성운동가로서 여성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역할을 모색하고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에 대해 조명함으로써 여성운동사에서 여성미술가들의 성과를 밝혀내고자 한다.

II. 근대시기 여성운동의 출현 배경

1. 한말 개화파 사상가들의 여성교육론

개항기에서 한일합방에 이르기까지 대략 30년 동안 한말 역사 속에서 두드러진 변화 중의 하나는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의 형성과 여성교육에 대한 논의들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현실을 직시한 여성교육의 논의는 여성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고, 초기 개화파들에 의한 개화사상에서 비롯되었다.

1876년 일본의 강압에 의해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어 조선이 개항됨에 따라 약 500년의 조선사회를 운영해왔던 성리학 중심의 사회 체제가 해체되어 갔으며, 조선은 서구 열강과 일본의 강압으로 주체성을 상실한 채로 새로운 사상 체계를 정립해야 했다. 이에 따라 크게 위정척사파와 개화파로 나뉘는 두 개의 사상적 조류가 형성되었다. 특히 근대적 문명개화를 주장하였던 개화파 사상가들은 단기간 내에 부강한 문명국을 수립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구시대적 의식에서 벗어나 선진화된 근대체제를 수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보다는 국권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의무로써 국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⁵⁾ 이처럼 나라의 개화와 자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녀의 경계가 없는 평등한 교육을 제공해야함이 촉구되어 여성교육의 필요성이 주창되었다.

개화파 사상가인 박영효(朴泳孝, 1861~1939)는 1888년 그의 「개화에 대한 상소」 제6조에서 여성교육 문제에 대해 ‘소·중학교를 설치하고, 남녀 6세 이상을 모두 취학시킨다.’ 라고 하여 신분과 남녀의 구별 없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였다.⁶⁾

5) 조규태, 「한국 근대 정치·사회단체의 ‘국민’ 만들기」, 『송실사학』 제29집, 송실사학회, 2017, p. 10.

또한 유길준(兪吉濬, 1856-1914)은 온건개화파의 개혁 사상을 대변하여 저술한 총 2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유견문(西遊見聞)』(1891년 탈고, 1895년 출판)의 제12편 「해영 무육하는 규모」와 제15편 「여성 접대하는 예모」에서 여성의 근대적 교육의 필요성을 보다 본격적으로 주장하였다. 유길준은 국민교육의 기초로써 10세 이전부터의 남녀평등교육을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자녀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에게 교육이 이루어져야함을 역설하였다.⁷⁾ 즉 여성의 역할을 ‘근대적 국민을 잘 길러내기 위한 어머니’로 제한시킴으로써 여성교육의 목적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이처럼 개화파 사상가들은 전통적인 남녀관계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의식을 형성하고자 하였으며, 여성문제에 대한 개혁을 위해 여성교육론을 제시하여 여성개화의식을 표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여성교육의 목적을 근대적 주체로서의 여성에 둔 것이 아닌, ‘어머니로서의 여성’을 길러내기 위한 여성교육으로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던 점에서 전통사회의 여성교육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⁸⁾

-
- 6) 박영효가 고종에게 올린 「개화에 대한 상소」는 조선의 개화·발전을 위해 제시한 상소문이다. 이는 총 8장으로 구분되며, 이의 골자는 ‘1조 宇內之形勢, 2조 興法紀安民國, 3조 經濟以潤民國, 4조 養生以健殖人民, 5조 治武備保民護國, 6조 教民才德之藝以治本, 7조 正政治使民國有定, 8조 使民得當分之自由以養元氣’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여성개화 문제를 다룬 것은 4조, 6조, 8조이며, 여성교육 문제에 관한 언급은 ‘6조 教民才德之藝以治本’이다(이배용, 「19세기 개화사상에 나타난 여성관」, 『한국사상사학』 제20권, 한국사상사학회, 2003).
- 7) 유길준, 재훈 역, 「해영 무육하는 규모」·「여성 접대하는 예모」, 『서유견문』, 명문당, 2003.
- 8) 이러한 개화사상의 맥락 속에서 여성교육에 대한 견해는 당시 한말 대표적 정치·사회단체였던 ‘독립협회(獨立協會)’의 사상적 기반이었던 『독립신문(獨立新聞)』에서도 나타난다. 1890년대에 처음 여성교육에 대한 논설이 실린 1896년 9월 5일자 『독립신문』에서는 여학교를 설치하여 여자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통해 국가를 위해 ‘쓸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학문의 배움을 통해 남성들에게 천대받지 않는 남녀 동등한 권리를 갖추기를 주장하였다(「논설」, 『독립신문』, 1896.9.5., 제1면.); 이어 1897년 5월 18일자 『독립신문』에서는 국가의 독립과 자주(自主)를 위해서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며, 어머니가 좋은 학문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그 자녀가 장래에 좋은 사람이 됨을 언급하여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한 어머니’로서의 여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였다(「배재학당 학원 김홍경씨가 시무론을 지어 신문사에 보내었기에 좌에 기재하노라」, 『독립신문』, 1897.5.18., 제1면). 이처럼 당시 여성교육은 여성의 주체적 인격 형성에 관한 교육이 아닌, 국가의 자강에 목적을 두어 자녀를 잘 길러내기 위한 도구인 ‘어머니로서의 여성교육’으로 한정되었던 것이다. 『독립신문』 외에 『매일신문』에서도 남녀 간의 평등한 권리를 찾는 방법으로 남녀학교에 대한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남녀 두 사이에 일호도 높고 낮음

당시 조선사회는 일본과 중국에 비해 근대로의 개방이 시기적으로 늦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강압으로 인해 주체적인 문명개화에 이르지 못하였던 시대적 상황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근대계몽기는 다른 문명국가들과는 달리 현실적 특수성이 내포되어있었다. 이러한 현실적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주’와 ‘자강’의 실현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던 것이다.⁹⁾ 따라서 근대계몽기 조선 사회에서의 교육 과정은 개인적 차원의 인격이나 주체성 확립에 대한 모색보다는 개인이 국가를 위한 유기체로 구성되어지는 국가적 차원에 교육을 목표를 두었던 것이다.

2. 여성들의 의식 전환과 사회 참여 활동

한말 개화파 사상가들의 여성교육에 대한 주장은 신문을 통해 사회 전반에 드러나 여론화되어 사회변화와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양반 지도층 여성들에게도 여성의 주체의식이 각성되는 계기를 가져다주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근대적 여성교육의 시작은 개항 이후 기독교 포교를 위해 한국에 입국한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1886년에 조선의 최초 근대식 여학교인 이화학당(梨花學堂)으로 비롯되었다.¹⁰⁾[도1] 기독교계의 여학교는 유교

이 없고 크고 적음이 없거늘 만일이 사이에 무슨 분별이 있고 보면 이는 이치에 대단히 어긋나짐이라...오늘날 우리 대한 형세로 말하거든 제일 큰 악습이 있으니 이 악습은 무엇인가. 사나이가 계집을 압제하는 것이라...사람의 남녀간 평등 권리를 아직 생각지 못한 일이라. 이 폐단을 고치려 하면 과히 어렵지도 아니하여 다만 집정하는 사람이 남녀 학교만 흥왕하게 하면 아마 남녀 무론하고 사람마다 제 권리는 제 권리대로 찾아갈 듯하더라.”(『매일신문』, 1898.8.13.)

9) 이병철, 「교육 계몽담론과 여성의 위상」, 『청소년과 효문화』 제21권, 한국청소년효문화학회, 2013, pp. 231-233.

10) 1873년 쇄국정책을 강행하던 대원군은 몰락하고, 이후 외국과의 수교조약이 연이어 체결되었다. 그리하여 1884년 미국 선교사 마클레이(Robert S. Maclay)의 내한을 시작으로 신교파 선교사들이 대거 입국하였다. 미국복장로회(1884), 미국복감리회(1885), 호주장로회(1889), 영국성공회(1890), 미국복음전도회(1890), 캐나다장로회(1890), 미국남장로회(1892), 미국남감리회(1894),

적 전통관이 뿌리 깊게 박힌 조선인을 계몽·개화시키기 위해 기독교의 만민평등 사상인 남녀평등 사상을 전파하였다. 이러한 기독교 계통의 학교설립은 남·여 학교의 수가 거의 동일하게 되었으며, 남녀가 동시적으로 동등한 근대식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던 점에서 의미가 있다.¹¹⁾

이처럼 여성교육이 전개되기 시작한 배경 속에서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의 양반 여성들 약 300여명은 최초로 여성들의 권리를 주장한 「여학교설시 통문」(이하 「여권통문」)을 발표하였다.¹²⁾ 「여권통문」에서는 ‘이 왕에 먼저 문명개화한 나라를 보면 남녀가 일반 사람이라’, 그 나라 여성들은 ‘사나이의 일호 절제를 받지 아니 하고 도로 극히 공경함을 받음은 다름 아니라 그 재조와 권리와 신의가 사나이와 일반인 연고’ 이기 때문이며, ‘신식을 시행함에 우리도 옛 것을 고쳐 타국과 같이 여학교를 설시하여…남녀가 일반 사람이 되게 하올 차 방장 여학교를 설시하오니’ 라고 선언하여 남녀 평등한 교육을 주장하였다.¹³⁾ 즉 여성에 대한 구습을 버리고 개명 진보하여 문명개화한 타국처럼 여학교를 설시함으로써 남녀가 평등한 교육과 동등한 권리를 갖춰야 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여권통문은 한국 최초로 여성들 스스로가 근대적 여성 권리를 주장한 선언서이자 여학교 설립의 구체성과 실천성이 발현된 선언서였다. 당시 이화학당과 같은 선교사들에 의한 여학교가 존재하였지만, 「여권통문」은 조선 여성들이 최초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계몽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전통적 여성관에서 벗어나서 여성들의 주체성이 발현된 전환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1898년 9월 1일 여권통문을 발표에 참여했던 여성들은 찬동자¹⁴⁾들을 규합

회랍정교회(1900), 미국안식교회(1905), 영국구세군(1908) 등 각파에서 신교 선교사를 파견하였다(정세화, 「한국근대 여성교육」, 『한국여성사』 (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2, p. 291).

11) 정세화, 위의 책, pp. 291-293.

12) 박승희, 「대한제국기 찬양회의 설립과 활동」,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사학 석사학위논문, 2007, pp. 8-9.

13) 「여학교 설시 통문을 좌에 기재하노라」, 『독립신문』, 1898.9.9., 제3면.

하여 여성 권리를 주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운동 단체인 ‘찬양회(贊襄會)’를 조직하였다.¹⁵⁾ 찬양회 회원들은 1898년 10월 11일 관립여학교의 설립을 위하여 궁궐 앞에 모여 황제 폐하께 ‘관립학교를 설립하여 영재를 발원하게 하’기를 간청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이는 “신첩 등이 찬양회를 실시하여 충성 충, 사랑 애 두 글자를 규중으로부터 온 나라가 흥왕하게 하려 하오나 학교가 아니면 총혜한 여아 등을 배양할 도리가 없으므로…학부에 칙령을 내려 특별히 여학교를 실시하여 학업을 닦아 동양에 문명지국이 되옵고, 각국과 평등의 대우를 받기를 복망”하는 내용의 상소문이었다.¹⁶⁾ 그러나 찬양회는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관립여학교 설립에 대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지만,¹⁷⁾ 찬양회의 관립여학교 설립 운동으로 인하여 여학교에 대한 관제가 공식적으로 제정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¹⁸⁾ 찬양회는 여

14) 당시 여권통문의 주장에 찬동한 찬양회의 회원들은 양반 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서양 부인, 하급 관리의 부인, 외국에 귀화한 동포 2세, 기생, 평민 부인, 과부 등으로 계급적으로 다양한 여성 회원들로 구성되어있었다. 이는 ‘여성’이라는 주체가 ‘계급(신분)’을 초월하는 한 양상을 보여준다(홍인숙, 「여학교 주변의 여자들」,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3권,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pp. 115-117).

15) 찬양회는 1898년 9월 12일 오전에 남자 협찬원 안영수(安寧洙)·이광하·신석린(申錫麟)이 이시선의 집에 모여 조선인들이 최초로 사립여학교를 실시하기 위한 상의를 하였다. 그 결과 여학교 이름을 ‘순성(順成)’이라 하고, 부인들이 각기 자본금을 내어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동포 여자들을 배양하여 성취시키려는 목적의식을 드러내었다. 그들은 부인 개회를 열어 회원 55명과 방청하러 온 부인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인 양성당 이씨가 통문을 낭독하고, 여학교 설립을 위한 연설과 논의를 전개하였다. 『독립신문』 1898년 9월 28일자에 의하면 회장 이양성당(李養性堂)의 개회를 “듣는 사람들이 모두 흠탄을 하며, 회장의 식견은 서양 각국에 가서 학문 배운 남자들 보다 낫고”, 부회장 김양현당(金養賢堂)은 “교육에 열심하고, 총무원은 명민하여 회중 규모를 짜고 마음을 극진히 하며 힘을 다 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여학교 찬성」, 『독립신문』, 1898.9.15., 제4면.; 「부인 개회」, 『독립신문』, 1898.9.28., 제4면.).

16) 「부인 상소」, 『독립신문』, 1898.10.13., 제2면.; 「상소문」, 『매일신문』, 1898.10.23.

17) 『독립신문』 1899년 2월 25일자에 의하면 “여학교와 상공학교 실시한 경비를 이왕 다 마련하여 탁지부에서 금년도 예산 중에 넣었는데…이 두 학교는 기여히 설시를 아니 하기로 작정을 하니”라고 언급되었으며, 약 7개월이 지난 『독립신문』 1899년 9월 21일자 논설에서도 “학부에서는 종시 근지하고 설시를 아니 하여 주니…그 이유는 과연 알지 못 하거니와 혹자 말하되 여자들을 가르쳐 무엇에 쓰리오”라고 하여 여성교육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관립여학교 설립에 대해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였다(「무슨 교육」, 『독립신문』, 1899.2.25., 제3면.; 「논설」, 『독립신문』, 1899.9.21., 제2면).

18) 그러나 이 관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 관제로 작성되었지만, 사유불명한 채 발표되지 않았다(정세화, 앞의 책, p. 302).: ‘여학교 관제’에 대해서는 (「여학교 관제」, 『독립신문』,

자교육이 일시라도 늦춰지는 것을 못 마땅히 여겨 1899년 2월 26일에 사립으로 ‘순성여학교(順成女學校)’를 개교하였다. 순성여학교는 여학생 50여 명을 모집으로 시작하여 외국부인을 포함한 여성교사들로 교원을 임명하였으며, 『동몽선습(童蒙先習)』과 『태서신사(泰西新史)』 등의 서책으로 여아들을 가르쳤다.¹⁹⁾ 그러나 순성여학교에서 쓰인 『동몽선습』은 유교적 교육방식을 포함하고 있는 서책으로, 흔히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世不同席)과 같은 ‘일곱 살이 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은 자리에 앉지 않으며 같은 그릇에 먹지 않는다’는 남녀 불평등한 전통적인 사회 법칙을 기반으로 여아들을 가르친 것이다.²⁰⁾ 이를 통해 찬양회의 여성교육에 관한 「여권통문」과 「상소문」은 남녀평등 하의 여성교육을 역설하였지만, 순성여학교의 서책에서 나타난 교육 내용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한정된 여성교육인 것으로 당시 여성교육의 현실적 한계점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찬양회는 순성여학교를 운영함과 동시에 관립여학교 설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가하였으나, 1900년 1월 관립여학교 설립안은 부결되고 말았다.²¹⁾ 순성여학교도 재정적 후원 없이 김양현당의 개인적 역량으로 운영을 이어가다가 1903년 2월 그가 죽고 난 이후부터는 운영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²²⁾ 이처럼 찬양회의 순성여학교는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여학

1899.5.26., 제3면)에서 참고.

19) 「여자 교육」, 『독립신문』, 1899.3.1., 제4면.

20) 『동몽선습』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교육과정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오륜(五倫)으로 대변되는 유교 생활윤리의 핵심이요, 다른 하나는 중국 역사와 조선 역사로 나누어지는 역사(歷史) 부분이다. 이는 ‘경학(經學)’과 ‘역사(歷史)’, 즉 유교적 의미의 경사(經史)를 아동수준에 맞게 정돈한 것이다. 유교의 교육은 크게 ‘소학(小學)’과 ‘대학(大學)’으로 구분된다. 이중에서도 아동교육에 해당하는 소학은 발달 단계에 따라, 가정교육과 서당교육으로 대별된다. 특히 일곱 살이 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은 자리에 앉지 않으며 같은 그릇에 먹지 않는다는 사회 법칙을 배운다. 흔히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世不同席)”이라는 고리타분한 사유를 억힘으로서 그들은 성역할을 인식하기 시작한다(신창호, 「『동몽선습』에 나타난 아동교육과정의 특징」, 『한국교육사학』 제33권 3호, 한국교육사학회, 2011, pp. 28-30).

21) 관립여학교 설립안은 1900년 1월 결국 의정부회의에서 부결되었다. 그 이유는 국가 재정이 부족하므로 후에 실시하자는 것이었다(이승희, 「한말, 일제하의 여성교육론과 여성교육정책」, 『여성연구논집』 제16권,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2005, p. 193).

22) 이승희, 위의 논문, 2005, p. 111.

교가 아닌 한국 여성들에 의해 최초로 설립된 여성교육기관이었던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찬양회는 여성들이 의견을 규합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현실적인 과제였던 ‘개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던 부분은 전통적 여성관에서 벗어나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는 여성의 주체성과 실천적 의지를 나타낸다.

이후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은 조선을 보호국가로 지정하여 ‘조선의 근대화’라는 명목 하에 조선의 본격적인 식민통치를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은 국권회복운동으로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이 전개되었는데, 그 중 애국계몽운동은 우리 민족의 일제에 의한 침략 사실을 인정하고 교육을 통해 국민의 실력을 배양하여 국권을 회복하자는 운동이었다.²³⁾ 이에 따라 국가 경쟁력을 위해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여성교육도 함께 강조되었다. 이처럼 국권상실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부딪치면서 계몽사상가들 사이에서 주창된 여성교육론은 사회진화론적 시대인식을 바탕으로 한 실력양성론의 맥락에서 제기되었던 것이다.²⁴⁾ 즉 민족과 국가 간의 생존경쟁에서 지식과 세력이 우성한 문명한 민족, 국가만이 생존할 수 있고, 열등한 민족과 국가는 도태되어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대접을 받는다고 보았다.²⁵⁾ 따라서 당시 계몽사상가들은 일제에 의한 조선의 식민지 전략의 원인을 사회진화론적 논리로 파악함으로써 문명국가가 되기 위한 ‘교육’과 ‘식산’의 실력양성론을 제기하였던 것이다.²⁶⁾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학교가 급증하게 되었고, 기존에 있던 학교들은 여성에게도 개방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다.²⁷⁾ 당시 일제는 조선을 식민

23) 조경원, 「개화기 여성교육론의 양상 분석」, 『교육과학연구』 제28권,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1998, pp. 36-37.

24) 이송희, 「대한제국말기 계몽단체의 여성교육론」, 『이대사원』 제28권,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1995, p. 263.

25) 이송희, 위의 논문, 1995, p. 265.

26) 실력양성을 위해 교육구국운동, 인문계몽운동, 민족종교운동, 국학진흥운동, 산업진흥운동, 국제보상운동 등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여성교육의 강조도 이에 비롯되었다(이송희, 「한국 근대사 속의 여성 리더십」, 『여성과 역사』 제15권, 한국여성사학회, 2011, p. 112 각주16).

지화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감행함으로써 친일파 고관의 부인들과 황족으로 구성되어 여학교를 후원하는 친일적인 여성단체들을 만들어내었다. 이러한 친일적인 여성단체들은 이 시기 여학교 설립운동의 중심이 되어 여성교육의 후원과 그 밖의 여성교육을 주장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여성교육의 확대를 이루었다.²⁸⁾ 그러나 이 여성단체들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하에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의식이 미약하였으므로 순종적 여성관이 강조되는 보수적 경향의 여성교육이 보편화되었다.²⁹⁾

이처럼 당시 조선의 여성교육은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의 방편으로 강조되었기 때문에 여성 개인의 인격과 주체성의 확립과 같이 본질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내용들이 추구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7년에 일어난 주권수호운동인 국채보상운동(國債報償運動)에서 여성의 주체의식이 성장된 일면을 파악할 수 있다.³⁰⁾ 특히 대구에서 국채보상 국민대회가 개최된 이틀 뒤인 1907년 2월 23일 대구 남일동(南一洞)에서는 여성들의 결속으로 ‘패물폐지부인회(佩物廢止婦人會)’를 조직하여 여성들도 국가의

27) 이 무렵 전국에 세워진 여학교는 170여 개로 나타났는데, 밝혀지지 않은 학교와 남녀공학, 그리고 교회에서 만든 자립학교까지 더한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한국여성연구회, 『한국여성사, 근대편』, 풀빛, 1992, p. 30).

28) 이를 대표하는 친일여성단체로는 양규의숙(養閨義塾)이라는 여학교를 후원하기 위해 1906년에 조직된 ‘여자교육회(女子教育會)’(『여자교육회』, 『공립신보』, 1906.12.7., 제3면)와 1906년 12월 여자교육회의 재정 부족으로 양규의숙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신소당(申蕭堂)이 이를 유지하기 위해 1907년에 자발적으로 조직한 ‘진명부인회(進明婦人會)’가 있으며, 이 밖에도 ‘자선부인회(慈善婦人會)’와 ‘자혜부인회(慈惠婦人會)’ 등과 같은 친일 저명인사들의 부인들이 속한 여성단체가 있었다(이효재, 앞의 책, p. 93).

29) 당시 여성교육에 대한 내용은 1909년 2월 노병희(盧炳喜)에 의해 저술된 개화기 여성교과서인 『여자소학수신서』의 저술 목적에서는 한 집안의 가정 내로 한정된 여성을 ‘좋은 여성’이라고 강조하면서 ‘좋은 어머니’, ‘좋은 며느리’ 등이 되기 위한 여성교육의 목적이 제시되었다. 또한 ‘옛적에 어진 여자’에 대한 말과 행실을 기록하고, 유교의 실천덕목인 ‘오륜’에 대한 도리를 바탕으로 저술한 교과서임을 나타내어 동양의 전통적 여성교육에 바탕을 둔 전근대적인 여성관을 강조시켰음을 알 수 있다(송인자, 『개화기 여성교육론 연구』, 숙명여대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pp. 120-121).

30) 국채보상운동은 부산에서 상인들의 국채보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일본에 진 빚 1,300만원을 갚아 일본의 보호국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운동을 발의하고, 이에 온 국민의 열렬한 지지와 호응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된 운동이었다(이송희, 『한말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일 연구』, 『대한제국기의 애국계몽운동과 사상』, 국학자료원, 2011, pp. 276-284.; 『국채보상의연금제서렬명』, 『공립신보』, 1907.4.26., 제3면).

일원으로서 남녀동등의식을 바탕으로 국권회복을 위한 민족운동에 참여하여 여성의 주체의식과 민족의식을 드러내었음을 알 수 있다.³¹⁾ 특히 이러한 여성조직에는 양반층 여성뿐만 아니라 기독교 여성, 상인층 여성, 기생출신 여성 등의 모든 계층을 망라한 여성들이 참여하여 여성운동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함으로써 여성의식의 변화를 보였다.³²⁾ 즉 국민들의 항일 독립의식이 집약적으로 나타난 국채보상운동으로 인해 계층의 차별 없이 모든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민족운동에 기여하게 되는 경험으로 여성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여성운동은 민족적 상황 속에서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여성운동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운동 조직이 확고한 주체가 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조직으로만 전개되었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조직을 이루어 활동하였던 경험을 갖게 된 계기였으며, 이는 여성운동의 시작 단계로써 의미가 있다.

Ⅲ. 근대시기 여성운동의 전개 양상

1. 1910년대의 여성운동

1910년 한일합방의 강행 이후 본격적인 일제의 무단통치로 인해 조선여성의 삶은 전근대적인 봉건적 사상이 그대로 지속된 현실 위에 자본주의적 억

31) 폐물폐지부인회는 “나라 위하는 마음과 백성 된 도리에 어찌 남녀가 다르리오…본인 등은 여자의 소치로 일신소존(一身所存)이 다만 폐물 등속이라 태산이 흙덩이를 사양치 아니하고…적은 것으로 큰 것을 도우나니 유지하신 부인 동포들은 다소를 불구하고 현실에 연하와 국채를 청장(淸帳)하심이 천만행심”이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였다(「제계산맥 근세 100년 산업과 인물, 대구민의회소」, 『매일경제』, 1982.4.6., 제8면).

32) 한국여성연구회, 앞의 책, p. 33.

압이 첨가되었고, 그 위에 식민지적 상황이 첨가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운동은 성, 계급, 민족이라는 세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³³⁾

이에 따라 1910년대의 여성운동은 이전의 국권회복기에 이어 민족적 독립 문제에 중점을 두는 민족운동을 주도하는 여성 단체들과 그 후원을 목적으로 하는 항일 여성단체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는 1919년 거족적인 민족해방운동인 3·1운동의 발발로 3·1운동 이전의 여성운동과 3·1운동 이후의 여성운동으로 나누어 전개되었으며, 주로 한말 이래 기독교계의 여학교에서 평등사상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독교계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주도하였다.

먼저 3·1운동 이전의 여성운동에서는 기독교 여성들이 소규모 비밀 조직을 결사하여 민족문제와 여성문제를 기반에 두고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³⁴⁾ 이를 대표하는 여성단체로는 ‘송죽회(松竹會)’로 1913년에 평양의 기독교계 여학교인 송의여학교(崇義女學校)의 교사 황애시덕(黃愛施德, 1872-1971)과 그 외의 여교사들로 이루어져 조선여성들에게 애국심과 우국적인 자각을 고취시키고, 독립지사 가족의 생활보조와 독립운동의 연락 활동 등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이처럼 송죽회는 1919년 3·1운동 까지도 지속적으로 활동하여 평양의 만세 시위에서 참여한 대표적인 여성단체였다.³⁵⁾

또한 일본 동경에서 조선여자유학생들끼리 모여 결성한 ‘조선여자유학생친목회(朝鮮女子留學生親睦會, 이하 여자친목회)’의 여성회원들 중 일부는 귀국 후 3·1운동을 준비하기 위해 비밀조직을 결성하여 여성들의 독립운동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이때 일본 동경여자미술학교(東京女子美術學校) 서양화과를 졸업한 여성미술가 나혜석도 여자친목회의 회원으로서 3·1운동에

33) 이승희, 「일제하 여성운동의 전개」, 『유관순연구』 제5호,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2005, p. 63.

34) 송의여학교와 기전여학교의 공주회, 천안 양대여학교의 기도동지회, 김애일라의 주도로 만들어진 연습회, 보신여학교의 9송결사대 등의 소조직과 송죽회 등이 있었다(이승희, 앞의 논문,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2005, pp. 64-65).

35) 이승희, 앞의 논문,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2005, pp. 65-66.

참여하여 민족의식을 드러내었다. 또한 당시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淑明女子高等普通學校, 이하 숙명여고보)의 학생이었던 여성미술가 이숙종도 3·1운동에 참여하여 여학생들을 선동하고, 행상이나 거지로 변장한 후 각지로 파유되어 선언문을 전달하는 활약을 펼쳤다.³⁶⁾ 이처럼 국내에서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비밀결사를 조직하는 등 주로 신교육을 받은 여성 지식층들이 3·1운동을 주도하여 민족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일조함으로써 여성들의 역량을 크게 발휘하였다.

이를 이어 3·1운동 이후의 여성운동은 ‘대한민국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와 ‘대한애국부인회(大韓愛國婦人會)’ 등의 교사와 간호사 등의 여성들로 구성된 비밀단체가 곳곳에서 결성되어 주로 독립투사들을 위해 군자금 모집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등의 활동으로 이어졌다.³⁷⁾ 그 중 장선희(張善禧, 1893-1970)는 자수를 전공한 여성미술가로서³⁸⁾ 대한민국애국부인회가 통합되기 전에 경성여고보 출신 여성들과 혈성부인회(血誠婦人會)를 조직하여 자수품을 만들어 그 판매대금을 헌납하는 등의 활동으로 민족운동에 기여하였다.³⁹⁾ 이처럼 장선희의 활동은 민족운동에서의 자수의 역할을 일부 증명해주었던 사실로써 의미가 있다.

이처럼 1910년대의 여성운동은 남녀평등의 인식 아래 독자적인 비밀단체를 조직하여 독립을 지원해주는 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 단체들을 주도한 여성들은 국내에서 남녀평등 사상을 기반으로 한 신교육을 받았던 기독교계의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본유학을 통해 근대문명

36) 「민족운동 참여의 계기 삼일운동과 여성의 활약」, 『경향신문』, 1973.3.2., 제5면.

37) 이송희, 앞의 논문,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2005, p. 66.

38) 장선희는 정신여학교(貞信女學校)의 자수 교사였던 장선희는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京城女子高等普通學校)를 졸업하고, 훗날 1922년 동경여자미술학교 자수과를 전공하고 동양화과에 편입하였던 여성미술가이다(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역사 속의 여성인물』 下, 한국여성개발원, 1998, p. 205, 209). 이처럼 장선희는 자수를 전공한 한국 근대시기 여성미술가이자 신여성이지만, 항일 민족독립운동에는 참여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여성운동에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39) 이송희, 앞의 논문,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2005, p. 67.

을 접하고, 신문화와 신사상을 수용하였던 선진적인 여성들이 남녀동등의 여성의식을 기반으로 민족운동의 주체로서 등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여성들은 여성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따로 드러내어 여성운동을 전개한 것이 아닌, 민족의 독립을 목적으로 민족운동 내에서만 활동하였다.⁴⁰⁾ 그러나 여성미술가의 여성운동 측면을 주목해보면, 나혜석은 문학과 미술 활동을 통해 여성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민족운동만이 아닌 여성운동도 함께 전개하였다는 점이 나타난다. 나혜석은 당시 일본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던 자유주의 여성해방운동의 영향으로 여권의식과 민족의식이 형성되어 일본의 조선유학생들 단체의 기관지에 소설이나 시 등을 게재하는 문학 활동을 통해 조선여성이 처한 여성문제와 민족문제를 동시에 드러내었으며, 귀국 후 신문에 만평 만화를 게재하는 등 여성문제를 사회에 보급시켰다.

따라서 1910년대 국내에서는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민족운동으로 귀결된 여성운동이 전개되었다면, 여성미술가 나혜석은 1919년 전국민 민족운동인 3·1운동에 참여하기 전 이미 여성문제까지도 인식하여 1910년대 일반 여성운동에 비해 보다 확장된 사상의 여성운동에 앞장섰던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1920년대의 여성운동

1920년대에 들어서면 3·1운동에서 보여준 여성들의 대중적 진출과 자유주의적 여성해방론의 보급으로 여성들의 주체의식이 각성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여성문제가 점차 사회개조의 일부분으로써 부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으로 여성은 ‘단체’라는 조직체로 묶여 여성운동을 전개해나가기 시작하였다.⁴¹⁾ 이 시기는 국내의 학교나 해외유학을 통해 신교육을 받은 지식

40) 이승희, 앞의 논문, 한국여성사학회, 2011, pp. 118-119.

41) 박혜란, 「1920년대 여성청년단체의 조직과 활동」,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인 여성들이 신여성으로 점차 등장하게 되어 근대적 시각으로 사회현상을 새롭게 받아들여 본격적으로 여성운동을 주도해나가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에 따라 1920년대에 이른 여성운동은 점차 민족, 계급, 성(性)의 문제에 대해 점진적으로 논하기 시작하여 1910년대의 민족운동으로 치중되었던 범주에서 보다 발전된 여성운동의 새로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⁴²⁾

1) 민족주의계열의 여성운동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일제가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정책을 전환함에 따라 부르주아 민족주의계열 지식인들은 즉각 독립의 목표를 유예하였으며, 교육과 실업의 진흥을 통한 국권회복이라는 노선을 추구하여 민족주의적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문화운동은 특히 서양 근대문명을 보편문명으로 기준 삼아 조선인이 추구해야 할 대상으로 여김으로써 문명을 경영할 만한 실력을 길러 독립을 추구하고자 하는 실력양성론을 주장하여 조선사회를 근대사회로 개조되길 지향하였다.⁴³⁾ 이를 대표하는 문화운동으로는 크게 문화적 실력양성을 통한 독립에 목적을 두었던 청년회운동과 물산장려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⁴⁴⁾

이를 기반으로 여성운동계에서도 민족주의계열의 여성들에 의해 단체가 조직되어 문화운동이 전개되었다. 먼저 물산장려운동은 민족자본주의 위기가 심화된 1922년 말에 시작되어 1923년에 절정을 이루었는데,⁴⁵⁾ 이를 대표하는 여성운동단체는 1923년 2월 5일에 창립된 ‘토산애용부인회(土産愛用婦人會)’를 꼽을 수 있다.[도2] 이 단체는 “우리의 긴 역사 가운데에 잘났다

1995, pp. 168-169.

42) 이송희, 앞의 논문,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2005, p. 75.

43) 전재호, 「식민지 시기의 민족주의 연구: 국내 부르주아 우파와 사회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제16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pp. 89-90.

44) 박찬승, 『한국 근현대사를 읽는다』, 경인문화사, 2010, p. 229.

45) 박찬승, 앞의 책, p. 231.

한 아버지는 있으나 잘났다할 어머니는 없다.”, “우리 부인들도 이제부터는 세상일 좀 하자”라는 여성의 주체의식을 드러냄으로써 조선의 부녀자들이 모여 “우리들의 동포가 만들어 주고, 우리들의 조상이 입으시고 쓰시던 우리 토산물을” 숭상하고 애용할 것을 장려하고자 결성한 여성단체였다.⁴⁶⁾ 이때 여성미술가 이숙중은 일본유학길에 오르기 전에 이 단체의 간사로 활동하여 여권의식을 기반으로 민족적 문화운동에 참여하였던 것이 주목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물산장려운동 외에 문화운동인 청년회운동은 1920년대 후반까지 신문화건설운동의 중심 역할을 한 운동으로, 1920년대 초부터 청년층의 사회인식의 심화로 기인하여 각 지역에서 청년단체가 전국적으로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운동계에서도 신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이 주도자가 되어 ‘여자청년회’ 단체가 전국적으로 결성되었으며, 종교기관을 통해 교육받은 여성들이 지도층으로 성장하면서 일부 종교여성단체가 함께 민족주의계열의 여성단체로 등장하였다. 이처럼 1920년대 초반에 출현한 여성단체들은 초보적인 의식계몽운동으로 여성운동을 주도함으로써 민족주의계열의 ‘초기 여자청년회’ 단체의 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1920년대 초반 여성운동을 주도한 민족주의계열의 초기 여자청년회 단체들은 당시 학교나 대중 매체가 보편화되지 못했던 상황에 따라 전국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주로 강연회, 토론회, 여자야학(女子夜學) 등을 중점적으로 개최하여 여성문제를 인식시키고, 여성들로 하여금 각성에 이르게 하는 여성 계몽교육운동을 전개하였다.⁴⁷⁾ 특히 1921년 경성에 설립된 ‘조선여자청년회(朝鮮女子青年會)’는 여성미술가 방무길이 발족에 참여하여 설립된 초기 여자청년회 단체로써 주목된다.

이처럼 초기 여자청년회 단체들의 여자야학은 1920년대에 이르러 여성교육

46) 「토산애용부인회」, 『동아일보』, 1923.2.7., 제3면.; 「서울 아낙네들이 물산애용회를 조직」, 『신한민보』, 1923.3.15., 제1면.

47) 이승희, 앞의 논문,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2005, p. 76.

을 통한 여성의 해방이 강조되면서 설립이 증폭된 교육기관으로 개인 및 지방유지자나 지방청년단체 등에 의해 다수 설립되었다.⁴⁸⁾ 그러나 여성미술가 나혜석은 1922년 개인적으로 여자야학을 설립하고 운영한 개인 설립자에 속한다. 나혜석은 단체에 소속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여성으로서 여성들의 지식향상을 위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해 나갔던 점은 당시 단체를 통한 여성운동을 전개하였던 초기 여자청년회와의 차이점으로 부각될만한 부분이다.

또한 초기 여자청년회 단체들의 강연회나 토론회 개최의 경우에는 각 지방의 여성단체들의 저명한 활동가들을 주로 연사로 두어 자체 강연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여성들과 일반대중들에게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주고, 여성들로 하여금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보편적인 방법이었다. 특히 1921년 ‘조선여자교육회(朝鮮女子教育會)’나 일본 동경의 여자친목회의 후신인 ‘조선여자학흥회(朝鮮女子學興會, 이하 여자학흥회)’⁴⁹⁾와 같은 여성단체들은 주로 신문사의 후원으로 방학을 이용하여 고국순회 강연회 및 토론회를 실시하는 여성 계몽교육운동을 전개하였다.⁵⁰⁾

이처럼 1920년대 초반에 초기 여자청년회를 중심으로 민족주의계열의 여성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상황에서 여성미술가들도 함께 포함되어 단체로서나 개인으로서나 여성 계몽교육을 주도하였다. 특히 그들은 남성들에게만 허용되었던 미술계 측면에도 여성계몽의식을 보급시켜 남녀 동등한 여성의 주체의식을 추구하고자 여성운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나혜석은 여성미술가로서 1921년 여성 최초로 경성에서 서양화 개인

48) 여운실, 「1990년대 여자야학 연구」, 『성신사학』 제12·13권, 동신사학회, 1995, p. 195.

49) 여자학흥회는 여자친목회 회원 중에서 조직을 따로 편성한 것으로, 『여자계』를 현실적으로 응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었다. 여자학흥회는 여자친목회의 별도의 조직이 아닌, 그를 모체로 하면서 특별히 『여자계』를 후원하기 위한 모임이며,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과 지식의 향상을 도모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백옥경, 「근대 한국여성의 일본유학과 여성현실인식」, 『이화사학연구』 제39권, 이화여자대학교 사학연구소, 2009, pp. 13-16).

50) 이승희, 앞의 논문,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2005, pp. 76-77.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미술계의 남녀차별적인 규범을 타파하고자 하였으며, 1923년에는 여성미술가 이숙종과 백남순을 비롯한 남성 서양화가들과 함께 ‘고려미술회(高麗美術會)’를 조직하여 남녀동등의식을 바탕으로 조선에 서양화를 보급하기 위한 활동을 주도하였다. 또한 방무길은 자신의 전문 분야인 서화계의 남녀동등의식을 추구하고자 1923년에 ‘창신서화연구회(創信書畫硏究會, 이하 창신서화회)’라는 서화전문 여성교육단체를 조직하여 여성들에게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여성 서화 미술계를 보급하는 기관을 주도하였다. 이처럼 당시 여성미술가들은 민족주의계열의 여성단체에서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여성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미술가로서 자신들의 분야에서 여성단체를 조직하고 주도하는 등 여성 계몽교육 방면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처럼 1920년대 초에 활발히 전개되었던 초기 여자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계열의 여성운동은 신여성들이 지도층으로 등장하여 여성문제와 민족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여성들만의 문제를 다루는 여성단체를 조직한 것에서 의의가 있다.⁵¹⁾ 그러나 1920년대 초 여성단체운동은 중산층의 부르주아 여성들을 중심으로 실력 향상을 우선적 목표로 삼은 민족주의계열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에 입각한 여권론적 여성운동에만 국한되었으며, 부호주아 계층의 여성들 이외의 무산(無産)계급 여성들의 현실적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던 한계에 부딪치게 되면서 1923-4년경에 새로 유입된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함에 따라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⁵²⁾

51) 이승희, 앞의 논문, 한국여성사학회, 2011, p. 125.

52) 한국여성연구회, 앞의 책, p. 125, 138.

2) 사회주의계열의 여성운동

1924년에 이르면 1917년 러시아혁명의 성공에 따라 사회주의 사상이 급격히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점차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한 여성해방이론이 소개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계열의 여성운동이 기존의 민족주의계열의 여성운동을 점차 압도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당시 일본에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을 수용한 유학생들을 통해 유입되었던 것으로 이러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은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억압 받는 노동자여성이나 농민여성 등의 여성문제에 주목하는 것이었다.⁵³⁾

이러한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 배경을 대표하는 여성으로는 여성미술가 정칠성을 꼽을 수 있다. 정칠성은 기생으로 활동하다가 1922년 1차 일본유학을 단행하면서 당시 일본에서 보급되었던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칠성은 1923년에 귀국하여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본격적인 출현을 알리고자 1924년 5월 10일에 ‘조선여성동우회(朝鮮女性同友會, 이하 여성동우회)’의 결성을 이룬 대표적인 여성이었다.

이처럼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에 기반을 둔 여성동우회의 조직으로부터 사회주의 여성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하자, 기존의 초기 여자청년회들은 사회주의적 여자청년회로 그 성격이 전환되기 시작하였다.⁵⁴⁾ 이러한 흐름으로 기존

53) 한국여성연구회, 앞의 책, pp. 138-139.

54) 이를 대표하는 여자청년회는 정칠성이 1923년 귀국하자마자 결성하였던 ‘대구여자청년회(大邱女子青年會)’를 꼽을 수 있다. 대구여자청년회는 초기에 민족주의적 여성단체로 출발하였다가 청년조직의 전국적 결집을 주장한 사회주의 세력의 ‘조선청년총동맹(朝鮮靑年總同盟)’에 흡수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회주의적인 여성단체로서 성격이 전환되었던 것이다(한국여성연구회, 앞의 책, p. 142).; “지방청년단체의 가입신청이 답지하는데 창립위원회에서 제1회로 자격을 심사하여 발표한 단체는 아래와 같다. 상주청년회, 신고산청년회, 강화중앙청년회, 대구여자청년회, 공영청년회, 우리청년회, 자은청년회, 삼광청년회, 노농청년회동맹, 김해청년회, 광흥친목회, 담양청년회, 봉천조선인청년회, 능주청년회, 제물포청년회, 중동선조선인청년연합회, 주호청년회, 나주청년회, 영동청년회, 광양청년회, 광양육영구락부, 순창청년회, 김제형평청년회, 춘양청년교육회, 웅진청년회”(「지방청년회 총동맹에 가맹답지」, 『동아일보』, 1924.4.12., 제4면).

의 민족주의계열 초기 여자청년회의 상당수가 활동을 정지하거나 성격을 전환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회주의사상을 지표로 삼는 활동가들이 여자청년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⁵⁵⁾ 이러한 사회주의의 확산에 따라 방무길의 조선여자청년회도 1923년 3월에 개최된 ‘전조선청년당대회(全朝鮮靑年黨大會, 이하 청년당대회)’⁵⁶⁾에 참가하게 되어 사회주의 청년운동의 대세 속에서 스스로의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⁵⁷⁾ 조선여자청년회는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로써 성격이 더 강하였지만, 당시 사회주의화의 영향을 일부 받았었던 것으로 주목된다.

이러한 사회주의 사상이 전파되는 흐름 속에서 여성동우회의 내부에서는 각 분파의 성향에 따라 새로운 사회주의 여자청년단체를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여성동우회 내의 산하단체인 화요·북풍계에서는 주세죽(朱世竹), 허정숙(許貞淑) 등의 사회주의자이 중심이 되어 1925년 1월 21일에 ‘경성여자청년동맹(京城女子靑年同盟)’을 창립하였다. 또한 이에 대응하여 같은 해 2월 21일에는 이미 1월 17일 여성동우회 안의 서울파를 중심으로 갈라져 나왔던 박원희(朴元熙), 김수준(金繡俊) 등이 ‘경성여자청년회(京城女子靑年會)’를 조직하였다.⁵⁸⁾ 이러한 사회주의적 여성단체들도 강연회와 여자야학 등을 통해 여성계몽에 중점을 두었으나, 초기 여자청년회가 여성의 개인적·의식적 각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 반해 사회주의계열 여성단체는 사

55) 박혜란, 앞의 책, p. 181.

56) 청년당대회는 조선의 민중운동의 일환으로 기존의 청년단체들에게 봉건적 억압과 자본주의제도에 따른 계급적 억압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였다(「전조선청년에게 소하노라」, 『동아일보』, 1923.3.14., 제1면).

57) 박혜란, 앞의 책, p. 180.; 조선여자청년회는 1924년 4월 기존의 운영 방식에 “노동부인에게 위안을 주는 위안회 등의 계획을 세워 차차 실행에 착수할” 것이라는 사회주의적 계획의지를 밝혔다. 이는 청년당대회의 참가로 인한 변화의 모색으로 보이며, 이후 부인 견학단을 조직하는 등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을 강조하는 활동으로 이어졌다(이옥수, 『한국 근세여성사화』, 규문각, 1985, p. 372.; 「졸업생을 보내면서 선생님들의 부탁, 내 생활의 경제적 독립을 도모하라. 남녀평등은 여기에서. 조선여자학원 신알베트 선생」, 『중외일보』, 1928.3.16., 제3면).

58) 「여자청년창립」, 『동아일보』, 1925.2.24., 제2면.; 「모임」, 『동아일보』, 1925.3.8., 제2면.; 한국여성연구회, 앞의 책, p. 144.

회주의 여성해방론을 선전, 보급하는 등 계급적 성격을 보다 분명히 강조하여 여성대중들로부터 설득력을 확보하였다.⁵⁹⁾

이처럼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에 따른 사회주의계열의 여성단체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이 시기에 민족주의계열의 여성운동에 참여하였던 여성미술가들은 여성운동의 활동보다는 자신들의 미술 전공을 연마하는 활동으로 스스로가 계몽의 주체가 되어 조선미술전람회(朝鮮美術展覽會, 이하 조선미전)라는 전시 체제를 통해 여성으로서의 위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혜석은 조선미전의 서양화부에서 연이어 수상하여 여성 서양화가로써 이름을 날리게 되었으며,⁶⁰⁾ 방무길도 조선미전의 서예부 및 사군자부에서 꾸준히 작품을 출품하여 사회에 주목을 받으며 여성의 주체의식을 드러내었다.⁶¹⁾ 게다가 이숙종은 이 시기에 일본 동경여자미술학교에 입학하여 서양화를 전문적으로 학습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부르주아 민족주의계열의 여성미술가들의 활동은 당시 사회주의를 표방한 여성미술가 정철성과는 다른 활동 노선을 취하여 개인 스스로의 여성운동을 전개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1920년대 중반의 사회주의계열 여성운동단체들은 식민지 조선사회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고, 일본정부의 탄압과 상태와 더불어 주체적 역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많은 무산여성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59) 이송희, 앞의 논문,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2005, p. 78.

60) 당시 사회주의계열의 여성운동이 점차 활발해진 1923년부터 1927년까지 나혜석의 조선미술전람회의 수상작을 살펴보면, 1923년 제2회에서 〈봉황성의 남문〉이 4등 입선, 〈봉황산〉이 입선, 1924년 제3회에서 〈가을의 뜰〉이 4등 입선, 〈초하의 오전〉이 입선, 1925년 제4회 〈낭랑묘〉가 3등 입선, 1926년 제5회 〈천후궁〉이 특선, 〈지나정〉이 입선하였다(『조선일보』, 1923.5.9., 1925.5.31.; 『동아일보』, 1924.5.29., 1926.5.14.).

61) 당시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운동이 점차 활발해진 1923년부터 1927년 전까지 방무길의 조선미술전람회의 수상작을 살펴보면, 1923년 제2회에서 〈行書〉가 서예부에서 입선, 1924년 제3회에서 〈草書〉가 서예부에서 입선, 〈蘭〉이 사군자부에서 입선, 1925년 제4회 〈竹〉이 사군자부에 입선, 1926년 제5회 〈梅竹〉이 사군자부에서 입선하였다(『조선일보』, 1923.5.9., 1925.5.31.; 『동아일보』, 1924.5.29., 1926.5.14.).

3) 근우회의 여성운동

1920년대 중반에 이르호 사회주의계열의 여성운동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자 여성운동의 통일적 지도단체의 결성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26년 11월 조선의 사회주의 단체인 정우회(正友會)가 주장한 민족주의 진영과의 협동전선인 ‘정우회 선언’을 시작으로 하여 조선의 여성운동계에서도 1926년 전선통일이 시급하게 요구되었다.⁶²⁾

이에 따라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지도단체는 사상적 지도체인 ‘여성동우회’와 여성청년운동의 지도체인 ‘중앙여자청년동맹(中央女子青年同盟, 이하 중앙여청)’으로 전선이 정리되었다.⁶³⁾ 이후 전선이 정리된 사회주의 여성운동은 “봉건적 구속에 대한 싸움은 계급적 해방운동을 위한 일보전진이요, 계급적 여성해방은 여자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최후의 해결”⁶⁴⁾이며, “여자의 성적 해방운동과 계급적 해방운동은 그 본질상으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상 연결되어야 할 운동이다”⁶⁵⁾라고 표명하여 반봉건(半封建)과 반제(反帝)를 여성운동이 직면한 종대 과제로 보았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계열의 여성운동은 반봉건·반제라는 조선 여성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민족주의계열의 여성운동과 협동전선을 형성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27년 5월 민족주의계열의 여성단체와 사회주의계열의 여성단체가 통일적 조직으로 참여한 ‘근우회(槿友會)’가 창립되었다.⁶⁶⁾ 이때 발기인들은 약 41명으로 거의 모두가 신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이었으며, 여성미술가로는

62) 이송희, 앞의 논문,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2005, pp. 78-79.

63) 이송희, 앞의 논문,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2005, p. 79.; 이에 따라 1925년경에 여성동우회에서 분파되었던 경성여자청년회와 경성여자청년동맹이 1926년에 합동을 결의하게 되었고, 이로써 1926년 12월 5일에는 ‘중앙여자청년동맹’이라는 통일조직이 탄생하게 되었다(박혜란, 앞의 책, pp. 188-189).

64) 「여자운동선에도 방향전환의 필요(1)」, 『동아일보』, 1927.4.20., 제3면.

65) 「여자운동선에도 방향전환의 필요(2)」, 『동아일보』, 1927.4.21., 제3면.

66) 장인모, 「1920년대 근우회 본부 사회주의자들의 여성운동론」, 『한국사연구』 제142권, 한국사연구회, 2008, pp. 379-380.

정칠성이 유일하였다. 특히 정칠성은 1929년 8월에 근우회의 중앙집행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당시 근우회와 궤를 같이한 민족주의를 표방한 좌우세력의 협동전선 항일단체인 ‘신간회(新幹會)’⁶⁷⁾의 경성지회에서도 간부로 활동하면서 여성단체의 협동전선을 주장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여성미술가 이숙종은 같은 해 ‘신간회’의 동경지회와 ‘여자학흥회’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자유주의 여권운동에 사회주의적 여성 계급문제의식을 추가하여 사회주의사상으로 여성운동의 범위를 확장하였던 활동이 주목된다.⁶⁸⁾

한편 여성미술가 방무길, 이숙종, 정칠성은 모두 숙명여고보의 동맹휴학사건에 개입하였던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1927년 5월 숙명여고보 학생들이 교무주임인 재등(齎藤)교사의 민족적 차별과 민족적 모욕감 등의 이유로 학생들의 분개심을 일으켜 숙명여고보 학생들은 여섯 개조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동맹휴학을 하였던 사건으로,⁶⁹⁾ 여학생들의 민족적 항일운동을 대표하는 사건이자 여학생들의 민족의식과 여성의 권리의식과 주체의식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때 정칠성은 그녀가 활동한 근우회를 통해 이 사건을 지원해주었으며, 숙명여고보의 졸업생인 이숙종과 방무길은 위원으로 참여하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하여⁷⁰⁾ 단합과 투쟁으로 인해 숙명여

67) 신간회는 1927년 2월 15일 창립대회를 개최로 창립되었으며, “신간회는 조선 민족의 정치적 의식이 발달됨에 따라 민족적 중심 단결을 요구하는 시기를 타서 민족주의를 표방한…신간회의 목표는 모든 우경적(右傾的) 사상을 배척하고 민족주의 중 좌익전선을 형성하려는 것이라 하며…강령은 1.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1.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1.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이라고 밝혔다(「민족주의로 발기된 신간회 강령 발표」, 『동아일보』, 1927.1.20., 제4면.; 「신간회창립대회」, 『동아일보』, 1927.2.17., 제3면).

68) 이러한 경향의 글들로는 이숙종의 「부녀운동의 주관」과 정칠성의 「참 자유의 길」 등이 있다(정미량, 『1920년대 재일조선유학생의 문화운동』, 지식산업사, 2012, pp. 196-197).

69) 재등 교무주임은 조선인과 일본인에 대한 차별과 여학생들에게 민족적 모욕감 주고 무례한 농담을 일삼았으며, 조선인 교원을 내보내고 일본인 교원으로 대신하는 등의 행동으로 숙명여고보 학생들의 분개심을 일으켰다. 이에 대한 숙명여고보의 요구조건을 보건대 “일, 재등 교무주임의 사퇴. 이, 중도사감의 사퇴. 삼, 생도대우 개선. 사, 조선재봉선생 개입. 오, 조선인 선생 채용 증가. 육, 인격선생 정당대우.”의 육 개조이다(「학부형회에서 성명서발표 숙명맹휴사건」, 『동아일보』, 1927.6.27., 제3면).

70) 「숙녀회 임시총회 위원 17인 선거 숙명여학교 졸업생대회 만사는 위원에 전임」, 『매일신보』, 1927.6.20., 제2면.; 한국여성연구회, 앞의 책, p. 168.

학교의 결의문은 관철되었고, 맹휴가 수습되었다.⁷¹⁾ 이는 당시 여성미술가 정철성, 이숙중, 방무길의 민족의식과 여권의식이 동시에 발현되었던 사건으로 의미가 있다.

근우회 본부는 1928년 이후부터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계열의 협동전선을 추구하는 운동 방침에서 벗어나 점차 사회주의적 성격으로 기울게 되었으며,⁷²⁾ 숙명여고보 동맹휴학 사건에 개입한 것을 계기로 1930년 서울 여학생 시위 운동까지 참여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검거 하에 사회주의계열 여성 간부들이 대거 검거되었으며, 일제 정부의 잦은 탄압으로 근우회의 분위기가 점차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30년 이후 근우회는 우경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민중여성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질책으로 많은 지회에서 해소론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근우회는 더 이상의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1910년대는 주로 기독교계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주도하였던 것에 반하여, 1920년대 여성운동의 지도층은 근대적 신교육과 신사상을 접한 다방면의 여성들이 신여성으로 등장하여 여성들끼리 단체로 결속하여 민족문제뿐만 아니라 여성문제와 계급문제까지 다루게 되어 보다 발전된 여성운동의 전개 양상을 보였다.

71) 결의문에 대한 내용으로는 “일, 교무주임 문제는 학교당국에 경고함. 이, 중도(中島)교원은 채용의 부적당함으로 인함. 삼, 재봉교원은 반드시 조선인교를 원(員)으로 할 사(事). 사, 차별적 대우를 철폐할 사. 오, 조선인 교원을 다수히 증가할 사. 육, 교원의 진퇴를 신중히 할 사. 칠, 학생은 절대로 희생을 내지말 사.” 의 칠 개조이다. (「학부형회에서 성명서발표 숙명맹휴사건」, 『동아일보』, 1927.6.27., 제3면).

72) 1929년 5월 발행된 기관지 『근우』 창간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과거 근우회의 노농여성을 위한 투쟁에 소홀했음을 비판하면서 이후 근우회는 노농여성이 기초가 되는 투쟁을 전개하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우회 부서에 노농부가 설치되었으며, 노동여성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경동지회가 설립되었다(장인모, 앞의 논문, pp. 400-402).

Ⅳ. 근대시기 여성미술가들의 여성운동 전개 양상

1. 근대적 여성교육을 통한 여성미술가들의 출현

1) 나혜석의 진명여고보와 동경여자미술학교

나혜석의 호는 정월(晶月)으로 수원지역에서 신교육·신문화 운동을 이끌었던 재력가 집안인 나주나씨(羅州羅氏)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안 분위기에서 성장하였다.⁷³⁾ 나혜석은 1896년 부친 나기정(羅基貞, 1863~1915)과 모친 최시의(崔是議) 사이 2남3녀의 5남매 중에 넷째이자 차녀로 태어났다. 나혜석의 부친 나기정은 1887년 혼인 이래 1900년 경기도관찰부 재판주사를 지낸 뒤 1910년 10월 시흥군수로, 1912년 3월 용인군수로 부임하다가 1914년 2월 관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나혜석의 부친이 지방관을 지냈다는 것은 당시 대다수 경제적 특권층으로써 새로운 시대 사조에 순응하여 자제들에게 일본유학 등을 보내어 신교육을 받게 하려는 개화가문의 경우였다.⁷⁴⁾ 나혜석의 모친 최시의(崔是議)는 1908년 12월 여성교육의 보급과 자선사업을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수원에서 부인회를 조직하는 등 계몽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⁷⁵⁾ 나혜석의 사촌 오빠인 나중석(羅重錫, 1878년생)은 1901년 함경북도 관찰부주사를 역임했으며, 수원지방의 대지주이자 신교육운동가·자선가이기도 하였다. 나중석은 향리 종가에 ‘백운당(白雲當)’이라는 당호를 걸고 인근의 선각자들과 교류하여 1903년 사립학교인 삼일남학교(三一男學校)를 설립하는 등 신교육운

73) 나주나씨 가문은 조선중기 수원지방에 터 잡은 이래, 19세기 말에서 190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에 그 일족들이 지방관을 역임하고 경제적 부를 축적하여 신교육·신문화 운동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등 비교적 명문의 가계를 유지해왔다(최홍규, 앞의 책, pp. 439).

74) 최홍규, 앞의 책, p. 441.

75) 김형목, 앞의 논문, p. 116.

동의 선구적 업적을 남겼다.⁷⁶⁾ 이처럼 신교육을 선도하였던 나혜석의 집안 분위기와 더불어 당시 한말 수원지역도 일본인 거주자가 증가하였으며, 기독교 선교 사업 등이 전래되어 근대적인 의식의 변화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수원지역에서는 당시 20여 개교의 사립학교가 선교사 등에 의해 설립되었고, 그 중에 나혜석은 1902년 북감리교회 내에서 설립된 사립 교육기관인 삼일여학교(三一女學校)에 1906년 11세의 나이로 입학하여 1910년 6월에 졸업하였다.⁷⁷⁾ 삼일여학교는 당시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으로 국권을 회복하고자 여성교육을 적극적으로 지향하였던 시기와 맞물려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삼일여학교의 교사 김메례(金袂禮)는 남녀평등의 문제를 인식하고,⁷⁸⁾ 여성의 실업과 교육을 우선시하는 근대식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국권회복에 목적을 둔 여성교육을 전개하였다.⁷⁹⁾

이처럼 나혜석이 입학한 이 시기는 교육구국운동으로 인해 여성교육이 강조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여학교가 점차 증폭하게 된 시기였다. 당시 사립여학교는 크게 기독교계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여학교와 민간에서 설립된

76) 삼일남학교는 개신교 선교사와 신자 등에 의해 설립되었다. 주요 발기인으로는 이하영·임면수·나중석·차유순·김계구·이성의 등이 있다(김형목, 「한말 수원지역 계몽운동과 운영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3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p. 23). 삼일남학교는 ‘국가의 독립을 위한 일꾼’을 양성한다는 이념으로 애국심과 민족의식이 담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교직원과 졸업생들이 3·1운동을 비롯한 일제하 고장의 민족운동 전개의 일익을 담당하였다(최홍규, 앞의 책, p. 443).

77) 1908년 8월 통감부가 ‘사립학교령’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당시 일제가 조선의 민족교육운동이 지나치게 활성화된 것을 경계하고, 구국교육운동과 같은 사립학교의 교육 내용을 통제하기 위해 발표한 법령이었다. 당시 여성교육기관들의 대부분이 사립학교에 속해 있었기에 사립학교령에 의해 영향 받은 바가 컸다. 사립학교령은 첫째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만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둘째 학부대신이 사립학교를 통제할 뿐 아니라 폐교조치를 하는 등 감독권을 갖겠다는 것. 셋째 학부대신이 사립학교의 교과서를 통제한다는 것이었다(이송희, 앞의 논문,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2005, pp. 199-200).

78) 삼일여학교의 교훈인 ‘경천애인(敬天愛人)’은 자연법에 기초한 인간평등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동시에 실천적인 덕목을 강조하였다(김형목, 앞의 논문, 2010, p. 117).

79) “수원부내 삼일여학교 여교사 김메례씨가 신구학문에 지식이 고명하여 학도를 열심히 교육함으로 교황(校況)이 흥왕하고 학무(學務)가 일신(日新)하여 시의(時宜)를 예도(預度)하여 실업과 교육이 급무 됨을 격절히 설명하여 몽매한 인심을 감화케하는 고로 진시고명(眞是高明)한 교사라고 인개칭송한다더라.”(「학계휘문」, 『기호총학회월보』 제7호, 1909, p. 39).

여학교로 나누어졌는데, 삼일여학교는 기독교계 사립여학교 중에 하나였고, 이후 나혜석이 1910년 9월에 입학한 서울의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進明女子高等普通學校, 이하 진명여고보)는 민간에서 설립된 학교였다.[도4]

진명여고보는 엄귀비(純獻皇貴妃, 1854-1911)의 후원으로 교장 엄준원(嚴俊原, 1855-1938)과 황매례(黃袂禮)를 학감으로 하여 1906년에 진명여학교(進明女學校)라는 교명으로 개교되었다.⁸⁰⁾ 진명여고보는 이후 본격적인 일제의 식민지시대에 들어선 1910년 한일합병 이후부터 일제의 통솔 하에 넘어가게 되었으며, 강한 애국심과 여성계몽의식을 지닌 황매례는 일본인으로부터 학감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다.⁸¹⁾ 이후 진명여고보는 1912년 조선총독부로부터 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게 되었으며,⁸²⁾ 1911년 8월 조선총독부에 의한 ‘제1차 조선교육령’에 의거한 교과목과 수업연한이 편성되었다.⁸³⁾ 이처럼 조선교육령에 따른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과 과정에서 특히 주목해야할 것은 ‘국어’ 과목이 일본어 수업으로써 주당 6시간으로 배당되어 ‘조선어 및 한문’ 과목이 2시간으로 배당된 것에 비해 월등한 차이로써 식민지교육이 본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재봉 및 수예’ 과목을 주당 10시간으

80) 황매례가 일본으로 교육시찰을 다녀온 후 방 하나를 얻어 어린 여학생 20여명을 모집하여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 학생들 중에서는 조선 고종의 계비 엄비(嚴妃)의 사촌오빠인 엄준원의 딸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엄준원은 황선생을 엄비에게 소개하였고, 마침 여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던 엄비는 황선생의 뜻을 뒷받침하여 창성궁(昌成宮)을 학교 건물로 하사하여 진명여학교(進明女學校)의 창립을 가능케 하였다(이효재, 앞의 책, p. 82).

81) 황매례 선생의 강렬한 애국정신은 초창기 진명여학교 학생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학감으로 학생들과 같이 유숙하시며 교실에서 가르칠 뿐 아니라 생활을 지도하고 교육하였다. 그는 진명여학교뿐만이 아니라 여성단체와 지방에까지 순회하면서 여성교육과 개화의 필요성을 외쳤다. 특히 부인회를 상대로 여성교육이 급선무라는 요지의 강연을 하여 여성들의 교육열을 촉구하였다(이효재, 앞의 책, pp. 82-83).

82) 「여교확장」, 『공립신보』, 1907.7.12., 제3면; 「여자학교 건축」, 『공립신보』, 1908.9.2., 제1면; 기호흥학회, 「학계휘문」, 『기호흥학회월보』 제3호, 1908.10.25., 43쪽; 「조선총독부고시제180호(朝鮮總督府告示180號)」,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제482호, 1912.4.9., 제1면.

83) 여자고등보통학교는 3년의 과정을 두었고, 입학자격은 12세 이상으로 수업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하였다. 1학급의 정원은 약 50인이며, 교과목은 수신, 국어(일본어), 조선어 및 한문, 역사, 지리, 산술, 이과, 가사, 습자, 도화, 재봉 및 수예, 음악, 체조 등 13개 과목이었다. 또한 기예과를 두어 나이 12세 이상의 여자에게는 재봉 및 수예를 전수케 하였으며, 수업연한은 3년 이내로 하였다(이송희, 앞의 논문,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2005, p. 203에서 재인용).

로 가장 큰 비중으로 배당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들에게 부덕을 강조하는 전통적 여성상으로 양성해내려는 여성교육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⁸⁴⁾ 따라서 1911년부터 일제하 여성교육은 식민지 정책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으로 일제가 추구하는 가부장제에 입각한 현모양처의 여성상을 양성해내기 위한 식민화 교육이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나혜석도 당시 여성의 역할을 가정 내로 한정하는 퇴보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당시 나혜석이 진명여고보에 재학하였던 시기는 1910년 9월부터 1913년 2월까지로 일제가 통치하기 전 황메레 학감의 선구자적 여성계몽의식 및 애국의식에 영향을 받았던 시기와 한일합병 후 일제가 본격적으로 여성교육을 통치하였던 시기를 모두 겪었던 것이다. 이처럼 조선이 격변하는 시기에 나혜석은 황메레 학감의 영향과 동시에 일제의 교육 정책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여권의식과 민족의식이 점차 형성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84) 제1차 조선교육령에 의한 ‘여자고등보통학교 교과 과정 및 매주 교수 시수표’ (1911년 제정)(이송희, 앞의 논문,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2005, p. 204, <표 4>).

시수교과목·학년과정	제 1 학년		제 2 학년		제 3 학년	
	시수	과 정	시수	과 정	시수	과 정
수신	1	수신의 요지	1	수신의 요지	1	수신의 요지
국어 (일본어)	6	읽기, 해석, 회화, 쓰기, 작문	6	읽기, 해석, 회화, 쓰기, 작문	6	읽기, 해석, 회화, 쓰기, 작문
조선어 및 한문	2	읽기, 해석, 쓰기, 작문	2	읽기, 해석, 쓰기, 작문	2	읽기, 해석, 쓰기, 작문
역사	2	일본역사	1	일본역사		
지리		일본지리			1	일본에 관계있는 외국 지리
산술	2	정수, 소수	2	제등수, 분수, 주산	2	비례, 부합산, 구적, 주산
이과	2	식물	4	동물, 인신, 생리 및 위생		물리 및 화학 (광물 포함)
가사				의식주, 양로		
습자	2	해서, 행서	1	해서, 행서		
도화	1	자재화	1	자재화	1	자재화
재봉 및 수예	10	운침법, 보통의류의 재봉·재단수선 편물, 조화, 자수	10	운침법, 보통의류의 재봉·재단수선 편물, 조화, 자수	10	1,2학년 과정 외에 재봉기계 사용법 조사, 염직
음악	3	단음 창가	3	단음 창가, 악기 사용법	10	단음 창가, 복음 창가
체조		유희, 교련		유희, 교련		유희, 교련
계	31		31		31	

이후 나혜석은 진명여고보 본과 졸업시험에 최우등의 성적으로 1913년 제1회 졸업생으로 졸업하여 신문에 보도되었다.⁸⁵⁾ 특히 나혜석이 “진명학교 때부터 그림 그리기 시작하였으니까요”⁸⁶⁾라고 회고한 내용을 통해 진명여고보의 ‘도화’ 과목을 통해서 미술을 접하기 시작하였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흥미를 바탕으로 미술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일본의 동경여자미술학교로 유학을 단행하여 자아실현을 추구하고자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나혜석이 1918년 4월 귀국 직후 모교인 진명여고보에서 미술 교사로 근무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여성을 위한 미술교육에 앞장서게 되는 시발점이었던 것이다.

나혜석은 1913년 4월 일본 동경여자미술학교 서양화과에 한국인 여성 최초로 입학하게 되었다.⁸⁷⁾ 조선에서는 1909년 고희동(高羲東, 1886-1965)이 일본 동경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에 유학하여 서양화를 학습한 것이 최초의 전문 서양화가의 탄생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김관호(金觀鎬, 1890-1959)와 김찬영(金瓚永, 1889-1960)이 동경에서 서양화를 배우기 위해 유학하였으며, 이후 나혜석이 여성화단의 시초로 1913년 동경여자미술학교에 입학하던 것이다. 당시 조선 남성들의 일본유학은 개화기부터 대개 관비(官費)유학으로 출발하였으나, 조선 여성들의 일본유학은 1910년대를 기점으로 시작하였으며, 관비유학이 아닌 사비(私備)유학이었다는 점은 남녀 간의 교육 인식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을 나타낸다. 이는 여성교육의 전문화 과정에 대한 필요

85) “온순한 성질은 가정의 칭찬하는 바이오, 명민한 두뇌는 학교에 애증하는 바이오. 제반 학과를 평균히 잘 닦는 중 특히 수학은 교사로 하여금 그 민첩한 재주를 놀라게 한 일이 많고 장구한 세월을 하루와 같이 근면한 결과 졸업시험에 최우등의 성적을 얻었는데 방년 십팔의 현숙한 화용에는 장래의 무한한 광명이 저절로 나타나더라.” (「제자재원,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본과 졸업생 나혜석」, 『매일신보』, 1913.4.1.)

86) 「서양화가 나혜석씨」, 『신가정』, 1935.5.

87) “조선여자로 동경에 유학, 공부가 내지 여자의 이상. 경기도 용인군 금량장에 사는 재산가 나경석씨의 영향으로 동경여자미술학교 서양그림과에서 공부하는 규수이니, 어려서부터 기이한 필재(筆才)가 당당한 장부를 업수히 생각하였고 지금도 그 학교에서 학업성적이 또한 내지 여자보다도 더 뛰어나다하니 규수의 전도를 위하여 진실로 축하할 일이다. 향년십팔세.” (「동경학교의 조선규수」, 『매일신보』, 1914.4.7., 제3면)

인식과 의지가 매우 낮았던 현실이었음을 반증하는 부분이다.⁸⁸⁾ 특히 당시 서양화는 남성 중심으로만 허용되었던 장르였기 때문에 나혜석이 서양화를 배우기 위한 일본유학의 단행은 이례적이면서도 진취적인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술계의 남녀차별적인 현실은 이미 일본의 미술학교에서 그 일면이 드러났었다. 일본의 관립미술학교인 동경미술학교는 1887년 창설되었으며, 1896년에는 회화과에 서양화과가 추가로 개설되었다. 그러나 당시 여성에게는 입학이 허용되지 않는 남녀차별적인 측면이 존재하였다.⁸⁹⁾ 이에 대응하여 1901년 개교한 동경여자미술학교는 여성만의 입학이 허가되는 여성 미술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동경여자미술학교는 1900년 “여자의 자립을 위해서 미술교육이 가장 적절하다는 이상을 가지고” 라고 취지를 밝힌 요코이 다마코(横井玉子, 1854~1903)라는 여성에 의해 개교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⁹⁰⁾ 이렇듯 나혜석이 다닌 동경여자미술학교의 개교 이념에서는 남성 위주로만 존재하던 미술 방면에서 여성의 자립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여성들의 주체의식과 진보적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동경여자미술학교의 설립 목적은 ‘여자의 덕성, 지식을 기르고, 겸해서 여자에게 적당한 우미한 예술을 교수하는 것’이며, ‘안으로는 양처현모(良妻賢母)를, 밖으로는 처해있는 문명을 비보(裨補)하는 기술가 및 교육가를 양성하는 것’이었다.⁹¹⁾ 이에 따라 동경여자미술학교는 여성교육의 목적을 ‘양처현모’와 국가의 ‘문명을 돕는’ 여성을 양성하는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여성의 역할을 여전히 현모양처의 전통적 여성상으로 귀결하는 여성교육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88) 백옥경, 앞의 논문, pp. 3-4.

89) 여학생들의 입학은 1946년에 허가되었다(김용철, 「도쿄미술학교의 입학제도와 조선인 유학생」, 『동양미술사학』 제6권, 동양미술사학회, 2005, p. 53, 56).

90) 문정희, 「여자미술학교와 나혜석의 미술」, 『나혜석, 한국 근대사를 거닐다』, 푸른사상, p. 62.

91) 김소연, 「한국 근대 ‘동양화’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p. 137.

이처럼 일본사회는 부국강병을 목적으로 여성교육을 강조하였으며, 근대화 과정을 활발히 전개하였던 것이다. 일본은 국가 발전과 계몽을 위해 서구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며, 그 일부로 자유주의 사상이 메이로큐샤(明六社, 1894~1875)에 의해 최초로 일본에 유입되었다.⁹²⁾ 일본에 유입된 자유주의 사상은 먼저 정치적으로 국가주의에 종속된 채로 부국강병의 목표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써 차용되었고, 이는 개인은 국가에 일체화가 되는 것으로써 그 의미가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여성교육도 개인의 자유를 우선적 가치로 삼는 영역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내면적·실질적 측면에서의 인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채 국가주의로 귀속되어버린 것이다.⁹³⁾

이는 나혜석이 1913년에 입학하였던 동경여자미술학교 수업 과정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나혜석이 동경여자미술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시기는 동경미술학교 교수로서 관전 심사위원을 겸한 화가 오카다 사부로스케(岡田三郎助, 1869~1939)와 고바야시 만고(小林萬吾, 1870~1947)가 지도하였던 시기⁹⁴⁾ 이는 나혜석이 “소림만오(小林萬吾)씨에게서 가장 오래 배웠습니다.”⁹⁵⁾라고 회고한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카다 사부로스케와 고바야시 만고는 구로다 세이키(黒田清輝, 1866~1924)와 구메 게이치로(久米桂一郎, 1866~1934)의 제자로서 구로다와 구메가 동경미술학교에서 아카데미즘으로 확립시킨 라파엘 콜랭(Raphaël Collin, 1850~1916)의 인상주의 외

92) 메이로큐샤는 1874년 2월 미국에서 돌아온 모리 아리노리(1847~1889)를 중심으로 지식인들이 참가하여 결집한 메이지 초기의 유일한 계몽적인 학술결사이다. 그들의 『메이로큐갓시』 기관지는 1975년 11월까지 총 43호가 간행되었으며,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학술 논설을 전개하였다(최경옥, 「메이지기 일본의 서양 문명 수용과 번역」, 『번역학연구』 제6권2호, 한국번역학회, 2005, pp. 192-193).

93) 정미량, 「1920년대 제일조선유학생의 자유주의적 문화운동론 연구」, 『사회와 역사』 제74권, 한국사회사학회, 2007, pp. 40-41.

94) 이 둘은 일본의 ‘제국미술전람회’와 같은 관전뿐만 아니라 ‘조선미술전람회’와 같은 식민지 관전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조선미전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오카다는 제1회, 고바야시는 제11회와 제12회로 나타난다(문정희, 「동아시아 관전(官展)의 심사위원과 지방색」, 『한국근대미술사학』 제11권, 한국미술사학회, 2003, pp. 203-207에서 재인용).

95) 「서양화가 나혜석씨」, 『신가정』, 1933.5.

광과에 영향을 받았다.⁹⁶⁾

동경여자미술학교에서 오카다의 수업은 1927년까지 매주 1회로 한 학기에 4~5회 정도였는데 이 또한 오카다의 형편에 따라 달라졌고, 주로 누드모델 수업으로 이루어졌다.⁹⁷⁾[도5,6] 누드모델 수업은 당시 아카데미즘에 입각한 수업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실적인 인체의 형태를 그리기 위한 수업이었다. 이처럼 동경여자미술학교의 교수진들의 주류 화풍과 누드수업 방식을 통해서 동경여자미술학교의 서양화과는 아카데미즘에 입각한 인상주의 외광파로 교수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나혜석의 서술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며, 동경미술학교의 수업에 대한 그녀의 예술적 관점도 살펴 볼 수 있다.

…나는 학교시대부터 교수 받는 선생님께서 받은 영향상 후기인상파적⁹⁸⁾·자연파적 경향이 많다. 그러므로 형체와 색채와 광선에만 너무 중요시하게 되고 우리가 절실히 요구하는 개인성 즉 순예술적 기분이 박약하다. 그리하여 나의 그림은 기교에만 조금씩 진보될 뿐이요, 아무 정신적 진보가 없는 것 같은 것이 자기 자신을 미워할 만치 견딜 수 없이 고(苦)로운 것이다. …이와 같이 누군가 시키는 일이나 하는 것 같이 통명스럽게 그림 그리는 일을 그만두리라 하고 단념을 해보기도 하고, 이 이상 진보치 못할까, 아니 못하리라 하고 무재무능을 긍정하여 절망도 하였다.⁹⁹⁾

96) 구메는 도쿄미술학교 교수로 재직하여 미술해부학과 고고학을 가르쳤고, 구로다와 더불어 콜랭의 외광파를 수용하여 도쿄미술학교에 아카데미즘을 확립했다(문정희, 앞의 책, pp. 64-65).

97) 문정희, 앞의 책, p. 69.

98) 문정희는 나혜석이 언급한 ‘후기인상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위의 글에서 ‘후기인상파적’인 것은 외광파 아카데미즘보다 선진적인 것으로, 적어도 인사파의 지류로서 외광파를 이식시킨 구로다 세이키와 구메 게이치로, 그리고 그의 제자 오카다 사부로스케의 계보에서 오카다 사부로스케나 고바야시 만고가 여자미술학교에서 가르친 시기, 당시의 새로운 화풍에 대한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오히려 ‘자연파’적인 것이야말로 외광파 양식에 가까운 지적일 것이다.”라고 제시한 바 있다(문정희, 앞의 책, pp. 70-71).

99) 「미전 출품 제작 중에」, 『조선일보』, 1926.5.20.~23.

위에서 언급한 ‘색채와 광선에만 너무 주요시’ 하는 ‘자연파적 경향’ 이라는 내용을 통해 당시 동경여자미술학교의 수업방식은 아카데미즘의 인상주의 외광과 화풍을 위주로 교수하였을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당시 인상주의 사조가 일본 서양화단에 전형적인 화풍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혜석은 ‘기교에만 조금씩 진보’ 되고 ‘정신적 진보가 없는’ 이러한 아카데미즘에 입각한 미술교육 과정에 대해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다. 나혜석은 이처럼 기교만이 늘고 있는 교육 방식에 반감을 드러내며, ‘개인성’ 과 ‘순예술’ 을 언급하였다. 이는 주체적인 예술창작에 대한 구현을 갈망하는 것으로 개인의 주체의식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나혜석이 “소림만오씨(小林萬吾氏)에게서 가장 오래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별로 그이의 영향을 내 그림에서 많이 찾는다거나 그이의 것을 모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¹⁰⁰⁾라고 회고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혜석은 동경여자미술학교의 교수로부터 배운 아카데미즘적인 인상주의 외광과 화풍을 그대로 답습·모방하려 하지 않고, 주체적인 창작세계를 추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또한 나혜석은 동경여자미술학교 서양화과에 재학 중이던 시절에 『시라카바(白樺)』를 접하였다고 회고한 바 있다.¹⁰¹⁾[도7] 『시라카바』는 1910년 4월에 창간된 문예 전문잡지로 당시 일본 문예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아리시마 이쿠마(有島生馬, 1882-1974)가 1910년 6월에 최초의 후기인상파 담론인 「화가 폴 세잔느」를 발표한 이래로 방대한 양의 후기인상파가 소개되었는데, 이는 1910년대 일본 전역에 후기인상파의 열풍에 휩싸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¹⁰²⁾ 아리시마는 「화가 폴 세잔느」에 이어

100) 「서양화가 나혜석씨」, 『신가정』, 1933.5.

101) “...백화(白樺) 잡지에 「K子에게」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연모한다는 사정을 쓴 것을 보았고...” (나혜석, 「나의 동경여자미술학교 시대」, 『삼천리』, 제10권5호, 1938.5.1., p. 137)

102) 『시라카바』는 1910년 4월에 창간호를 시작으로 1923년 8월까지 13년 5개월 동안 총 160권이 발간되었다(이애선, 「아나키즘과 생명의 발현으로서의 일본 후기인상파」, 『미술사학보』 제34호, 미술사학연구회, 2014, p. 149).

「회상이 세잔느」라는 번역을 『시라카바』에 실었는데, 그는 세잔느에 대해서 “20세기 분석적 과학 만능의 시대에 가장 지성적이고 영혼적인 인격을 생각하여 제작한 것이 참된 예술이라는 실례를 대담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서술하였다.¹⁰³⁾ 이처럼 아리시마는 ‘인격’을 생각하여 제작한 후기인상파의 세잔느에 대해 ‘참된 예술’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나혜석의 예술의식에서도 나타나는 사상이며, 나혜석이 언급한 내용을 통해 그녀가 추구하고자 한 예술관을 파악할 수 있다.

인상파 및 신인상파 화가들이 일광공기를 중시하여 자연에서 얻은 찰나의 인상을 표현한 반면으로 후기인상파 화가들은 그것을 다 밟아 넘어서 전체적으로 자연을 감명하여 그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였다. 즉 전자는 객시적이라 할 수 있고 후자는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상파나 신인상파는 광선묘사에는 성공하였으나 인간성을 잊었다. 이와 같이 후기인상파의 화가들은 자아의 표현과 예술의 본질을 잊지 아니하였다. 즉 예술의 정신을 창조적으로 개체화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고래로 전해 오난 미와 추의 무의의한 것을 알았다. 미추를 초월하여 인정미로 만상을 응시하여 인생과 같은 값 되는 작품을 작하라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작품은 자연의 설명이 아니오, 보고 즐거할 취미의 것도 아니오. 인격의 표징(表徵)이오, 감격이었다.¹⁰⁴⁾

이처럼 나혜석은 인상파 및 신인상파에 비해 ‘자아의 표현과 예술의 본질’을 ‘창조적으로 개체화’한 후기인상파의 예술의식에 대해 더 공감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후기인상파를 ‘주관적’이며 ‘인격의 표징’인 것으로 언급함으로써 일본유학 시절 예술관이 형성됨에 있어서 당

103) 문정희, 「나혜석 회화창작에 나타난 근대적 자아」, 『한국문화연구』 제11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6, p. 213.

104) 나혜석, 「파리의 모델과 화가 생활」, 『삼천리』 제4권3호, 1932.3.1., p. 49.

시 그녀가 접하였던 『시라카바』에 실린 아리시마의 세잔느에 대한 언급으로 일부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나혜석은 후기인상파 사조를 통해 미술 창작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주관성, 즉 인격을 중요시하는 주체의식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동경여자미술학교 재학 시절 나혜석의 독립적인 창작 태도는 당시 일본에서 후기인상파의 수용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시라카바』에 영향을 일부 받았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나혜석은 동경여자미술학교의 아카데미즘 양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주관이 깃든 창조적 예술성의 구현을 추구하였으며, 이러한 자아의 해방과 주체적 창작의식의 형성은 여성해방의식의 근간을 이루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나혜석이 영향을 받은 후기인상파는 당시 일본에 유입된 자유주의 사상이 국가주의로 종속되어 전개되었다가 러일전쟁 이후 국가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문화·예술방면에서 개인의 내면과 인격을 중요시하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었던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기인한 미술 사조였던 것이다.¹⁰⁵⁾ 이러한 일본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일본의 문화·예술 방면에서 여성해방론과 같은 자유주의 사상이 활발히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대표하는 것은 1910년대 일본의 문학 방면으로 1911년 일본의 여성해방운동가인 히라쓰카 라이초(平塚雷鳥, 1886-1971)¹⁰⁶⁾에 의해 간행된 『세이토(靑鞆)』 잡지를 들 수 있다. 이는 최초로 여성해방의 자유사상이 주창되어 일본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잡지였다.[도8] 나혜석은 1914년 12월 『학지광(學之光)』에 수록한 「이상적 부인」에서 ‘이상적 부인’의 한 사람으로서 『세이토』를 주도하며 여성해방을 주장한 히라쓰카 라이초 여사를 “천재적으로 이상을 삼은” 부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¹⁰⁷⁾ 이에 따라 나혜석

105) 정미량, 앞의 논문, pp. 41-42.

106) 히라쓰카 라이초는 1911년 잡지 『세이토』의 창간부터 발간을 주관하였고, 1912년 「노라씨에게」, 「막다를 읽다」 등의 글을 발표하여 자아해방에 근거한 여성해방을 줄기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녀는 창간사에서 여성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천재적 성향을 끌어내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자신이 신여성임을 주장하고 신여성은 과거의 도덕과 법률을 파괴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가 있다(이승희, 앞의 논문, 2006, pp. 178-179).

은 히라쓰카 라이초의 영향으로 일본의 자유주의 여성해방운동에 직접적인 자극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나혜석은 김필례(金弼禮, 1891-?)등 일본의 조선여자유학생 10여명과 함께 1915년 4월 3일 동경에서 여자친목회를 결성하였다.¹⁰⁸⁾ 창립 초기의 초대회장은 김필례였으며, 회원들의 친목 도모와 단결, 지식교류에 목적을 두었다. 이처럼 여자친목회는 1913년에 결성된 조선 남자유학생 중심의 학우회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여성유학생들의 단체를 따로 마련하였던 것이며, 식민지 시대 속의 여성이라는 조선여성의 특수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결성되었던 것이다.¹⁰⁹⁾ 이는 당시 일본의 자유주의 여성해방운동의 영향으로 기인한 조선여성들의 주체의식의 형성과 실천의지에 따른 단결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후 1917년 10월 17일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일본 각지의 여자유학생친목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자친목회는 일본 여자유학생들의 대표적인 단체가 되어 김마리아(金瑪利亞, 1892-1944)가 회장이 되었으며, 나혜석이 총무로 선출되어 여자친목회의 기관지인 『여자계(女子界)』의 편집 사무를 주관하게 되었다.¹¹⁰⁾ [도 9] 이에 따라 여자친목회 회원들은 『여자계』를 통해 신여성으로서의 계몽의식을 표출할 수 있었다.

이처럼 나혜석은 일본에서 자유주의 여성해방운동의 영향에 따라 자유주의 사상을 수용하였으며, 일본 미술계의 후기인상파의 신사상도 수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나혜석은 여성으로서의 주체의식과 자유주의적 여권의식이 형성되어 신여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귀국 후 자유주의적 사상에 따른 여성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107) 나혜석, 「이상적 부인」, 『학지광』 제12호, 1914.12.3.

108) 「만국부인싸론」, 『만국부인』 제1호, 1932.10.1., p. 21.

109) 이승희, 앞의 논문, 2006, p. 184.

110) 정미량, 앞의 책, pp. 189-190.

2) 방무길의 숙명여고보와 서화연구회

방무길의 호는 혜연(惠淵), 본관은 온양(溫陽)으로 1899년 경성 태생으로 구례 군수를 지낸 조선 갑부 방시용(方時容)의 손녀이자, 경성의 부호인 부친 방효원(方孝原)과 유명한 불교신자인 모친 김정석당(金靜石堂) 사이에서 차녀로 태어났다.¹¹¹⁾ 방무길은 “부모의 덕택으로 주립과 치움을 모르고 세상을 지내가며 공허한 심전(心田)에 학문의 씨를 뿌려…” 라고 회고한 바 있다.¹¹²⁾ 이처럼 방무길은 어린 시절 부유한 가정 내에서 성장하여 신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는 근대적인 여성교육기관인 숙명여고보¹¹³⁾의 입학으로 나타났다. 방무길이 숙명여고보에 입학하였던 정확한 년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1917년에 졸업하였다는 기록에 따라 대략 1914년에 입학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자 한다.¹¹⁴⁾

숙명여고보는 1906년 5월 엄비가 경비를 제공하여 여학교 설립을 지원하였으며, 일본이 조선에 대한 식민지화 작업의 일환으로 조직한 친일적인 여성단체인 한일부인회(韓日婦人會) 회원들의 여학교 설립 논의와 함께 맞물려 진행되어 1906년에 개교되었다. 이에 따라 초대교장은 한일부인회 회장이었던 이정숙(李貞淑, 1858-1935)이었으며, 총무였던 후치자와 노에(淵澤能惠)가

111) 방무길에 대한 태생 년도에 대해서 (한문영, 『한국서화가인물사전』, 범우사, 2000, p. 237)과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역대서화가사전』 上,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p. 753)에서는 1899년으로 기록되어있으며, (최은희, 『한국개화여성열전』, 조선일보사출판국, 2003, p. 370)에서는 1898년으로 기록되어있다.

112) 「직업부인의 자랑과 비애(숙), 대자연 앞에 놓고 화폭 펴는 여성들, 여서화가, 실내를 장식」, 『조선일보』, 1928.1.1., 제4면.

113) 숙명여고보는 1906년에 개교하였던 당시 초기의 교명은 ‘명신여학교(明新女學校)’였다. 1909년에는 여성의 중등교육을 위한 고등여학교령에 의해서 5월 교명을 ‘숙명고등여학교(淑明高等女學校)’로 변경하였고, 이후 1911년 4월에는 제1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잡보, 지금은 숙명여학교」, 『대한매일신보』, 1909.7.15., 제3면).

114) “방씨는…어렸을 적부터 필체가 비범하여 린리에서 찬양을 받다가 심철세에 부내 숙명여학교를 졸업하고…”(「출품준비에 망살한 서화대가, 용사비등의 필법」, 『매일신보』, 1922.5.22., 제3면)

학감자리에 임명되었다.¹¹⁵⁾ 당시 방무길이 재학하였던 숙명여고보의 교육 제도는 일제에 의해 시행된 ‘제1차 조선교육령’에 따른 것으로 식민지적 공교육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방무길이 훗날 서화가로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조선교육령에 따른 학과목 중에 해서(楷書)와 행서(行書)를 주요 내용으로 한 ‘습자(習字)’ 과목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¹¹⁶⁾ 이러한 여성의 신교육을 바탕으로 방무길은 숙명여고보를 1917년에 졸업하였다. 훗날 그녀는 “장차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될 희망을 앞에 두고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학생 생활의 자랑이라고 첫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겠지요”라고 회고한 바 있다.¹¹⁷⁾ 이에 따라 방무길은 ‘장차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될 희망을’ 근대식 신교육을 통해 품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학생 생활의 자랑’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즉 방무길은 근대식 여성교육을 통해 여성으로서 사회의 진출을 위한 희망을 품게 되었던 것이며, 여성으로서의 주체 의식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방무길은 숙명여고보를 졸업한 후 일본 오카야마(岡山) 의학전문학교에 재학하던 23세의 청년 이갑수(李甲洙)와 혼인하였다.¹¹⁸⁾ 당시 방무길의 남편도 큰 재산을 소유했으므로 호화스러운 결혼 생활을 영위하였는데, 어느 날 이갑수는 결혼 후 일본유학을 계속하던 중 외도를 하게 되었다. 방무길은 이러한 사건으로 다소 충격을 받았지만, 마음을 다스려 동요하지 않은 채 김규진(海崗 金圭鎭, 1868~1933)의 ‘서화연구회(書畫研究會)’에 입문하

115) 숙명여고보 교원이나 교수 용어는 통감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성향은 1935년부터 제2대 교장과 1940년부터 해방까지 3대 교장으로 일본인은 교장에 임명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강혜경, 「숙명여고보 맹휴사건으로 본 식민지 여성교육」,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7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10, p. 270).

116) 본고의 각주 84) 참고.

117) 「직업부인의 자랑과 비애(속), 대자연 앞에 놓고 화폭 펴는 여성들, 여서화가, 실내를 장식」, 『조선일보』, 1928.1.1., 제4면.

118) 이갑수는 오카야마예전(岡山藝傳)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총독부병원의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의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해방 후까지 계속하여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인 서울대학교 교수로 지내다가 6·25사변 때 이북으로 납치당해 갔다(최은희, 앞의 책, pp. 370-371).

여 전문적으로 글씨와 묵화를 배우기 시작하였다.¹¹⁹⁾ 방무길은 남편의 외도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성들에게만 정조를 강요하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 현실에 대한 개혁의지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방무길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전문 분야를 위해 화필을 잡음으로써 여성으로서의 주체 의식으로 자립의지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방무길은 ‘서화’라는 전통적인 분야의 특성상 해외 유학이 아닌 국내의 서화연구기관에서 학습을 시작하게 되었다. 1910년경에 이르면 문화·예술계의 복고적 성향과 고서화 애호의 풍조로 인해 전통적 분야였던 서화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이는 보수적인 고적·고미술을 애호하는 친일 귀족들에 의해 기인한 현상으로 그들은 단체를 조직하여 총독부와 이왕직에서 금전적 보조를 받아 진열실을 병설함으로써 조선의 서화골동품을 진열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¹²⁰⁾ 이처럼 당시 서화를 비롯한 조선의 전통적인 고미술을 애호하는 경향은 친일적인 단체들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1910년을 전후한 서화교육기관들에 이어지게 되었다.¹²¹⁾ 이처럼 전통에서 유래한 서화는 근대시기에 이르러 일제 및 친일 관료들과 깊숙이 관계하여 존립되고 있었다. 이러한 서화계의 흐름에 따라 1915년 시내 수송동(壽松洞)에 설립된 사설교육기관인 김규진의 ‘서화연구회’도 고금서화진열관 내에 서화연구회를 조직하여 강습기관이면서도 작품의 전시와 판매를 겸한 성격을 취하게 된 것이며,¹²²⁾ 친일 관료와 일본인 간부들을 회

119) 최은희, 앞의 책, p. 371.

120) 한국 원로대신인 김윤식(金允植)과 김성근(金聲根)은 “한국의 옛날 서적과 그림이 점점 쇠퇴함을 근심”하고, “옛 서화를 보존하여 후생을 장려할 목적”으로 1911년에 조선미술보존회(朝鮮美術保存會)를 발족하였다. 이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같은 해에 개원한 경성서화미술원(京城書畫美術院)이 있다(「그것은 할만한 일」, 『신한민보』, 1911.4.19., 제2면).

121) 김소연, 「한국 근대 전문 서화교육의 선도, 서화미술회」, 『미술사논단』 36호, 한국미술연구소, 2013, pp. 120-123.

122) 김규진은 천연당사진관 내에 고래(古來)의 각종 서화의 진열과 동시에, 김규진의 서화를 휘호하는 공간인 고금서화관(古今書畫館)을 1913년 부설, 개관하였다. 1915년에는 양옥을 짓고 장곡천정 96번지로 이전하였는데, 이 때 고금서화진열관 내에 서화연구회를 조직하게 되었다(김소연, 앞의 논문, 2011, p. 51).

장, 부회장 및 고문으로 내세웠으며, 1920년대에는 이완용(李完用) 등을 고문으로 추가하여 친일 관료들과 깊은 연관관계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처럼 서화연구회는 김규진이 “서화라는 것은 문명의 대표이고, 문명이란 것은 국가의 진보이다. 그런즉 서화의 진보는 국가의 진보이다”라는 취지로 설립한 기관이었다.¹²³⁾ 이처럼 김규진은 서화를 ‘문명이자 국가의 진보’인 근대적 가치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권회복을 위한 일환으로서 서화연구회를 운영하여 전근대적 가치였던 서화를 개혁하고 서화의 신교육을 보급하려는 방향을 제시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서화연구회의 강습 내용으로는 서과(書科)와 화과(畫科)를 설치하였고, 3년제 교과 과정으로 주 2회 교육을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사군자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서화연구회에 수학한 회원은 조선인뿐만이 아니라 일본인 회원들까지 상당히 많았으며, 고위관리들을 포함한 일본인과 조선인이 함께 조선인 강사에게 서화 교육을 받는 근대시기 대표적인 대규모 서화교육기관이었다. 특히 1916년부터는 배우는 요일을 달리하여 일본인 여성과 기생을 포함한 조선인 여성회원들에게도 공식적인 서화수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¹²⁴⁾ 기생 회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의 추진으로 점차 여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남성 위주의 장르로만 여겨졌던 서화 분야의 교육기관에도 여성 회원들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¹²⁵⁾

이처럼 서화연구회의 여성회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방무길은 당시 기사 내용에 따르면 “행초예(行草隸) 삼제의 대자(大字)는 김규진씨와 선생 제자를 분간키 어려울 만큼 능란하며, 그 밖에도 난죽의 화를 잘 그리는 고로

123) 『매일신보』, 1915.7.13., 제2면.

124) 서화교육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는 (김소연, 앞의 논문, 2011, pp. 51-58) 참고.; 1916년 7월 여자서화연구부를 가설(加設)하면서부터 여성교육이 시작되었다(『여자서화연구회』, 『매일신보』, 1916.7.25.).

125) 근대기 여성서화교육의 시작은 윤영기(尹永基)의 기성서화미술회(箕城書畫美術會)라고 할 수 있다(김소연, 「한국 근대 여성의 서화교육과 작가활동 연구」, 『미술사학』 제20권,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6, pp. 178-179).

해강 선생이 제일 사랑하는 수제자” 였다고 언급되어있다.¹²⁶⁾ 이에 따라 방무길은 김규진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나 글씨와 사군자 그림에 모두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던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도10,11] 또한 방무길에 대해서 “이전에 삼월오복점(三月吳服店)과 제일은행에서 서화전람회를 열었을 때, 서화 두 가지를 출품하여 두 번의 표상을 받았고, 금강산 어떤 절의 의뢰로 장이18척 광이16척 되는 오십삼불(五十三佛)이란 대자를 써서 금강산 유점사 효운동 석벽에 조각하는 중” 이었다고 언급되었다.¹²⁷⁾ 이처럼 방무길은 당시 여성 서화가로서 특출 난 인재였으며, 남성들의 전문으로만 치우쳐 있던 미술계에 여성 전업 작가로서의 위상을 드러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후로도 방무길은 1922년부터 개최된 조선미전에서도 꾸준히 입상을 하면서 근대시기 여성 서화가로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¹²⁸⁾[도12] 이처럼 방무길은 근대식 여성교육으로 인해 여성의 주체의식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여성 미술가이자 신여성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대조적으로 당시 여전히 전통적인 여성관에 국한되어 있던 조선사회의 현실적인 시선이 자리하고 있었다.

 년넨히 열리는 미술전람회에 혹은 글씨로 혹은 사군자(난초, 매화, 대, 국화)로 또박또박 입선의 영광을 받은 혜연 방무길 여사를 관수동 143번지로 찾았습니다. 혜연 여사는 일찍이 숙명여학교를 졸업하고 특별히 그림에 대하여 재주가 있고 취미가 깊은 여사는 가정의 주부로 여섯 아기의 어머니로 심히 바쁘고 일이 많은 가운데 있건마는 자기의 예술적 천품을 발휘시키기에 많은 노력을 한 것입니다....

 ...여사는 예술가로서 많은 사람의 촉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좋은 어머니

126) 「출품준비에 망살한 서화대가, 용사비등의 필법」, 『매일신보』, 1922.5.22., 제3면.

127) 「출품준비에 망살한 서화대가, 용사비등의 필법」, 『매일신보』, 1922.5.22., 제3면.

128) 방무길은 1922년 제1회 조선미전에는 초서·예서(『매일신보』, 1922.6.1~3.), 2회에는 행서(『조선일보』, 1923.5.9.), 3회에는 초서·난(蘭)(『동아일보』, 1924.5.29.), 4회에는 죽(竹)(『조선일보』, 1925.5.31.), 5회에는 매죽(梅竹)(『동아일보』, 1926.5.14.)으로 입선하였다.

니로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직 28세가 될락말락한 꽃 같은 나이로 여섯 애기의 어머니이며 이번에 태화여자관에서 열린 현상 건강 진찰이 열렸을 때에 백여 명 아동 가운데 여사의 아드님 상권(相權)군, 그의 동생 상천(相天) 군이 1, 2등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좋은 건강을 가진 아이를 많이 만들어내는 어머니를 위하여 국가에서 상을 준다고 합니다. 만일 그럴진대 우리 조선에서도 방혜연 여사에게 상을 주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아직도 꽃같이 젊은 여사에게 “건강한 국민을 많이 내소서” 하고 빕니다.¹²⁹⁾

이처럼 방무길은 숙명여고보를 졸업한 후 이갑수와 혼인을 하여 여섯 자녀를 두었음에도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삶에 그치지 않고, 서화가로서 자신만의 전문성을 키워 꾸준히 여성의 주체적인 삶을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 미술가로서의 방무길에 대한 내용보다는 ‘아이를 잘 기르는 좋은 어머니’로서의 방무길에 대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건강한 국민을 많이 내소서’라는 언급은 부강한 국가를 위해 자녀를 잘 양성해내는 ‘좋은 어머니’로서의 방무길에 주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여성교육이 확대되었던 시점에서 여성의 역할을 가정 내로 한정시키는 차별적인 시선이 존재하였으며, 이는 당시 식민지시기에 일제가 요구하는 여성상이기도 하였다.

이후 방무길은 이러한 미술계의 차별적인 측면과 과거 남편의 외도 사건 등과 같은 남녀차별적인 관념을 타파하고자 여성운동의 주체가 되어 진취적인 활동에 앞장섰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녀는 조선여성들의 계몽을 위한 여성운동단체를 주도하였으며, 여성 미술계를 위해 앞장서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실천성을 보였다.

129) 「여류예술가 방혜연씨」, 『동아일보』, 1926.5.20., 제2면.

3) 정철성의 동경여자기예학교

정철성은 1897년 경상북도 대구 출생으로, 대구에서 1915년 상경하기까지 18년간 기생으로 살았다.¹³⁰⁾ 정철성의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바가 없으나,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기생으로 살아온 내용에 대해서는 1937년 『삼천리』 제9권에 실린 정철성의 일생에 대한 설문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30년 전: 1. 그 때 선생의 춘추(春秋) 얼마신데 어디서 무얼 하시며 지내셨습니까? 2. 그 해에는 조선사회에 어떤 큰 일이 있었습니까?

정철성: 생각건대 나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당시 이조(李朝) 말엽, 우연한 기회로 당시 대구 관찰사의 잔치를 구경하게 되어 그 마마의 지위를 부러워하여 그 길로 이웃 기생집에 찾아다니면서 공부라고 시작한 것이 천재란 말까지 듣게 되자 부득이 부모님이 그 길에 내노케 되었는데, 그 때 8세였다. 남들이 일취월장한다는 내 기예(技藝)는 차츰 영문(도청)과 본관(군청) 사또 잔치 때마다 들리게 되었다. 한번은 선생 되는 기생을 따라가서 그 신발을 지키고 구경하는 것이 그 제자으로써 늘 하는 일이라 그럴 때마다 저 애가 시조를 잘 부른단 말이 상좌에 들게 되자 사또는 곧 (나를) 불렀다. 부름을 받고는 서슴지 않고 신을 쥔 채로 올라가 날아갈 듯이 앉으면 모두들 대소하였다. …명장이란 역금을 부끄럼 없이 불러 많은 칭찬도 받고 웃음도 받았다. 그러다가 그 다음 그 다음 해 순종(純宗)께서 남순시(南巡時) 대구로 달성(達城)에 좌하셨는데, 그 때 여러 대관과 여러 기생과 함께 나도 참배한 일이 있었다.

20년 전: 1. 그 때 선생의 춘추 얼마신데 어디서 무얼 하시며 지내셨습니까? 2. 그 해에는 조선 사회에 어떤 큰 일이 있었습니까?

정철성: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당시 일류(一流)라고 부름 받는 경성의

130) 박순섭, 앞의 논문, p. 248.

기생으로 2, 3차 명문대가의 소실로 이름을 날렸다.¹³¹⁾

먼저 ‘30년 전’ 설문내용을 통해서 정칠성은 대구 관찰사의 잔치를 구경한 사건을 계기로 이웃 기생집에 찾아다니면서 기예를 배우게 되어 8세의 어린 나이에 기생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정칠성이 배운 기예는 ‘시조’ 나 ‘역금’ 과 같은 창(唱)을 배웠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일취월장하여 정칠성의 창은 관청 등의 잔치 때마다 들리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순종이 대구에 좌할 당시에는 여러 대관과 여러 기생과 함께 참배하였던 내용으로 보아, 이른 나이 때부터 시조 낭송과 속가(俗歌) 등의 창에 실력이 출중하기로 유명한 대구의 기생이었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이처럼 정칠성은 국가와 지역 행사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름을 받고 공연하는 전문 공연가와 같은 예술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20년 전’ 회상에서는 ‘당시 일류라고 부름 받는 경성의 기생’ 이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칠성은 1915년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한 이후 대략 1917년까지도 기생 활동을 계속 이어갔던 것을 알 수 있다.¹³²⁾

1910년 이후 일제의 통치시기에 접어들면서 조선 기생에 대한 지위도 변화되기 시작하여 일패·이패·삼패로 구분되었던 기생의 계층이 일제에 의해 일본식 권번(券番)으로 통합되어 기생의 지위가 격하되었으며,¹³³⁾ 기생을 국가가 직접 단속하게 되는 변화가 생겼다.¹³⁴⁾ 이에 따라 정칠성은 경상도 출신으로, 충청도·전라도·경상도 삼남지방에서 상경한 기생들이 조직한 한남권번(漢南券番)에서 활동하게 되었다.¹³⁵⁾ 이처럼 일제시기의 시대적 흐름

131) 「저명인물 일대기」, 『삼천리』 제9권1호, 1937.1.1., pp. 39-40.

132) 1915년 정칠성이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했던 시기에 대해서는 (박순섭, 앞의 논문, p. 248) 참고.

133) “기생에는 일패(一牌), 이패(二牌), 삼패(三牌)의 구별이 있었다. 패는 관의 장면(帳面)에 기재한 순서를 운합이니 일, 이패는 기생이오. 삼패는 준기생이다. 일패 중에도 또한 등급의 순서가 있고 성적행상(成績行狀)에 의하여 삼패로부터 이패에 폐차하고 1,2패로부터 삼패에 폽하는 사가 있다.” (「경성의 화류계」, 『계벽』 제48호, 1924.6.1., p. 96)

134) 박순섭, 앞의 논문, p. 249.

135) “당시 서울에 기생권번이라는 것이 다섯 군데나 있었고, 기생 수도 팔백명에 달했다.

속에서 정철성을 비롯한 당시 기생들은 많은 제재와 억압으로 인해 조선 전통적 기생으로서의 면모를 잃었으며, 공식적인 공연 활동 등을 감행하지 못하였다.¹³⁶⁾

그러던 중 1919년에는 전 민족이 일제에 맞서 일어난 3·1운동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정철성의 삶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정철성은 3·1운동 당시에 “종로 네거리에 서서…홍분에 넘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뒤를 따라 다닌 일도 있었다”고 회상하였으며, “이 때에 받은 충동은 마침내 현해(玄海)를 건너게 되”었다고 덧붙여 3·1운동에서 민족적 열의를 느낀 계기로 일본 유학길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¹³⁷⁾

또한 “그 숨 막히던 망국(亡國)의 슬픔과 울분이 얼마나 맥이 빠졌겠는가…정금죽(丁琴竹, 정철성의 기명)은 실연(망국) 끝에 기생의 일을 때려치우고 단발미인 여학생으로 나가 버렸다.”¹³⁸⁾라는 기록과 “대정8년(1919년)을 전후하여…정금죽은 정철성으로서 이름을 고치고서 여성운동자가 되었

‘한성권번(漢城券番)’-이조(李朝) 때 장악원(掌樂院)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서울 토박이 기생들도 그들은 거의가 유부기(有夫妓)이었다. ‘한남권번(漢南券番)’-영남(嶺南)에서 올라온 기생들이 모인 곳으로 남도(南道)소리 가야금 명수(名手)가 많았다. ‘다동권번(茶洞券番)’-주로 수신가(愁心歌)의 본고장 평양(平壤)기생들이 중심이었다. ‘대동권번(大同券番)’-문자 그대로 팔도강산(八道江山) 어느 곳 출신이든 기생이면 다 받아들였다. ‘경화권번(京和券番)’-본디 이조(李朝)때는 ‘삼패(三牌)’라 불리던 창녀(娼女)의 집단이었으나 친일파의 거두 조중용(趙重應)자작의 덕을 입어 권번으로 승격을 했다”(「고범역정 기자수첩 반세기 17, 일제의 퇴폐풍조 주입정책」, 『동아일보』, 1972.12.23., 제5면)

136) 일본식 권번으로 통합된 이후, 당시 기생의 심정을 나타낸 내용으로는 “...기생은 ‘향락계의 여왕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은 어느 정도까지 적당한 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 향락계의 여왕이 말로 여왕 중에는 비참한 여왕이라는 것이다. 분을 세수하고 새 옷을 입고, 웃음을 치나 근심은 없어 보이나, 실로 그들의 가슴속의 저 뒤에는 암담한 곳이 있다는 것이다. 료리 人 집에 가서 술잔을 들고 노래를 하니 시름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숙명적 슬픔이 묻어있다는 것이다. 웃음! 노래! 사람들은 그것을 조아한다. 그럼으로 기생들은 그것을 한다. 한 시간에 일원삼십오전의 시간대라는 것이 그 웃음, 그 노래의 값이다. 그러나 료리 人집에 일할오분(一割五分)과 권번(券番)에 일할을 제하고 나면 그들의 웃음과 노래의 값은 한 시간에 일원 남짓하게 받는 게 되지 않는다. 기생이 향락계의 여왕이라 한다면 □□한 여왕이며, 인생의 꽃이라 한다면 길거리에 피어있는 꽃 밖에는 되지 못한다할 것이다. 북풍에 서리오고 머리위에 백발이 훑날릴 때 과연 그들은 어찌나 되려노?...”(「가상순례, 대경성불 중에 기생 육백명」, 『시대일보』, 1925.7.11., 제2면)

137) 「저명인물 일대기」, 『삼천리』 제9권 1호, 1937.1.1., pp. 39-40.

138) 「근세풍물야화 2, 기생」, 『경향신문』, 1974.8.28., 제5면.

고...조선 최초의 단발낭이 되어 여성운동에 뛰어들었지요.”¹³⁹⁾라는 기록을 통해 1919년의 거국적 항일운동을 기점으로 정칠성은 여성운동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일본유학길에 단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녀가 ‘정금숙’으로 20여년 가까이 살아왔던 기명에서 ‘정칠성’으로 이름을 바꿈으로써 기생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근대성을 상징하는 ‘단발’ 머리를 하였다는 내용을 통해서 그녀의 굳은 의지와 신념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정칠성을 비롯하여 식민지적 조선사회에서 억압받았던 기생들은 3·1운동에 영향을 받아 “우리도 대한의 딸이요,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 묻힐 백성의 한사람이다. 직업이 천하다고 무작정 멸시는 말라.”라는 여성해방의식이 표출되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¹⁴⁰⁾

이에 따라 정칠성은 1922년 일본으로 건너가 “어학도 배우고 서양 갈 준비로 영어도 배우고 타이푸라이다(type writer)도 배웠”다고 언급하였다.¹⁴¹⁾ 당시 정칠성이 어느 기관에서 이를 학습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어학은 일본 본토의 일본어를 배웠을 것으로 추측되며, 영어와 타이핑과 같은 선진적인 서양의 기술과 언어를 교육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는 중 (정칠성은) 차차 사회에 눈 뜨게 되어 다시 조선에 건너 대구에 여청을 조직하고, 경성에 여성동우회를 조직하며, 전선청년대회 대표의 한 사람으로 활동”¹⁴²⁾하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본에서의 학습을 통해 근대적 지식과 문화를 습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혁신적이고 주체적 의식이 형성되어 이전의 기생의 삶과는 다른 선구자적인 사회 활동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일본유학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23년에 귀국한 정칠성은 1925년 3월 31일 재차 일본으로 건너가 또 다시 유학하게 되었다.¹⁴³⁾ 두 번째로 일본 동경에 유학하게 된 정칠성은 동

139) 「장안 《재자가인》, 영화와 흥망기」, 『삼천리』 제11권1호, 1939.1.1., p. 114.

140) 「고범역정 기자수첩 반세기 17, 일제의 퇴폐풍조 주입정책」, 『동아일보』, 1972.12.23., 제5면.

141) 「저명인물 일대기」, 『삼천리』 제9권 1호, 1937.1.1., p. 40.

142) 「저명인물 일대기」, 『삼천리』 제9권 1호, 1937.1.1., p. 40.

경여자기예학교(東京女子技藝學校)에 입학하였다.¹⁴⁴⁾ 그녀가 동경여자기예학교에 입학한 동기와 당시 선택한 전공과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당시 여성들의 일본유학시기 전공 선택으로는 주로 졸업 후 교사로서의 사회 진출이 용이한 문학이나 미술 방면으로 많이 선택하였던 경향¹⁴⁵⁾에 따라 정칠성도 미술 방면의 기예학교에 입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편물 학교를 마치고 그 방면으로 많은 경험과 연구를 쌓은…정칠성씨”¹⁴⁶⁾라는 기사내용과 “일본에서 다년간 수예를 연구해가지고 온 정칠성씨가 담임하여 교수를 하리라”¹⁴⁷⁾는 기사내용을 통해 정칠성은 동경여자기예학교에서 자수와 혹은 편물과를 전공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1920년대에 일본유학으로 미술 분야를 전공하고자 하였던 조선여성 유학생들은 주로 자수과를 많이 선택하였는데,¹⁴⁸⁾ 이는 당시 1920년대 조선 여성들이 일본 학교에 입학하기 전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에 의한 중등교육과정의 수업을 받았던 사실과도 연관된다. ‘제1차 조선교육령’은

143) 「지방인사소식」, 『동아일보』, 1925.4.2., 제3면.

144) 박순섭, 앞의 논문, p. 251.

145) 백옥경, 앞의 논문, pp. 10-11.

146) 「가정부녀에게 필요한 모사편물강습」, 『동아일보』, 1929.10.22., 제5면.

147) 「여자기예원 편물개인교수」, 『동아일보』, 1927.11.9., 제5면.

148) 1920-29년 여자미술학교 입학자 전공(「女子美術專門學校 修學者 名單」,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 제3호, 삼성미술관, 2004. 가와나 우유코, 「1920년대 조선여성의 일본유학과 여성해방론」, 연세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p. 18, 〈표 7〉에서 재인용).

자수과						서양화과			일본화과		조화과		재봉과	편물과	계	비고
속성과	선과	고등과	고등사범과	연구과	2년제 전수과자수부	선과	고등과	고등사범과	선과	고등사범과	선과	고등사범과	고등사범과	속성과		
4	9	8	3	1	7	4	5	1	2	1	1	1	2	1	50	1920 - 29년
32						10			3		2		2	1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되기 전까지 시행되었는데, 여성의 중등교육과정에서 ‘재봉 및 수예’ 과목의 시수가 3년 과정 내내 주당 10시간씩 가장 많은 시간으로 배정되어있었다.¹⁴⁹⁾ 이처럼 당시 일제는 조선의 여성교육에서 ‘재봉 및 수예’와 같은 여성들의 정숙함이 중시되는 과목을 강조함으로써 여성들의 전통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신교육으로 제한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수 과목의 전공 선택은 졸업 후 자수교사로서 경제적 활동이 용이한 미술 방면의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칠성을 비롯한 일부 조선여성들이 자수 및 편물 과목을 전공으로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자수교사로서 사회적 진출이 용이했던 미술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통적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어왔던 자수는 점차 근대적 신여성으로서의 역할이 절충되었으며, 미술교육과 직업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여성 자립의 수단으로 변모되어갔다.

이처럼 정칠성은 동경여자기예학교에서 자수 혹은 편물을 전문적으로 학습하면서 동시에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 일본에서는 여러 사상이 유입되어 조선여성유학생들도 다양한 사상을 수용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은 지금까지 계몽주의적 여성해방론의 한계를 유학생들에게 인식시키게 하였고, 이에 정칠성을 비롯한 많은 여성유학생들이 사회주의를 수용하게 되었다.¹⁵⁰⁾ 특히 정칠성은 일본유학 시절 독일의 사회주의 이론가 베벨(Bebel, August, 1840-1913)의 『부인론』을 통해서 사회주의 이론을 흡수하였다. 베벨의 『부인론』은 유물론적 역사발전 법칙 속에서 여성 억압의 역사적 기원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 타파를 통한 여성해방을 추구한 이론 서적이다.¹⁵¹⁾ 정칠성은 베벨의 『부인론』은 참 좋은 책이며, 감명 깊게 읽은 서적라고 회고하였으며, “이

149) 본고의 각주 84) 참고.

150) 가와나 유우코, 앞의 논문, p. 42.

151) 박순섭, 앞의 논문, p. 252.

런 책은 한번 기어이 조선 여성에게 읽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지요. 내가 다니던 그때 시절에는 동경에서나 경성에서나 학생계에서도 펴 많이 읽혀지고 있었” 다고 언급하였다.¹⁵²⁾ 이에 따라 정칠성은 베벨의 『부인론』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여성해방사상을 습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서적을 통해 1920년대에는 동경이나 경성의 학생들 사이에서 사회주의 지식 및 사상이 수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21년 4월에 설립된 ‘세키란카이(赤瀾會)’는 일본 최초의 사회주의 여성단체였으며, 당시 일본을 대표하는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야마카와 기쿠에(山川菊榮, 이하 기쿠에로 칭함)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다.¹⁵³⁾ 앞서 언급한 1915년 나혜석 등에 의해 결성된 자유주의를 표방한 여자친목회의 후신 단체인 ‘여자학흥회’에서 활동하였던 황신덕(黃信德, 1898-1983)은 과거 일본유학 시절을 회고하면서 “당시 나는 일본의 좋은 점들을 많이 배우고, 또 요시노 사쿠조오(吉野作造) 박사나 기쿠에(山川菊榮)여사…이치카와 후사예(市川房枝)선생 등을 인격적으로 존경했다.”¹⁵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황신덕이 주로 기쿠에를 비롯한 사회주의 운동가들과 교유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상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황신덕은 이러한 영향 관계로 인해 1923년 자유주의적 여성단체인 여자학흥회를 탈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1925년 3월 사회주의 단체인 ‘삼월회(三月會)’의 발족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당시 일본의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황신덕과 같이 정칠성도 삼월회의 조직에 함께 참여하였다.¹⁵⁵⁾ 이처럼 삼월회는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한 황신덕, 이현경(李賢卿, 1902~?) 정칠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조선 여성이 처한 계급적인 구속에

152) 「여류문장가의 심경 타진」, 『삼천리』 제7권11호, 1935.12.1., pp. 102-103.

153) 관원백합, 「1920년대의 여성운동과 근우회」,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 25.

154) 「왜 저들이 분간아픔 건드리나」, 『동아일보』, 1980.12.4., 제3면.

155) 정칠성은 “조선여학생학흥회의 간사로 활동을 하는 한편 삼월회(三月會)에 참여” 하였다 (「저명인물 일대기」, 『삼천리』 제9권 1호, 1937.1.1., p. 40).

대해 적극적으로 대항하고자 무산계급 남성과 제휴하였으며, 일제의 민족적 압박을 비판하여 대중 본위의 신사회를 건설해야한다고 주장한 사상단체였다.¹⁵⁶⁾ 정칠성은 이러한 사회주의 사상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민족운동에도 참가해보았다. 그러나 애달프게도 그들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착취는 부인하면서…유산자로서 무산자를 착취하는 것은 긍정해버렸다”¹⁵⁷⁾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민족주의계열의 여성운동에 대한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무산계급에 대한 책임감을 표명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한 정칠성은 “로자 룩셈부르크 여성과 ‘사회’란 팜플렛을 발간 전력하였고…그 당시 여성으로써의 연단에 매일같이 오르며 동경지방에까지 다니면서 연설한 자는 여성으로써는 나뿐이었다”¹⁵⁸⁾라는 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칠성은 1925년 3월 24일에 동경에서 발간된 『로자·룩셈부르크(ローザ・ルクセムブルグ)』¹⁵⁹⁾라는 사회주의 잡지와 ‘사회’라는 팜플렛의 발간에 참여하였고, 여러 연설회에 여성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주의 사상 보급에 앞장섰던 것을 알 수 있다.¹⁶⁰⁾

이처럼 정칠성은 일본유학을 통해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자수과목을 전문적으로 학습함과 동시에 사회주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여성들과 일반대중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보급시키고자 폭넓은 활동을 주도한 신여성으로서의 면모를 보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칠성은 귀국 후 자수교사로서 미술교육이자 직업교육을 함께 전개하고, 여성운동단체에서 적

156) 박찬승, 「1920년대 독일유학생과 그 사상적 동향」, 『한국근대사연구』 제30권, 한국근대사학회, 2004, p. 119.

157) 「신여성이란 무엇, 가치 대폭락의 허물은 누구에게, 재동경 조선여성 사상단체 삼월회 간부 정칠성」, 『조선일보』, 1926.1.4., 제2면.

158) 「저명인물 일대기」, 『삼천리』 제9권 1호, 1937.1.1., p. 40.

159) 『로자·룩셈부르크』 잡지는 독일 여성 마르크스주의자인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 1871-1919)의 이름을 딴 잡지이며, 주된 독자층은 일본과 조선의 학생과 노동자였다(「新聞紙雜誌輸入及其ノ種類數量」, 『新聞紙要覽』, 1926, p. 11. 박순섭, 앞의 논문, p. 253에서 재인용).

160) 당시 연설회에 참가한 내용으로는 「무리한 해산명령으로 경관대와 대충돌」, 『동아일보』, 1925.6.18., 제2면.; 「가상적 문제와 군교반대운동」, 『동아일보』, 1925.11.7., 제5면.

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선구적인 여성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4) 이숙종의 숙명여고보와 동경여자미술학교

이숙종의 호는 운정(雲庭)¹⁶¹⁾으로 1904년 경성에서 명문가인 부친 이범규(李範圭, 1874-1937)와 모친 윤창구(1872-1931)사이에서 딸만 여섯인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이숙종의 부친은 항일 구국운동을 하다가 7년간 일본 관헌에 붙잡혀 감옥살이를 하였다. 이러한 반일적인 성향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숙종은 어린 시절부터 민족적인 관념이 남달랐다.¹⁶²⁾ 이숙종은 “나의 학생 시절은 아직도 남존여비의 사상이 사람마다 골수에 짝 차서…웬만치 개화된 집 자녀 아니고는 감히 학교는 엄두도 못 낼 판국이였다.”고 회고하였다.¹⁶³⁾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부모님의 남다른 선각심 덕분에 7살이 되던 해에 이숙종은 나혜석이 졸업한 진명여고보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배울 수 있었으며,¹⁶⁴⁾ 진명여고보 시절 학예회에서 그림을 그려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수상을 하였던 계기로 화가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었다.¹⁶⁵⁾

이후 이숙종은 앞서 언급한 방무길이 졸업하였던 숙명여고보에 1918년 4월에 입학하였다.[도13] 당시 일제의 철저한 식민교육에 따라 여성교육정책이

161) 이숙종은 동경여자미술학교 유학 시절에 타국이라는 이질감에 아버지께 그림을 그려 보내 드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숙종의 작품을 보고, ‘내 딸 숙종! 이제 훌륭한 예술가로구나. 천재로구나.’ 라고 하시며 맨 끝엔 몇 주일 동안 생각하시며 지으셨다는 호 운정(雲庭)을 곱게 적어 주셨다. 이는 한 여인의 예술 세계와 지조와 덕망이 한없이 높고 풍성하다는 뜻이었다(성신학원, 『운정의 향기로』,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p. 92).

162) 한국여성개발원, 앞의 책, pp. 165-166.; 성신학원, 위의 책, p. 35.

163) 성신학원, 위의 책, p. 32.

164) 성신학원, 위의 책, 3, pp. 564-565.

165) 성신학원, 위의 책, pp. 32-33.

시행되어 숙명여고보의 선생님들은 주로 일본인이었다. 이숙중은 1919년 고종(高宗, 1852-1919)황제가 상을 당하던 날, 숙명여고보의 음악 수업시간 때 모든 학생들과 같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일제고사 시험 시간 때는 시험지를 모두 백지로 내었다. 이때 이숙중은 사건의 주모자로 일본인 선생님께 불려갔으며, 그녀는 “고종황제 상을 당하셔서 너무 슬퍼 노래도 부를 수 없고 눈물이 나서 답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¹⁶⁶⁾ 이처럼 이숙중은 학창시절부터 독립투사였던 부친의 영향으로 민족의식이 남달랐으며,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을 선동하여 실천에 옮긴 민족적 주체의식을 보여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숙중은 3년제 숙명여고보를 졸업하고, 미술공부를 더 하기 위해 다시 1년 더 공부하는 신제학교에 들어가 1922년에 졸업하였다. 이후 이숙중은 남존여비의 사회풍조를 박차고 1923년 4월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앞서 언급한 나혜석이 졸업하였던 동경여자미술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하였다.[도14-16] 이숙중은 일본유학을 단행하면서 “그곳은 비록 적국이지만 선진문명의 훌륭한 점을 본떠서 내 것으로 익혀야 한다는 신조와, 어느 때고 우리가 자립하는 날에는 이것을 배운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일본에 와서야 절실히 느꼈다.” 라고 밝혔다.¹⁶⁷⁾ 이에 따라 이숙중이 일본유학을 단행한 이유로는 조선의 민족문제를 바탕으로 두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조선의 독립과 자립을 위해서는 문명화된 국가를 통해 선진문명을 배우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그녀는 일본유학 시절 동경 삼하도(三河島)에 있는 조선 빈민 공장의 자제들을 모아놓고 2년간 조선의 국문을 가르쳤으며,[도17] ‘신간회’와 ‘여자학흥회’¹⁶⁸⁾단체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시켰

166) 성신학원, 앞의 책, p. 21.

167) 성신학원, 앞의 책, p. 23.

168) 1920년에는 조선여자유학생친목회의 일부 회원들이 『여자계』를 ‘헌신적으로 응원하자’는 목적으로 여자학흥회를 조직하였다. 여자학흥회란 조선여자의 교육 보급을 도모하고,

다. 특히 이숙중은 여자학흥회의 활동을 시작으로 하여 여성운동에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여자학흥회는 1920년 1월 4일 “우리 친목회원 중에서 특별히 『여자계』를 헌신적으로 응원하자는 목적” 하에 조직된 단체로써¹⁶⁹⁾ 『여자계』 제4호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¹⁷⁰⁾ 특히 여자학흥회가 발간하기 시작한 『여자계』 제4호부터는 “문명의 바람이 우리의 낮을 스침으로 비로소 눈을 떠보니 벌써 남들은 깨어서 동등권, 참정권을 찾노라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각과 자임을 가지고 우리의 남자 사회에서 부담할 우리의 중하(重荷)를 만분지일이라도 나누어야 되겠다는 결심으로…1919년으로 기원을 삼아 우리 ‘여자계’가 독립적 신생활을 시작하여 하였사오니” 라고 하며 남성유학생들의 도움 없이 여자유학생들만의 독립으로 경영하게 되었음을 선언하였다.¹⁷¹⁾ 이후 여자학흥회는 방학 동안에 귀성하여 고국순회강연을 통해 신사상 및 신지식 보급에 노력하는 등 본격적으로 여성 계몽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자학흥회는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다가 1922년 이후 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하였으며, 재정곤란과 회장 유영준(劉英俊, 1892-?)의 건강악화로 인해 『여자계』는 1921년 7월자 제7호를 끝으로 발간이 중지되었다.¹⁷²⁾ 그러다 1924년 다시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이숙중은 여자학흥회의 간부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¹⁷³⁾ 이숙중이 정확히 몇 년도부터 여자학흥회에서 활동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우나 1927년 1월 『여자계』 속간4호의 발행인으로 참여하였으며, 1926년

지식의 향상을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여자계』 발행 사무를 담당하였다(가와나 유우코, 앞의 논문, pp. 27-28).

169) 「소식」, 『여자계』 제4호, 1920.3.25., p. 68.

170) 그 밖의 임원은 총무 김숙경, 서기 송복신·한소제, 회계 박경희·황신덕, 검사 이선행으로 구성되었다(「소식」, 『여자계』 제4호, 1920.3.25., p. 68).

171) 「여러분께」, 『여자계』 제4호, 1920.3.25., p. 69.

172) 박정애, 「1910-1920년대 초반 여자일본유학생 연구」, 숙명여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p. 42.; 7호는 당시 『학지광』에 실렸던 광고를 통해 목차를 확인할 수 있을 뿐,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정미량, 앞의 책, p. 191).

173) 이숙중이 몇 년도에 여자학흥회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순종 봉도식(奉導式)’에 여자학흥회 간부로서 참여하였던 내용을 통해 대략 1926~7년에 활발히 활동하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숙중은 1926년 일본에서 조선 최후의 임금 순종(純宗, 1874-1926)황제가 승하하였다는 비보를 듣고, 여자학흥회를 통해 학우회, 형설회(螢雪會) 등의 조선유학생단체들과 연합하여 비밀리에 순종 봉도식을 거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준비하는 도중에 경시청으로부터 적발되어 위원 일부가 검거되었고, 중지명령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숙중을 포함한 조선 남녀는 봉도식을 거행하였으며, 이는 민족의식에 기반을 둔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실천된 것으로 이숙중의 민족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¹⁷⁴⁾ 이후 1927년 이숙중이 발행을 맡은 속간4호에는 기존의 『여자계』에서 논의되었던 가정, 교육, 연애 등의 여성문제뿐만 아니라, 여성의 계급문제를 다루는 사회운동으로까지 논조가 확장되었다.¹⁷⁵⁾ 이러한 경향의 글로 속간4호에 게재된 이숙중의 「부녀운동의 주관」을 통해 당시 이숙중이 추구한 사상적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부인은 남자로부터의 해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특히 경제 상에서도 해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제적 권위가 급일에 이르러 실로 남자의 장악이기보다는 근세에 이르러 자본소유자의 장악이 되었으므로 부녀해방운동은 궁극적 목적도 여기에 초점을 둘 것을 절규한다.¹⁷⁶⁾

이처럼 이숙중은 여성운동의 초점을 경제적 해방문제로 두었다. 이에 따라 1927년 『여자계』 속간4호에서는 기존의 『여자계』에서 주창된 자유주의

174) 「봉도회를 금지」, 『동아일보』, 1926.6.12., 제5면.; 성신학원, 앞의 책, p. 26.

175) 이러한 경향의 글로는 이숙중의 「부녀운동의 주관」과 정철성의 「참 자유의 길」 등이 있다(정미량, 앞의 책, pp. 196-197).

176) 「부녀운동의 주관」, 『여자계』 제4호(속간), 1927.1., p. 70.

적 여권의식에 사회주의적 문제의식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숙종의 사상은 당시 민족주의계열의 여성운동단체와 사회주의계열의 여성운동단체의 협동전선에 기인한 것으로, 당시 그녀는 민족주의를 기본적으로 표방하나, 여성문제를 사회주의적 계급문제로까지 확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숙종이 당시 좌우익 세력의 협동단체인 ‘신간회’의 동경지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부분과도 연관된다.

이와 같이 이숙종은 일본에서 여성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도중에 1926년 2월 동경여자미술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였으며, 이어 미술에 대한 지식을 더 쌓고자 같은 해 4월에 동경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에서 조선낙랑시대고 고학을 1년 동안 청강하였다. 이후 이숙종은 여성 운동가이자 여성 미술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1927년 5월에 귀국하였다.¹⁷⁷⁾ 이처럼 이숙종은 일본 유학을 통해 근대적 신교육을 학습하여 서양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으며, 민족의식과 여성해방의식을 다양한 단체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현한 선구적인 신여성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숙종은 귀국 후 여성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이숙종을 ‘여자계의 새 인물’로 주목하는 인터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남에게 지지 않을 만큼 나도 이상과 포부를 가지고 귀국했습니다만 와서 보니 모든 일에 서투를 뿐입니다. 배운 것은 서양화이나 서양화를 조선화(朝鮮化)하여 연구할 방침이며, 주인 잃은 창경원 안에 있는 박물관을 이용하여 순전히 조선의 미술 연구를 (그대로 연구한다는 것보다는) 하렵니다. 그리하여 소수의 사람이 향락하든 예술을 여러 민중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의 현재의 생각입니다.¹⁷⁸⁾

177) 「여자계의 새 인물을 찾아, 서양화를 조선화」, 『동아일보』, 1927.5.10., 제3면.

178) 「여자계의 새 인물을 찾아, 서양화를 조선화」, 『동아일보』, 1927.5.10., 제3면.

이에 따라 이숙중은 일본유학을 통해 학습한 서양화를 연구하여 ‘조선화’ 하겠다는 민족적 의지를 밝혔음을 알 수 있다. 1909년 일제는 조선 왕조의 5대 궁궐 중에 하나인 창경궁에 식물원 및 동물원과 이왕가 박물관(李王家博物館)을 설립하여 창경원(昌慶苑)으로 통칭함으로써 궁궐의 면모를 오락의 공간으로 그 위상을 격하시켰다.¹⁷⁹⁾ 이처럼 일제에 의해 왜곡되어져버린 이왕가 박물관을 이숙중은 ‘주인 잃은 창경원에 있는 박물관’이라고 지칭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순전히 조선의 미술 연구’를 하겠다는 민족적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숙중의 이러한 언급과 관련해서는 그녀가 일본유학 시절 당시 일본미술계에서 ‘일본적 서양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던 움직임에 자극을 받았던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일본적 서양화’는 일본에 명치(明治, 1868-1912) 초기부터 ‘일본적 서양화’의 지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왔던 것으로,¹⁸⁰⁾ 전통회화인 일본화의 부흥을 위해 서양화 화법의 사실적 기술을 일본화의 전통적 화제에 적용함으로써 일본적 서양화로 접근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숙중은 이러한 일본 미술계에 자극을 받아 ‘일본적 서양화’에 대한 경향을 흡수하여 ‘서양화를 조선화’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위의 언급을 통해서 이숙중은 조선의 미술을 연구하여 피지배 계층인 ‘민중’이 향락할 수 있는 예술의 민중화를 표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숙중은 미술을 통해 민족의식을 구현하여 소외된 무산계급을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는 당시 여성운동의 협동전선을 지향한 흐름에 대한 영향으로 이숙중의 여성미술가이자 여성운동가로서의 방향성이 제시되었던 부분인 것으로 여겨진다.

179) 목수현, 「일제하 이왕가 박물관의 식민지적 성격」, 『미술사학연구』 227호, 한국미술사학회, 2000, p. 98.

180) ‘일본적 서양화’는 1930년대가 되면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의 본격적인 시작과 맞물리면서 ‘신일본주의(新日本主義)’라 명명되어 더욱 적극적으로 화단에 투영되었다(박계리, 「일제시대 ‘조선 향토색’」,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4권,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1996, pp. 173-176).

그러나 이에 따른 방향성을 기반으로 한 귀국 후 이숙종의 국내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1920년대 후반 가중된 일제의 탄압과 더불어 근우회를 비롯한 협동전선 단체의 해소과정으로 해체되어간 상황에서 비롯된 공백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1930년대에 이르러 이숙종은 일본유학 시절 발현된 그녀의 민족의식과 여성의 주체의식에 따라 조선에서도 다양한 활동으로 여성운동을 주도해나가게 되었다.

2. 여성미술가들의 여성운동의 전개

1) 1910년대 여성운동의 발단

① 나혜석의 일본유학 시절 문학을 통한 자유주의 여권운동

일본의 조선유학생들은 일본에서 수용된 자유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그들끼리 친목회를 결성하여 조선의 사회문제를 해결·보안하고자 하였으며, 그들이 간행한 기관지를 통해 개인의 인격과 개성, 그리고 자아를 존중하는 자유주의사상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여성의 해방과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유주의 여성해방운동에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지금까지 평등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했던 ‘여성’의 인격과 권리도 함께 개선되어야할 문제로 강구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나혜석은 일본유학 시절 여성의 해방 및 권리에 대한 문제를 주로 문학으로 표현해 내는 여성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는 여성 미술가로서의 활동은 아니었지만, 같은 문화·예술 방면의 일환으로써 나혜석의 여권의식과 민족의식이 발현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주목하고자 한다.

나혜석은 일본유학 시절 최승구(崔承九, 1892-1917), 이광수(李光洙,

1892-1950), 염상섭(廉想涉, 1897-1963)을 비롯한 ‘조선유학생학우회(朝鮮留學生學友會, 이하 학우회)’의 문학청년들과 교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1914년 12월을 시작으로 『학지광』에 글을 투고하기 시작하였다.¹⁸¹⁾ 『학지광』의 주된 담론은 계몽을 목적으로 근대교육의 실현을 주장한 민족주의 담론이었으며, 신여성 담론은 민족주의 담론의 일부 수단으로써 전개되었다.¹⁸²⁾ 당시 사회진화론에 기반하여 ‘개인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것’으로 인식한 신지식 층은 조선의 식민지 현실을 비판하였다. 이를 조속히 극복하고자 조선의 근대화와 문명화를 위한 방향성을 그들의 기관지인 『학지광』에 제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조선사회의 발전을 위해 여성의 근대적 역할에 대한 논의도 함께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이광수는 “남자와 여자는 균형하게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책임을 진다…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 여자의 천직이지요. 여자는…사람이 되었으니 아내나 어머니의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¹⁸³⁾ 그는 ‘여성’이라는 사람은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 ‘의무’이자 ‘천직’이라고 언급하면서 사회 발전에 대한 여성의 역할을 현모양처로 한정하고 있다. 염상섭 또한 조선이 민족적 세계적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현모양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¹⁸⁴⁾

이처럼 이 시기 신여성 담론은 문명국으로 발전된 국가를 성립하기 위해

181) 제일 조선유학생학우회는 대한흥학회가 해산된 후, 그 뒤를 이어 1913년 가을에 철북(鐵北)친목회·패서(溟西)친목회·해서(海西)친목회·경서(京西)구락부·삼한(三韓)구락부·낙동(洛東)동지회·호남다화(茶話)회 등 7개의 단체가 대동단결을 내세우고 조직한 유학생 단체이다(최덕교, 『한국잡지백년 1』, 현암사, 2004, p. 206. 이경수, 「1910~20년대 제일본 조선 유학생 친목회지에 나타난 신여성 담론」, 『한국학연구』 제31권, 2009, p. 189에서 재인용.); 『학지광』은 1914년 4월에 창간되어 1930년 4월 5일까지(통권 29호) 발행된 조선유학생학우회의 기관지로 유학생들 사이 친목과 학술 교류를 위한 장이었으며, 유학생들과 조선에 있는 동포들 사이 교류의 장이기도 했다. 또한 일제의 검열과 감시 속에서도 조선의 독립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은 민족 계몽이 장이기도 했다(정미량, 앞의 책, pp. 174-180).

182) 이경수, 위의 논문, p. 194.

183) 이광수, 「혼인에 대한 관견」, 『학지광』 제12호, 1917.4.19.

184) 염상섭, 「부인의 각성이 남자보다 긴급한 소이」, 『여자계』 제2호, 1918(박정애, 앞의 논문, p. 46에서 재인용).

가정 내의 ‘어머니이자 아내’인 여성으로 사회적 지위를 한정시켰다. 이는 근대화, 문명화의 국가를 지향하면서도 ‘현모양처’라는 전통적 여성관에서 탈피하지 못한 한계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논의들의 필자는 대부분 남성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조선유학생들 사이에서의 신여성 담론에 대한 한계점이 더욱 부각된다. 이처럼 당시 남성 필자들에 의해 현모양처에 입각한 신여성 담론이 전개되던 시점에서 나혜석이 이에 대한 반문을 제기하였다. 그녀는 먼저 1914년 12월 『학지광』에 발표된 「이상적 부인」을 통해 당시 조선사회의 여성관에 대한 비판을 표명하였다.

…습관에 의하여 도덕상 부인, 즉 자기의 세속적 본분만 완수함을 이상이라 말할 수 없도다. …양처현모(良妻賢母)는…현재 교육가의 상매적 일호책이 아닌가 하노라. 양부현부(良夫賢父)의 교육법은 아직도 듣지 못하였으니, 다만 여자에 한하여 부속물 된 교육주의라.…자기의 개성을 발휘코자 하는 자각을 가진 부인으로서, 현대를 이해한 사상, 지식 상에 이른 품성에 대하여, 그 시대의 선각자가 되어 실력과 권력으로, 내적 광명의 이상적 부인이 되지 아니하면 불가한 줄로 생각하는 바이다.¹⁸⁵⁾

이처럼 나혜석은 당시 ‘양처현모’적 교육에 대해 ‘여자에 한하여 부속물 된 교육’이라고 언급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써 이는 여성 차별적인 시선에서 비롯된 남존여비 사상인 것을 드러내었다. 그녀는 현모양처 여성상과는 극명히 대조되는 여성을 ‘이상(理想)’적인 여성상으로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여성들 스스로의 ‘개성’과 ‘자각’으로 ‘내적(內的) 광명’한 부인이 되기를 촉구하였다. 이처럼 나혜석은 최초로 여성의 주체적인 권리에 대해 물음을 던진 선구자였던 것이다. 또한 1917년 『학지

185) 나혜석, 「이상적 부인」, 『학지광』 제12호, 1914.12.3.

광』에 실린 나혜석의 「잡감」에서도 조선여성으로서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여성의 주체의식을 촉구하였다.

…조선에서도 저렇게 활기 있는 어른들이 많이 계신 것이 참 기쁘지
않소? 학식이 있기에 판단이 민첩하고 지각이 낮기에 똑똑히 발표하는
것이오.…이것을 객관적으로 비난하는 것이라 말할지라도 비난이 없으면
반성이 어찌 생기고 타격하는 이가 없으면 혁신의 기운이 어찌 일겠소?
비난 중에서 진보가 되고, 타격 중에서 개량이 생기는 것이 분명하고,
이로 말미암아 개인이 사람 같은 사람이 되고 일국의 문명이 있는 것을
알니다.…우리 조선여자도 인제는 그만 사람이 좀 되어봐야만 할 것이
아니오? 여자다운 여자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오? 미국 여자는 이성과
철학으로 여자다운 여자요, 프랑스 여자는 과학과 예술로 여자다운 여자
요, 독일 여자는 용기와 노동으로 여자다운 여자요, 그런데 우리는 인제
서야 겨우 여자다운 여자의 제일보를 밟는다 하면 이 너무 늦지 않소?
우리의 비운은 너무 참혹하오 그려.¹⁸⁶⁾

이처럼 나혜석은 학식과 지식을 겸비하여, 비난을 통해 진보를 이루고 타격을 통해 개량을 이루어 ‘사람 같은 사람’이 되어야함을 언급하였다. 선진적인 외국 여성들을 예로 들면서 ‘이성과 철학’, ‘과학과 예술’, ‘용기와 노동’을 갖춘 여성을 ‘여자다운 여자’로 언급하여 이와는 상대적으로 대조되는 조선여성들의 참혹한 현실을 드러내어 여성들의 자아 각성을 고취시켰다. 따라서 나혜석은 조선여성들이 신지식을 통해 진보와 혁신을 이루어 ‘여자다운 여자’, 즉 여성으로서의 권리와 자주적인 지식을 겸비한 ‘사람’이 되기를 강조하는 여권 신장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나혜석은 남녀불평등한 조선 사회의 현실을 기관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고발하였으며, 여성들을 개인적 각성에 이르게 하기 위한 계몽의식을

186) 나혜석, 「잡감」, 『학지광』 제12호, 1917.4.19.

고취시킴으로써 여성문제를 보급시키려는 선구자적인 면모를 보였다. 이어 나혜석은 그녀의 여권의식을 바탕으로 민족의식도 함께 표출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잡감-K언니에게 여함」을 통해 나타났다.

…우리는 어서 남들이 주장하는 “인격 존중이니, 사람은 사람답게 이상의 반뿐이라도 실현해야겠고, 또 사람다운 생활을 해야겠다”는 것을 바라볼 욕심도 내야겠고, 모방할 허영심도 많아져야 할 것이 아닐까요?…1은, 조선 여자도 사람이 될 욕심을 가져야겠소.…우리 조선여자가 무대상에 참석할 욕심을 가져야 할 줄 알아요. 루소의 말이 “나는 학자와 장군을 만드는 것보다 먼저 사람을 만들겠다” 하였다 하오.…2는, 자기 소유를 만들려는 욕심이 있어야겠소. “수처작주면 입처개진 (隨處作主 立處皆眞, 어디든지 주체성을 가지면 모든 곳이 진리이다)”…일본은 남의 문화를 수용하되 일본화 하는 것이오. 일본 사람은 외적 자극 받아가지고 내적 조직을 만드는 것이오. 우리도 배우는 학문을 내 소유로 만들어야겠소. 조선화시킬 욕심을 가져야 하겠소.…3은, 활동할 욕심을 가져야겠소.…우리 조선 여자 중에 누구라도 가치 있는 욕을 먹는 자가 있다 하면 우리는 안심이오.…187)

이처럼 나혜석은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어지는 것이 ‘사람다운 생활’이라고 언급하여 조선 여성에게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될 욕심을 가져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주체성을 기반으로 배우는 학문을 내 소유로 만들어 ‘조선화(朝鮮化)’시킬 것을 주장함으로써 조선 여성으로서 민족적 주체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나혜석은 그녀의 여권의식과 민족의식을 나타내어 조선여성의 실천성과 활동성을 이끌어내는 계몽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나혜석은 일본의 자유주의 여성해방사상을 직접적으로 접함으로

187) 나혜석, 「잡감-K언니에게 여함」, 『학지광』 제13호, 1917.7.19.

써 여성해방의식과 민족의식이 함께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1915년 조선유학생들만의 여성단체인 여자친목회의 결성과 더불어 기관지 『여자계』에 조선의 여성문제와 민족문제를 드러내는 보다 확장된 계몽활동으로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나혜석은 『여자계』 2호(1918년 3월)에 한국 최초의 여성해방문학인 소설 「경희」를, 3호(1918년 9월)에는 소설 「희생한 손녀에게」를 실어 그녀의 여권의식과 민족의식의 일면을 드러내었다.¹⁸⁸⁾

그러나 나혜석의 글 이외에 『여자계』의 2호와 3호에서는 주로 문명화된 가정에 대한 내용으로 여성교육에 따른 여성의 각성을 촉구하는 글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는 위생, 심리학, 수신 등의 여성교육으로 주로 가정 내에서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에 주목한 교육이었다.¹⁸⁹⁾ 즉 여성의 역할을 가정 내로 한정된 채로 문명화·근대화된 사회를 지향하였던 것으로, 여전히 전통적 가부장제 인습에서 탈피하지 못한 ‘근대식 현모양처’의 양성을 주요한 목적으로 접근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한계점은 『여자계』의 2호와 3호가 전영택(田榮澤, 1894-1968), 이광수 등의 남성들의 도움으로 발간되었으며, 대부분의 필자가 남성이었다는 측면에서 기인한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 시기 여성 필자들 역시 대부분 남성 필자들의 글과 공통된 내용으로 여성의 역할을 가정 내의 현모양처의 역할로 국한시키며 남성 중심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글을 제시하였다.¹⁹⁰⁾

그러나 『여자계』 2호에 수록된 나혜석의 소설 「경희」에서는 이와는 다른 의식을 보인다.¹⁹¹⁾ 「경희」는 현모양처의 역할로 한정된 논의에 대립되는 의식을 표현한 소설로써 『학지광』에 수록된 「이상적 부인」과 같은 맥락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희」 제1장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188) 이승희, 앞의 논문, 2006, p. 185.

189) 백옥경, 앞의 논문, p. 20.

190) 김덕성, 「새로 어머니가 되신 H형님께」, 『여자계』 제2호, 1918.3.22.

191) 「경희」는 일본에 유학한 여학생 ‘경희’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1~2장에는 신여성과 구여성 간의 대립으로, 3~4장에는 신여성과 남성 간의 대립으로 흐름이 전개된다.

일본에서 유학하여 근대적 의식을 갖춘 신여성 ‘경희’와 신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구여성 ‘사돈마님’과의 의식적 대립구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경희는 “공부를 하면 많이 해야겠어요. 그래야 남에게 존대를 받을 뿐 아니라 저도 사람 노릇을 할 것 같아요”라고 하였다.…일본에서 유학하고 잠시 돌아온 경희에게 사돈마님은 “거기(일본)를 또 가니? 인제 고만 곱게 입고 앉았다가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아들딸 낳고 재미드럽게 살지 그렇게 고생할 것 무엇 있니?”라고 하였다.…이처럼 사돈마님은 신여성이라면 ‘어떻든지 흥만 보고 욕만 하기로는 수단이 용한’ 인물로서, 신여성들의 삶을 혹평한다.…

…경희의 어머니인 김 부인은 ‘훨씬 개명(開明)한’ 인물로서, 사돈마님에게 자기 딸 경희에 대해서 “좀 가르치면 어디든지 쓸데가 있더군요. 그뿐 아니라 그 점잖은 일본사람들에게도 (경희가) 어찌 존대를 받는지 몰라요. 그 애(경희)가 왔단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감독이 일부러 일전에 또 찾아왔어요. 일본서 졸업하고는 기어이 자기 회사의 일을 보아 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월급 일천오백 냥은 쉽대요. 차차 오르면 3년 안에 이천오백 냥을 받는다는데요. 다른 여자는 제일 많은 것이 칠백선 냥이라는데 아마 그 애는 일본까지 가서 공부한 까닭인가 보아요. 저것도 그 애가 재봉틀에 한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를 듣고는 사돈마님은 스스로 자복(自服)하여 ‘내가 여학생을 잘 못 알아 왔다. 정말 이 집 딸(경희)과 같이 계집애도 공부를 시켜야겠다. 어서 우리집에 가서 내외시키던 손녀딸들을 내일부터 학교에 보내야겠다’고 꼭 결심을 했다.(본 서술은 필자의 본의대로 요약)¹⁹²⁾

이처럼 나혜석은 주인공 경희를 학문을 위해 일본유학을 단행한 근대적 신

192) 나혜석, 「경희」 제1장, 『여자계』 제2호, 1918.3.22.

여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조적으로 여성에 대한 전근대적인 인식을 가진 사돈마님을 구여성으로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직 여성으로서 계몽하지 않은 사돈마님과 ‘일본 사람으로부터 취직제의를 받고, 월급도 많이 준다는 제의를 받은’ 신여성 경희의 사상을 대조시킴으로써 근대적 여성교육을 통해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사는 가정 내로 한정된 여성이 아닌, 남성 못지않게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감행하는 신여성의 면모를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나혜석은 소설 「경희」를 통해 보통 남성보다 더 많은 월급 제의를 받고, 보통 남성들처럼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 활동을 하고자하는 여성을 신여성상으로 설정하였다. 즉 기존의 가정 내의 역할로만 강조하는 구습 속의 여성상이 아닌, 사회활동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어 보통 남성과 동등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일삼는 여성을 이상적 여성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또한 나혜석은 구여성으로 설정된 사돈마님을 통해 ‘내가 여학생을 잘못 알아왔다…계집애도 공부를 시켜야겠다.’, ‘내외시키던 손녀딸들을 내일부터 학교에 보내야겠다’ 라고 깨달은 의식을 표현함으로써 구여성의 각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여성계몽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즉 여성교육의 목적을 여성의 사회적 진출로 설정함으로써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주체적인 자아가 형성된 여성상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경희」는 여성의 전통적 현모양처 인식과 봉건적 사상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는 나혜석의 여권의식이 깃든 소설인 것이다.

또한 『여자계』 3호에 실린 나혜석의 「회생한 손녀에게」는 『학지광』에 실렸던 「잡감-K언니에게 여함」과 같은 맥락의 글로써 조선여성으로서의 민족의식을 드러내었다.

…달콤하고 냄새도 좋은 오므라이스나 가기후라이(カキフライ, 굴튀김)
의 맛보다도 그 짜디짜고 맵디 매운 깍두기 맛이 그다지 좋단 말이

지?...그러면 너는 그 깍두기 맛으로 희생한 너로구나. 오나 너는 죽기 전에는 그 깍두기가 너의 정신을 반짝하게 해주는 인상을 잊으려야 잊을 수 없게 되었구나. 참 남들이 맛있다는 스프나 빵보다도 우리의 입에는 깍두기만치 맛있는 것을 못 보았다. 그리고 라이스카레나 미소(味噌, みそ)시루를 먹어도 깍두기를 마저 먹어야 속이 든든해진다....너는 할 수 없이 깍두기의 딸이다. 너도 이제 꼭 그런 줄을 알았을 줄 믿는다. 깍두기로 영생하는 내 기특한 손녀여!¹⁹³⁾

이처럼 나혜석의 「잡감-K언니에게 여함」은 ‘오프라이스나 가기후라이’, ‘스프나 빵’, ‘라이스카레나 미소’와 같이 ‘달콤하고 냄새도 좋은’ 서양 및 일본의 음식들보다 조선의 음식을 대표하는 ‘깍두기’가 더 좋다고 언급함으로써 조선인에게 적합한 것은 서구의 것도, 일제에 의한 것도 아닌 조선적인 것임을 나타내어 민족적 자의식을 드러내었다. 이어 ‘너는 할 수 없이 깍두기의 딸이다’라고 서술함으로써 조선에서 태어난 조선 여성으로서 민족의식에 대한 자각을 고취시키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나혜석에 의한 여권의식과 민족의식의 고취를 바탕으로 여자친목회 여성회원들의 인식태도가 점차 변화되기 시작하여 1919년부터는 『여자계』의 발간 주체를 여성들로만 이어지도록 독립을 선언하였다.¹⁹⁴⁾ 이에 따라 1920년 『여자계』 4호부터 5호, 6호 등의 후반기 발행은 여성들로만 이루어져 주관하게 되었으며, 1920년 1월 『여자계』를 헌신적으로 응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여자학흥회(女子學興會)’로 단체가 변경되었다. 이처럼 조선여자유학생들의 인식태도가 변화되어 남성들의 발간 도움에서 벗어나 여성들 스스로의 독립의지를 밝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자학흥회 회원들은 점차 ‘여성해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여성들을 속박하였던 구습을 타파하고자 하였다.¹⁹⁵⁾ 이러한 여성해방론은 여성의 자유결혼과 자유

193) 나혜석, 「희생한 손녀에게」, 『여자계』 제3호, 1918.9.10.

194) 백옥경, 앞의 논문, p. 16.

연애와 같은 남녀 관계에 대한 자유의 주장과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독립을 통한 여성의 권리 확보에 대한 논의 등을 전개한 것이었다. 이는 여성들의 자유와 권리를 추구하기 위한 여성의 주체성과 인격체에 대한 자각을 의미하였다.

이처럼 나혜석은 일본유학을 통한 신사상의 수용을 바탕으로 형성된 여권의식과 민족의식을 겸비하여 1918년 귀국하여 다양한 계몽활동을 통해서 여성운동을 주도해 나갔다. 이처럼 나혜석을 비롯한 조선여자유학생들에 의해 여성문제에 대한 새로운 사상이 한국으로 유입되어 전파됨으로써 국내의 여성운동의 사상적 배경을 이루게 되었다.

② 나혜석의 국내 민족운동과 자유주의 여권운동

나혜석은 일본유학 시절 주로 문학을 통해 여권의식과 민족의식을 표출하였다면, 귀국한 후에는 민족운동의 참여와 더불어 여성미술가로서의 활동을 통해 여성운동을 전개하였다. 나혜석은 1930년 『삼천리(三千里)』의 설문에서 “장차 좋은 시기 있으면 여성운동에 나서려 합니다.” 라고 대답한 바 있다.¹⁹⁶⁾ 이러한 나혜석의 여성운동에 대한 의욕은 이미 그녀의 전반적인 삶에서 일부 실현되고 있었다.

나혜석은 1918년 4월에 귀국 후 그녀의 모교인 진명여고보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다가 같은 해 8월에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다.¹⁹⁷⁾ 이후 나혜

195) 『여자계』 4호, 5호, 6호에 나타난 여성들의 인식태도의 변화 내용으로는 「여자해방문제」(4호), 「부인문제」(5호), 「우리의 온길 같길」(5호), 「남녀교제에 대하여」(6호), 「조선청년여자의 희망」(6호), 「결혼과 연애」(6호), 「여자의 자각과 남자의 반성을 규함」(6호) 등의 글이 있다(백옥경, 앞의 논문, p. 21).

196) 「제씨의 성명」, 『삼천리』 제6호, 1930.5.1., p. 26.

197) “나(나혜석)는 동경에 대정 2년(1913년)에 갔다가 도중에 1년 동안은 집에 와 있었으며 다시 가서 작년(대정 7년, 1918년) 3월에 졸업하고 4월에 귀국하여 현재 집에서 혼자 그림 연구를 하고 있다.”(국사편찬위원회, 「나혜석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제14권, 제14권, 과천: 문교부 국사편찬위원회, 1991, p. 297)

석은 1919년 1월 21일부터 2월 7일까지 『매일신보』에 ‘선달대목’이라는 주제로 4회와 ‘초하룻날’이라는 주제로 5회, 총 9회에 걸쳐 만평 형식의 삽화와 그에 따른 짧은 해설의 글을 연재하였다.¹⁹⁸⁾[도18] 이는 최초로 여성의 입장으로써 조선여성의 세시풍속과 가사노동을 주제로 한 삽화와 간략한 글의 만평을 게재한 것으로 조선사회의 남존여비사상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다듬이가 끝나니 바느질감이 가득하다. 온종일하고 밤까지 하여도 열흘 안에는 끝이 날 듯도 싶지 않다.…해는 벌써 지는구나 아이고 그해야 밝기도 하여라.

일찍이 다듬기를 시작하여서 한 싸개는 벌써 흥두깨들 내린다. 짧은 아해들과 같이 세차게 두드리지 못하시는 마님은 발다듬이로나 힘써 밟는 데는 졸업생이시다. 하나, 들, 하나, 들 붙잡으신 줄은 흔들흔들하고, 발아래 빨래는 뽀뽀하게 살이 퍼진다.

초하루 날 해가 막 떠오르자마자 할 때에 먼저 조상 앞에 떡국차례를 단잔(單盞)으로 지내느라고 삼부자는 나란히 엎드리었다.

어머니 왜 뒷집 덕순이 같이 곱게 발려지지가 않고 분이 자꾸 얼룩이 가지요. “아이구 어머니 이것 좀 발라주세요”, “가만히 있거라, 오빠 먼저 옷을 입혀야 한아버지 한어머니께 세배를 하러가지”, “나는 세배 안하나 어서어서 어머니”, “가만히 있어, 요년아” …¹⁹⁹⁾

이들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인용문은 조선의 부인들이 선달대목의 명절 일거리들로 바쁜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연말에 새해 준비를 위해 빨래거리나 바느질거리와 같은 ‘온종일하고 밤까지 하여도’ 쌓여있는 가사 일을 오직

198) 「선달대목」(1)~(4), 『매일신보』, 1919.1.21., 1919.1.30.~31, 1919.2.1.; 「초하루날」(6)~(10), 『매일신보』, 1919.2.2.~4, 1919.2.6.~7(총9회 연재, 그 중 (5)는 확인이 어려움).

199) ①「선달대목(3)」, 『매일신보』, 1919.1.31., 제3면. ②「선달대목(2)」, 『매일신보』, 1919.1.30., 제3면. ③「초하루날(6)」, 『매일신보』, 1919.2.2., 제3면. ④「초하루날(7)」, 『매일신보』, 1919.2.3., 제3면.

여성들만이 담당하고 있는 내용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초하루 날의 명절에 남녀의 역할이 정확히 구분되어져 있는 조선의 전통적인 명절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이는 새해에 차례를 지내고, 세배하는 것이 오직 남성들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처럼 나혜석은 여성미술가로서 자유주의 여권운동의 일환으로 만평 형식의 삽화를 통해 조선 명절의 남존여비적인 세시풍속을 풍자적으로 비판하였으며, 남녀 평등한 여성의 권리와 위상을 사회에 역설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는 나혜석이 1920년에 『신여자』에 게재한 「김일엽의 하루」²⁰⁰⁾라는 목판화 형식의 4컷 만평 만화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도19] 「김일엽의 하루」는 당시 나혜석과 함께 여성의 자유와 평등사상을 추구하였던 신여성 김일엽(金一葉, 1896~1971)의 하루 일상을 짧은 글귀와 만평식의 삽화를 통해 표현해낸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좌측 상단에는 ‘밤에도 열두시까지도 독서’ 하는 김일엽의 모습, 그 옆에는 부엌에서 ‘부글부글 푸푸’ 하는 냄비를 옆에 두고 시를 짓는 김일엽의 모습, 좌측 하단에는 ‘손으로는 바느질, 머리로는 신여자 잘 살릴 생각’ 하는 김일엽의 모습, 그 옆으로는 ‘밤새껏 궁구하여 새벽 정신에 원고를 쓰’ 는 김일엽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나혜석은 직업뿐만 아니라 가사일까지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직업여성의 삶을 김일엽의 삶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나혜석은 집안 살림은 항상 여성들의 몫으로 규정되어진 조선사회의 가부장적 인습을 비판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나혜석은 일본에서 자유주의 여성해방사상을 수용한 후 전통적이고 전근대적인 조선여성의 삶을 만평을 통해 우회적으로 드러내어 폭로하였으

200) 나혜석의 「김일엽의 하루」에 대해서는 박영택은 “1920년 『신여자』에 게재된”이라고 밝혔다(박영택, 「한국 근대미술사에서 나혜석의 위치」, 『나혜석, 한국 근대사를 거닐다』, 서울: 푸른사상, 2011, p. 29). 그러나 김홍희는 이 그림은 정확히 “어떤 잡지에 게재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이라고 언급하였다(김홍희, 「나혜석 미술작품에 나타난 양식의 변화」, 『나혜석, 한국 근대사를 거닐다』, 서울: 푸른사상, 2011, p. 169).

며, 여성의 권리의식을 고취시키려는 선구자적인 활동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나혜석의 이러한 실천 의지와 자유주의적 여권사상은 『삼천리』의 설문 중 ‘내가 서울 여시장(女市長)이 된다면?’이라는 질문에 “...여성단체를 조직하여 시세, 사상, 교풍(矯風)에 대하여 통일적 사상과 행동을 갖도록 하겠습니다.”²⁰¹⁾라고 대답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나혜석은 조선의 남녀차별적인 풍속이나 사상 등을 변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겼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나혜석의 여권의식과 실천 의지는 여성미술가로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타났다. 먼저 나혜석은 1921년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경성 일보사 내청각(京城日報社 來淸閣)에서 작품 70여점을 전시하는 개인 미술 전시회를 통해 나타내었다. 이는 경성에서 개최된 최초의 유화 개인전시회이자 최초의 여성에 의한 미술전시회였다.²⁰²⁾[도20] 이에 대한 나혜석의 개최취지를 통해 그녀가 개인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추구하고자한 목적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

...아직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이 조선여자로 하여금 그림에 대한 흥미를 줄만한 기회와 편의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러하지. 만일 이 앞으로라도 일반여자계에 그림에 대한 취미를 고취할만한 운동이 일어나기만 하면 반드시 여류화가가 배출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자기는 (나는) 힘은 부치고 재조는 변변치 못하나 수히 단독 전시회를 열고, 아무쪼록 일반부인계에서 많이 와서 구경하여 주도록 하여볼까 합니다.²⁰³⁾

이처럼 나혜석은 당시 조선 사회는 ‘조선여자에게 그림에 대한 흥미를 줄

201) 나혜석, 「내가 서울 여시장이 된다면?」, 『삼천리』 제6권7호, 1934.6.1., p. 60.

202) 「나정월여사의 작품전람회를 관하고」, 『동아일보』, 1921.3.23., 제1면.

203) 「회화와 조선여자」, 『동아일보』, 1921.2.26. 제3면.

만한 기회와 편의를 가로막고 있' 라고 언급하면서 조선 미술계의 남녀차별적인 구조를 지적하였다. 당시 나혜석의 개인전시회가 여성으로서 최초로 개최된 전시였던 만큼 여성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으며, 더욱이 과거 전통시대부터 회화장르는 남성에게만 허용된 범위로써 근대시기 새롭게 등장한 미술에 까지 남성중심의 경향이 이어져오고 있었다. 그러나 나혜석은 당시 이러한 미술계의 사회적 규범을 깬만한 여성운동이 일어나기를 희망함으로써 여성미술가들이 다수 배출되길 희망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나혜석은 여성으로서 최초로 단독 전시회를 개최한 목적으로는 당시 이례적인 여성미술가의 전시회를 통해 일반 여성들로 하여금 계몽의식을 고취시키며, 여성 미술계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나혜석이 여성운동의 일환으로써 편견적인 사회규범을 타파하기 위해 시도한 개인전시회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나혜석의 진취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미술계에서는 '여성의 개인전시회'에 대해 상반된 반응과 태도를 보였다.

…나(余)는 그 여사(나혜석)의 연래 고심한 결과가 금일에 표현됨을 특히 찬양하는 바도 아니요…다만 우리 미술계의 흥진하는 초일보(初一步)를 우리 일반 공중 앞에서 떼어 놓는 신시험(新試驗)을 관람하고…일반의 애호와 찬성의 다대함을 무한히 감격하게 생각하여 기쁨을 줄이지 못하는 바이다.…일개(一介)여자로 해외에 유학할 새 그림을 연구하여 전무(全無)하고 후에 또한 희유(稀有)할 여자화가가 되어 지금 개인전람회를 개하였으니…204)

이처럼 미술계는 '경성에 최초로 개최된 개인 전람회'라는 부분에만 초점을 두어 미술계가 근대화되는 발전적 현상에 대해 '초일보'나 '신시

204) 「나정월여사의 작품전람회를 관하고」, 『동아일보』, 1921.3.23., 제1면.

힘' 과 같은 단어로 감격을 표현해내었다. 그러나 여성미술가 나혜석의 개인 전람회에 대한 여성의 사회진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여전히 환영하는 태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나혜석을 '일개여자', 즉 보잘것없는 여자라고 표현하였고, 여성 미술계에 대해서 '전무하고 후에 또한 희유' 라고 표현함으로써 남녀차별적인 미술계의 시선을 파악할 수 있다.

나혜석은 이러한 조선사회의 현실에 대응하고자 1933년 2월 4일 시내 수송동(壽松洞)에 '여자미술학사(女子美術學舍)' 를 설립함으로써 기존 미술계의 남녀차별적인 규범을 타파하려는 의지를 실천에 옮겼다.²⁰⁵⁾ 나혜석의 여자미술학사는 연령제한과 소양유무에 구별을 두지 않았으며, "침체되는 조선의 미술계를 위하고, 특히 규중처녀들의 숨은 재주를 발휘시키겠다는"²⁰⁶⁾ 의지로 여자들만의 미술교육기관을 설립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여자미술학사에 대한 설립 목적은 그녀의 취지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내 맘껏 내 숨씨껏 내 정신과 내 계획과 내 희망을 형과 선의 상에
군세게 나타내는 미술의 세계를 바라보고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지 않
습니까. 우리의 심장이 별떡거리지지 않습니까...더구나 무거운 전통과
겹겹의 구속을 한꺼번에 다 끊고 독특하고도 위대한 우리의 잠재력을
활발히 발동시켜서 경이와 개탄과 공축의 대박만인에게 끼어질 방면이
미술의 세계밖에 또 무슨 터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모의 색시들이
오시오. 가치 해 봅시다...²⁰⁷⁾

이처럼 나혜석은 여성의 '잠재력을 활발히 발동' 시키는 '미술의 세계' 만이 여성 미술계에 대한 '무거운 전통과 겹겹의 구속' 을 끊을 수 있다고

205) 나혜석의 '여자미술학사' 의 활동은 1930년대의 활동이지만, 나혜석의 여성미술가이자 여성운동가로서의 주체의식과 실천의지가 발현된 활동이므로 본 단락에서 다루게 되었다.

206) 「나혜석 여사 여자미술학사 창설 시내수송동에」, 『동아일보』, 1933.2.4., 제3면; 「화실의 개방, 파리에서 돌아온 나혜석 여사 여자미술학사」, 『삼천리』 제5권3호, 1933.3.1., p. 59.

207) 「화실의 개방, 파리에서 돌아온 나혜석 여사 여자미술학사」, 『삼천리』 제5권3호, 1933.3.1., p. 59.

언급함으로써 여성들의 미술창작 활동을 통한 주체의식의 형성으로 봉건적 인습과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길 촉구하였다. 이처럼 나혜석은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만 했던 부당한 사회적인 편견과 봉건적 구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자발적인 계몽활동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나혜석은 단체와 연계된 활동 없이 미술교육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조선의 여성문제를 적극적으로 타파하고자 개인적인 여성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여자미술학사는 “창립된 지 얼마 안 된 관계도 있겠지만…아직껏 그 간판의 존재가 세상에 널리 퍼지지 않았다.”²⁰⁸⁾라는 보도내용에 따라 여자미술학사의 운영은 개인이자 여성이 감당하기에는 열악한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²⁰⁹⁾

이처럼 나혜석은 여성미술가로서 여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여성운동가였으며, 1919년 대국민 항일운동인 3·1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족문제에 앞장섰다. 나혜석의 3·1운동의 참여는 일본유학 시절 형성된 민족의식의 발로였으며, 이처럼 그녀가 3·1운동에 가담하였던 사건을 통해 그녀의 민족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1919년 2월 8일에는 일본 동경에서 동경유학생들을 중심으로 2·8독립선언이 있었다. 이는 당시 동경유학생들이 학우회총회를 열고, 이를 기회로 400명의 유학생이 모인 자리에서 독립선언문과 결의문을 낭독한 사건이었다. 이때 일본유학을 통해 선진적 사상을 수용한 여자친목회 회원들도 가담하였으며, 그들 중 김마리아와 황애시덕 등의 일부는 조선으로 귀국하여 국내의 독립운동을 추진하고자 하였다.²¹⁰⁾ 이때 나혜석도 함께 가담하여 정동 교회당에서 김마리아를 만나 이화학당 교사 박인덕(朴仁德, 1896-1980)의 기숙사 방으로 가게 되었다. 그 방에는 나혜석을 비롯한 박인덕, 황애시덕, 김마리아, 김하르논, 손정순(孫正順), 안병

208) 「화실의 개방, 파리에서 돌아온 나혜석 여사 여자미술학사」, 『삼천리』 제5권3호, 1933.3.1., p. 58.

209) 나혜석의 여자미술학사의 운영은 당시 그녀의 이혼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으며, 이로 인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그녀의 삶을 점차 사회로부터 고립시켜버렸다(김형목, 앞의 논문, p. 129).

210) 이승희, 앞의 논문, 2006, pp. 187-188.

숙(安秉淑), 안숙자(安淑子), 신준려(申俊勵, 신체르뇨), 박승일(朴勝一) 등 11명이 모였으며, 당시 나혜석을 포함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기독교인이었다. 특히 김하르논, 박승일, 신준려는 기독교계 여학교인 이화학당 교사였고, 손정순은 이화학당 학생이었다.²¹¹⁾ 이처럼 주로 기독교계의 여성들이 모였던 것은 당시 기독교계 여학교에서 가르친 남녀평등사상과 애국주의와 같은 민족교육 사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기독교계 여학교에 있던 교사 및 학생들이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모임에서는 김마리아가 먼저 입을 열어 어제 남학생들은 먼저 독립운동을 시작하였는데, 여자 쪽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물음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황애시덕은 우선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첫째는 부인 단체를 조직하여 조선의 독립운동을 하는 것, 둘째는 남자 단체와 여자 단체와의 연락을 취하는 것, 셋째는 남자 단체와 여자는 개인 개인이 연락을 취하는 것이었다. 이때 나혜석은 첫째와 둘째에는 찬성하였으나 셋째에는 승낙하지 않았다. 또한 남자 학생 단체에 참가하여 여자 단체도 함께 만세를 부르자고 제의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어 손정순은 독립운동의 자금을 관하여 제의하였으며, 김마리아는 이 단체를 영구히 존속시키기 위해 회장과 간사를 선임해야 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돈은 개개인이 어떻게든지 마련하기로 논의되었으며, 이후 3월 4일에 다시 회합한 가운데 나혜석을 비롯한 황애시덕, 박인덕, 김마리아가 간사로 임명되었으며, 비밀리에 단체가 결성되었다.²¹²⁾ 이처럼 당시 여성들은 남녀평등 사상에 입각하여 남성들과 같은 하나의 주체의식을 가진 인간이자 국가의 일원으로 자각함으로써 조선의 민족적 대중운동에 실천적 의지를 표명

211) 국사편찬위원회, 「나혜석 신문조서」, 앞의 책, p. 298.

212) 국사편찬위원회, 「나혜석 신문조서」, 앞의 책, p. 298.; 국사편찬위원회, 「신준려 신문조서」, 앞의 책, p. 302.

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나혜석은 먼저 3월 3일 자금 조달을 위하여 개성으로 출발하였다. 개성에서는 정화여숙(貞華女塾)의 교장 이정자(李正子)를 만나 지금 경성에서는 독립운동을 위해 여자 단체를 조직하고 있으니, 이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이정자는 찬성은 하지만 교장으로서 참가할 수는 없다고 답하였다. 이어 나혜석은 그 다음날 평양의 정진여학교(貞進女學校)로 가서 삼일여학교 동창생인 교사 박충애(朴忠愛)를 만나 같은 권유를 하였다. 그러자 박충애는 가능한 대로 참가하겠다고 하였으나, 확답은 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나혜석은 개성과 평양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²¹³⁾ 한편 박인덕과 신준려는 3월 4일 회합에서 학생 쪽을 담당하도록 결의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그들은 이화학당의 식당에서 아침 식사 때 모든 학생들에게 시내로 나가 만세를 부르도록 선동하였다.²¹⁴⁾ 또한 나혜석은 진명여학교 3학년 이정희(李正熙) 학생에게 독립선언문을 주어, 이를 교내 학우들에게 배부하여 독립만세를 외칠 것을 권유하였다.²¹⁵⁾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나혜석은 신준려, 황애시덕, 김마리아 등과 함께 체포되어 3월 18일 경성지방검사국에서 심문을 받게 되었으며, 서대문감옥에 투옥되었다가 8월 5일 증거 불충분으로 면소되었다.²¹⁶⁾

이처럼 나혜석을 비롯한 여자친목회 회원들이 3·1운동에 가담하였던 사건에 대한 내용은 당시 그녀들이 검거되어 심문받은 진술서에 의한 것으로 온전히 정확한 내용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여자유학생들이 일본유학 시절 선진적 신사상의 수용으로 인해 형성된 여성의식과 민족의식을 발현시켰던 사건이었으며, 여성들끼리 조직을 이루어 민족운동을 적극적으로

213) 국사편찬위원회, 「나혜석 신문조서」, 앞의 책, p. 299.

214) 국사편찬위원회, 「신준려 신문조서」, 앞의 책, p. 302.; 국사편찬위원회, 「황애시덕 신문조서」, 앞의 책, p. 307.

215) 이현희, 『한국근대여성개화사』, 이우출판사, 1978, p. 244.

216) 박환, 앞의 책, p. 485.

로 면밀하게 주도해 나감으로써 남녀동등권을 실현시킨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조선여성들의 계몽의식을 각성시킨 계기를 이루게 된 선구적인 활동이었다. 이처럼 3·1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던 나혜석의 민족의식은 이후 의열단원에 대한 지원과 협조로도 이어졌다. 이는 당시 의열단원이었던 유석현(劉錫鉉, 1900~1987)의 회고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소위 ‘의열단 사건’으로 나를 비롯한 많은 동지들이 옥중생활을 했을 때, 그의 부인 나혜석씨는 우리를 찾아와 건강을 걱정해주고 민족을 희생시키기 위한 용기를 북돋워 주는 일을 잊지 않았다.…형을 살고 풀려났을 때 나혜석씨가 찾아와 권총 두 자루를 전했다. 그 권총은 일경에 체포되기 전 내가 그의 집에 숨어 있으면서 갖고 있던 것이었다. 그 부부는 그 권총을 잊지 않고 잘 보관해 두었다가 내가 출소해서 전해줄 날을 기다렸던 것이다. 권총 두 자루가 뭐가 대단한 것이었겠는가마는 나는 바로 그들의 우의와 ‘민족 위한 정성’을 전해 받는 것 같아 그 감회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²¹⁷⁾

이처럼 유석현이 나혜석 부부의 ‘우의와 민족을 위한 정성을 전해 받은 것 같다’라고 회고한 바와 같이 당시 나혜석이 의열단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활동을 통해서 그녀의 민족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나혜석은 대중운동의 주체로서 다양한 민족적 계몽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선여성들로 하여금 여성의 주체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데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어 나혜석은 1922년 3월 22일에는 안동현(安東縣) 8번통 태성의원(泰誠醫院)내에 ‘여자야학(女子夜學)’을 개설하여 “단독히 열성으로 교편을 집

217) 유석현, 「잊을 수 없는 사람들」, 『한국경제신문』, 1986.11.6.(김형목, 앞의 논문, pp. 127-128에서 재인용)

(執)한다” 는 운영 방침아래 조선여성의 교육을 위한 보급에 앞장섰다.²¹⁸⁾ 여자야학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나혜석은 당시 여성 단체가 활발히 조직되어 여성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에 속하지 않고 단독으로 여자야학을 운영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나혜석은 여성 계몽교육을 위한 진취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여성운동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또한 나혜석은 1923년 9월에 창립된 ‘고려미술회(高麗美術會)’의 발기인으로서 미술계의 보급 활동에 앞장섰다. 고려미술회는 조선 미술계의 부진을 개탄한 유지화가들이 뜻을 모아 시내 관수동(觀水洞) 40번지 박영래의 집에서 발족한 미술단체로, 나혜석 외에도 여성 발기인으로 서양화가 백남순(白南舜)과 이숙종이 참여하였으며, 남성들은 서양화가 강진구(姜振九), 정규익(丁奎益), 박영래(朴榮來) 등의 주로 서양화가들이 참여하였다.²¹⁹⁾[도21]

특히 고려미술회는 1923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일본생명(日本生命)건물 2층에서 서양화, 동양화, 서예 60여점을 전시하는 제1회 전람회를 개최하여 서양화를 보급하고, 미술계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²²⁰⁾ 이처럼 나혜석을 비롯한 여성미술가 회원들은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 대한 주체의식을 가지고 고려미술회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조선 미술계의 남녀차별적인 구조에 대응하여 봉건적 구습을 극복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나혜석이 여성미술가이자 여성운동가로서 진취적인 활동을 주도해나가는 면모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미술 관련 활동을 통해 그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였던 그녀의 예술관을 다음 그녀의 언급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218) 「안동현 여자야학」, 『동아일보』, 1922.3.22., 제4면.

219) 「고려미술탄생 양화전람회개최」, 『동아일보』, 1923.9.22., 제3면.; 이옥수, 앞의 책, p. 311.

220) 「고려미술의 전람회 금일일까지」, 『동아일보』, 1923.10.1., 제3면.

…우리는 벌써 서양류의 그림을 흉내 낼 때가 아니요. 다만 서양의 화구와 필을 사용하고, 서양의 화포를 사용함으로 우리는 임의 그 묘법이 라든지 용구에 대한 선택이 있는 동시에 향토라든지 국민성을 통한 개성의 표현은 순연한 서양의 풍과 반드시 달라야 할 조선 특수성의 표현력을 가지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²²¹⁾

이는 나혜석이 1924년 제3회 조선미전을 관람하고 쓴 내용이며, 나혜석은 그림을 그릴 때에는 단순히 서양의 그림을 흉내 내지 말고, 서양의 묘법이나 용구를 차용하되 조선의 ‘향토’나 ‘국민성’과 같은 ‘조선 특수성의 표현력’을 가지며 그려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나혜석이 일본유학 시절에 일본의 ‘문화적 인격주의’에 대한 영향으로 기인한 그녀의 예술관임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세계를 민주주의로 개편할 것을 표방하는 세계개조론이 유행하게 되었다. ‘개조(reconstruction)’라는 용어는 ‘파괴한 것을 다시 창조한다’는 의미로, 억압과 착취가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문제가 완전히 개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²²⁾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 ‘문화가치’와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개인적 자유가 ‘인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인격주의’라는 문화주의가 수용되어 전개되었다. 이는 개인의 인격 형성에 의해 신문화가 창조되어 중요한 ‘문화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즉 인격이 형성된 개인은 사회적 선각자로서 일반 대중들의 계몽의식을 고취시켜야함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문화적 인격주의’는 1910년대 사회진화론적 사고를 견비하였던 조선유학생들 사이에서도 크게 유행하게 되어 세계의 문화적 진보에 기

221) 「일년만에 본 경성의 잡감」, 『개벽』 49호, 1924.7.1., pp. 87-88.

222) 정미량, 앞의 논문, pp. 44-46.

여하는 자유로운 창조경쟁 및 창조투쟁의 인식으로 전환되었다.²²³⁾ 이에 따라 미술 방면의 조선유학생들 사이에서도 영향을 끼쳐 민족의 인격 향상에 미술이 기여하는 관점으로 인식되어 문화적 인격주의 미술론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의 자연미를 미술창작으로 구현하는 것이 독창적 창작의 옳은 행위인 것으로 여김으로써 사생적 리얼리즘 또는 향토적 조선색의 이념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²²⁴⁾ 따라서 나혜석은 그녀의 민족의식에 입각하여 조선의 ‘향토’와 ‘국민성’과 같은 조선만의 특수한 자연미를 구현하는 것이 미술창작의 궁극적인 경지인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이처럼 나혜석은 자아가 각성된 여성미술가이자 여성운동가로서 조선의 자연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민족적 예술관을 견비함으로써 근대기 조선 미술계의 문화적 진보에 앞장섰던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민족의식에 대한 신념은 1934년 5월 『삼천리』에서 ‘조선에서 태어난 것이 행복한가 불행한가?’라는 질문에 나혜석은 “...조선 사람의 몸과 마음은 번민의 뭉텅입니다. 즉 일념(一念)으로 가질 때입니다. 이 일념 중에서 흥하든지 망하든지 결단이 나는 것이니 지금이 어찌 행복하지 않으리까.”²²⁵⁾라고 대답하였던 내용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나혜석은 일제의 통치로 ‘몸과 마음은 번민의 뭉텅이’인 조선 사람은 ‘일념’, 즉 조선인으로서의 민족의식을 갖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언급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나혜석은 식민지 시기의 여성운동가로서 민족문제를 기본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념 하에 여성미술가로서 자유주의적 여권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나혜석의 전반적인 여성운동은 주로 개인으로 실천하여 여성운동단체에 통합되지 못하였으며, 식민지하에 가부장제와 더불어 자본주의에 억압

223) 정미량, 앞의 논문, pp. 47-49.

224) 홍선표, 「고희동의 신미술운동과 창작세계」, 『미술사논단』 제38권, 한국미술연구소, 2014, p. 164.

225) 나혜석, 「조선에서 태어난 것이 행복한가 불행한가」, 『삼천리』 제6권5호, 1934.5.1., p. 81.

받고 있던 민중여성들에 대해서는 간과하였던 한계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혜석의 자유주의 여권운동은 1910년대 여성운동의 발단 단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1920년대 본격적인 여성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해준 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2) 1920년대 여성운동의 발전과 전개

1919년 3·1운동에서 여성들의 대중적 진출은 민족을 위한 여성상을 기대하게 되었으며, 교육을 통해 주체의식을 깨우친 신여성들이 등장하여 여성문제와 민족문제를 공유하면서 공개적인 사회영역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20년대에 들어서면 여성들이 ‘단체’라는 조직체 안으로 묶여 여성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20년대의 여성운동은 크게 초반의 민족주의계열의 여성단체와 중반의 사회주의계열의 여성단체의 두 축으로 나누어졌으며, 1920년대 후반에는 두 계열이 통합된 ‘근우회’라는 여성단체가 등장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의 여성운동은 1910년대의 여성운동에 비해 보다 발전된 체계적인 활동으로 다변화되어 복합적으로 전개되었다.

① 방무길의 민족주의 여성단체의 여성 계몽운동

방무길은 1924년 제3회 조선미전의 입선 수상 기념 인터뷰를 통하여 근대식 교육을 받은 신여성으로서 여성의 계몽의식을 드러내었다.

...미술전람회가 처음 열렸을 때에는 여자의 출품자가 겨우 한 명 밖에 되지 못하였고, 제2회에는 두 명에 불과하던 것이 금년에는 여자의 출품이 많고, 그 중 입선과 입상된 사람이 적지 않다 함은 무엇보다 기쁜 일

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조선에서도 여자들이 모여서 공부할 만한 미술 연구기관이 없음을 한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현상으로 여자계에 미술이 차차 진보되어 가면 불원간에 그러한 기관도 생길 줄로 아노라.²²⁶⁾

이처럼 방무길은 남성의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선미전에서 여성의 출품자와 입상자 수가 점차 증가한 미술계의 현상에 대하여 기뻐하였다. 그러나 조선 미술계에는 여성들끼리 모여서 공부할만한 미술 연구기관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방무길은 남녀차별적인 미술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여성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기존의 남성 중심이었던 조선 미술계에서 여성미술가들의 위상이 점차 부각되는 상황에 따라 여성들의 존재 가치와 입지를 확고히 다져야함을 제시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그녀의 계몽의식은 ‘조선여자청년회’의 여성단체에서 발기인으로 참여한 활동과 조선의 규수들을 위한 서화연구 단체인 ‘창신서화회’에서 부회장을 역임한 활동을 통해서 나타났다.

먼저 방무길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조선여자청년회’는 1920년대 초에 전국적으로 결성된 초기 여자청년회들 중에 하나로 민족주의계열의 여성 계몽운동단체이다. 이는 1921년 4월 서울 관수동(觀水洞)에서 방무길을 비롯한 신알배티(申謁排攬), 성의경(成義敬), 임영신(任永信) 등이 참여하여 여성의 문화향상을 촉진하고 생활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결성되었으며,²²⁷⁾ 신알배티를 회장으로 추대하여 여성의 계몽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에 따라 정식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가정부녀를 가르치기 위해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로 과학과 영어, 보건위생, 아이를 기르는 방법 등의 부인강좌를 실시하여 여성의 문화향상을 촉진하고 보통교육을 보급하기 위한 활동

226) 「미전의 이채」, 『매일신보』, 1924.6.3., 제3면.

227) 이옥수, 앞의 책, p. 358.

을 시행하였으며, ‘조선여자학원(朝鮮女子學院)’을 상설하였다.²²⁸⁾ 1923년 5월 10일부터는 여자강습소를 개최하여 조선어, 한문, 일어, 산술, 수예를 강습하였고, 1924년 3월부터는 야학강습을 확장하여 13세 이상의 가정부녀이면 누구든지 입학을 허가하여 여자 계몽교육에 힘쓰고자 하였다.²²⁹⁾ 특히 1922년 6월 15일에 주최한 “신일용(辛日鎔)의 ‘자각한 여성의 사명’, 손정규(孫貞奎)의 ‘조선여자의 각성’이라는 제목의 강연회”와 같은 계몽강연회를 자주 개최하였으며,²³⁰⁾ 1924년 중앙청년회관에서는 ‘가정의 평화는 여자에게 있느냐? 남자에게 있느냐?’라는 제목의 토론회와 ‘이혼의 원인이 남자에게 많으냐? 여자에게 많으냐?’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여성 의식을 각성시키기 위한 각종 강연회 및 토론회를 다수 개최하였다.²³¹⁾

이처럼 조선여자청년회는 조선 여성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적극적인 계몽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24년부터는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와 공동주최하는 부인 견학단을 조직하여 매년 봄·가을, 매주 토요일마다 부인들에게 은행, 신문사, 전화교환소, 제사회사, 견직회사, 전기회사, 수도국, 조폐국 등을 견학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이는 당시 여성운동계의 사회주의화 경향에 일부 영향을 받은 측면으로써 조선여성들의 경제적 해방의식을 촉구하는 활동이었다. 이처럼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른 여성운동의 흐름에 따라 여성을 위한 선진적인 활동을 실천하였던 조선여자청년회의 부인견학단은 회를 거듭 할수록 수백 명의 부인들이 몰려들었을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게 되었다.²³²⁾ 이는 남성의 역할로 인식되었던 사회적·경제적

228) 이옥수, 앞의 책, p. 371.; 「조선여자학원도 제1회 졸업생 두 사람을 내었다」, 『동아일보』, 1924.3.26., 제2면.; 「조선여자청년회는 경성도서관에 이전」, 『동아일보』, 1923.10.1., 제3면.

229) 「여자강습을 개최」, 『조선일보』, 1923.5.5., 제3면; 「조선여자청년회의 야학과 확장」, 『동아일보』, 1924.3.15., 제2면.

230) 『매일신보』, 1922.6.15.; “금구오일 오후 일곱시경에 조선여자청년회 주최로 특별대강연회를 중로 중앙청년회관에서 개최한다는데 매우 재미있을 모양이라 하며, 입장료는 보통 이십전이 오 학생들은 특별히 십오전이며 그 연제와 연사는 다음과 같더라. ‘칸트’의 이백년 기념 김창제(金昶濟), 미정(未定) 김밀리사(金密理斯)” (「조선여자특별강연」, 『동아일보』, 1924.2.9., 제2면.)

231) 이옥수, 앞의 책, pp. 371-372.

232) 부인 견학단은 1924년 조선여자청년회를 탐방한 조선일보(朝鮮日報) 기자 최은희(崔恩喜)와

활동 공간에 점차 여성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남녀를 구획하지 않는 여성의 주체의식과 계몽의식의 형성에 자극제가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조선여자청년회의 부인견학단에서 주안점을 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계몽교육 활동은 조선여자청년회의 회장인 신알배터가 ‘조선여자학원의 교사들이 졸업생들에게 부탁’ 한 내용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우리 학원은 날로 □창하여 나아갑니다. 특히 졸업생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무엇보다도 속정신이 완전한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현대 교육을 받은 여학생들을 보면 대개는 속정신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신세를 망치고, 하락의 추□으로 떨어지기가 열이면 아홉입니다. 또한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배운 바 무엇이든지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노동이든지 무엇이든지 직업은 상관없으니, 이 직업을 중심으로 하여 가지고 무슨 일에 종사하던지 활동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 독립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녀평등이니 무엇이니 주장하지 아니 하여도 자연히 남녀가 평등하여 질 수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무대는 어디든지 좋습니다...흔히는 자기 고향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나감다마는 이것은 너무나 자각이 없는 행동이라고 하겠지요. 결혼 문제에 대하여서는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인 만큼 소홀히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이성이 모여서 백년을 산다는 것을 자기들러리 한다는 것도 그다지 찬성할 수 없는 일입니다....²³³⁾

이처럼 신알배터는 조선여자학원의 졸업생들에게 ‘경제적 독립을 도모하’여 ‘직업을 가지고 활동’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는 곧 ‘속정신이

회장 신알배터가 조직하였다(이옥수, 앞의 책, p. 372).

233) 「졸업생을 보내면서 선생님들의 부탁, 내 생활의 경제적 독립을 도모하라. 남녀평등은 여기에서. 조선여자학원 신알베트 선생」, 『중외일보』, 1928.3.16., 제3면.

완전한 여성'인 것으로 언급하였다. 즉 여성이 결혼을 하여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로만 산다기보다는, 여성으로서의 주체의식을 기반으로 교육을 통해 자신이 배웠던 것을 전문화시켜 직업을 가짐으로써 사회적으로 활동해야 남녀가 평등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조선여자청년회는 각종 토론회와 강습회를 비롯한 다양한 여성 계몽교육을 전개함으로써 남녀평등 사상에 기초한 조선여성의 주체의식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선여자청년회의 여성 계몽운동 가운데 방무길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1924년경 조선여자청년회의 유지비용을 지원해주었던 것 이외에는 확인되지 않으나,²³⁴⁾ 조선여자청년회는 방무길의 계몽의식에 대한 실천의지가 함께 발현되어 전개된 여성단체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방무길이 1922년 여성만을 별도로 서화를 지도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창신서화회'에서 부회장을 역임한 활동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창신서화회'는 "청년 남녀에 대한 미술사상을 함양하여 그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규수와 밑 재자들을 모집하여 서화를 가르친다"는 목적으로 1922년 12월 공평동(公平洞) 2번지에 설립된 조선의 규수들을 위주로 교육하는 여성 계몽운동단체의 일환인 서화교육기관이다.²³⁵⁾ 이러한 창신서화회에서 부회장을 역임한 방무길은 여성을 위한 서화 교육단체를 이끌면서 여성 계몽교육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였으며, 서화를 근대식 가치로 두고자 결성하였던 것이다.

창신서화회의 회장은 최송설당(崔松雪堂)이었으며, 간사 12명과 평의원으로 는 위관식(魏寬植) 외 4명을 두었다. 강사는 이규채(李圭彩)와 김권수(金權洙)였으며, 고문으로는 이완용(李完用)을 두었다.²³⁶⁾ 창신서화회에 대한 기사

234) 「여자청년회의 경비분담」, 『시대일보』, 1924.4.7., 제1면.; 「세상에 알게 된 조선여자청년회」, 『동아일보』, 1924.4.8., 제2면.

235) 「창신서화 경신」, 『매일신보』, 1923.3.31., 제5면.

236) 「창신서화 경신」, 『매일신보』, 1923.3.31., 제5면.

내용으로는 “정성을 다하여 쓰고 그린 서화 4,5폭을 이왕비전하(二王妃殿下, 순정효황후)께 헌상하는 동시에 또한 재등(齋藤)총독²³⁷에게도 3,4폭을 진정하여…이것을 기회로 내부를 일층 확장하고 재단법인으로 하던가 혹은 사단법인으로 기초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언급되었다. 이에 따라 창신서화회는 총독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살펴 본 김규진의 서화연구회와 같은 성격의 운영 방식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당시 조선의 미술계에서는 점차 창작에 중점을 둔 근대적인 미술 분야가 떠오르게 되면서 사군자와 같은 전통적 서화 분야는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는 과도기적 단계 속에서 유지시켜야 하는 위기에 직면해있었다. 이로 인해 창신서화회도 근대기 서화계의 존립을 위해 기댈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한계점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신서화회는 여성 위주의 여성 교육단체로써 서화 분야를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던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

창신서화회는 1922년 12월 29일부터 이규채와 김권수 두 스승의 가르침 아래 김정수(金貞洙), 김효진(金孝鎭), 정기임(鄭己妊), 이정환(李貞煥)의 여성 회원들과 이정만(李正萬)이라는 수재 청년까지 모두 다섯 명의 초창기 회원으로 시작하였다.²³⁸ 그러다 “더욱 내부를 확장하고 서화에 뜻을 두는 일반 규수와 밑 재자들을 다수히 모집한다더라”²³⁹라는 공고내용에 따라 일반 규수들을 주요 회원으로 모집하였던 것이며, 이정만과 같은 남성 회원들도 일부 포함하고 있었던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창신서화회는 1923년 3월 17,18일 이틀에 걸쳐 본사 내청각(來靑閣)에서 “규수작가들의 작품을 세상에 소개하고, 성적을 발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신서화전람회’를 개최하였는데,²⁴⁰ 이러한 ‘창신서화전람회’의 당일 상황을 설명한 기사내용

237)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1858~1936)는 일본의 해군대장 출신이며, 1919년 조선의 제3대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238) 「규수화가가 모여서」, 『매일신보』, 1923.2.28., 제3면.

239) 「규수와 재자를 모집」, 『매일신보』, 1923.3.25., 제3면.

을 통해서 창신서화회의 교습과 운영 방식 등을 파악할 수 있다.[도22,23]

창신서화전람회에서는 “해서와 초서와 전서 등 기타 여러 가지…각가지체의 글씨며 또는 내청각을 이윽히 화초받으로 장식하는 듯한 살은(살아있는) 그림 등 백오십여 폭이 질서 있게 진열” 되어 있었다고 한다.²⁴¹⁾ 이를 통해 창신서화회의 교습은 주로 해서, 초서, 전서 등의 글씨(書)와 화조화 및 사군자 등을 교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글이나 그림을 사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석에서 팔기도 하였는지라”²⁴²⁾라는 내용에 따라 전람회를 통해 규수작가들의 작품을 판매하기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방무길은 “내가 붓 한 자루를 휘둘러서 남의 실내장식에 귀중품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입니까” 라고 언급한 바 있다.²⁴³⁾ 이처럼 방무길은 자신의 전문적 분야로 일반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적 활동을 감행할 수 있는 것이 스스로의 자랑인 것으로 여겼던 주체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창신서화전람회를 통해 여성 회원들이 직접 그린 작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방무길이 자랑으로 언급한 것처럼 여성이 실력 있는 전문인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인정받아 입지를 다지는 활동인 것으로써 여성들의 자아실현을 고취시키는 여성단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전람회의 한 관람자가 ‘이게 여자의 글씨인가’ 하는 경탄의 말처럼 당시 남성 위주의 분야였던 서화계에서 남성서화가들 못지않게 “그 필법이 자못 놀라울만”²⁴⁴⁾한 여성들의 서화작품을 공개하고자한 것은 조선 서화계 및 일반 대중들에 있어서는 새롭고, 혁신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창신서화전람회를 위해 작품을 출품한 창신서화회의 규수들에 대해서 “희망

240) 「규수화가가 모여서」, 『매일신보』, 1923.2.28., 제3면.; 「규수서화전람회」, 『매일신보』, 1923.3.14., 제3면.

241) 「초일의 성황인 서화전」, 『매일신보』, 1923.3.18., 제3면.

242) 「초일의 성황인 서화전」, 『매일신보』, 1923.3.18., 제3면.

243) 「직업부인의 자랑과 비애(속), 대자연 앞에 놓고 화폭 펴는 여성들, 여서화가, 실내를 장식」, 『조선일보』, 1928.1.1., 제4면.

244) 「규수화가가 모여서」, 『매일신보』, 1923.2.28., 제3면.

이 뛰노는 가슴을 진정치 못해한다”²⁴⁵⁾라고 묘사되었다. 이처럼 당시 여성들의 작품이 세상에 발표되는 상황은 조선사회에서는 여전히 이례적이고 선구적인 활동이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창신서화전람회는 3월 17일 오전10시부터 개최되었는데, “관람자로 만원(滿員), 갖가지 체의 글씨와 그림을 보고 모두 경탄을 마지않”았으며, “정각부터 물밀 듯 사방에서 모여드는 관중, …정오를 지나서는 자못 대성황을 이루었다.”²⁴⁶⁾라는 기사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상당히 큰 성황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관중들) 중에는 부녀와 여학생들도 다수하여”²⁴⁷⁾라는 내용을 통해 서화를 전문적으로 배운 규수서화가들과 같은 여성으로서 일반 여성들 다수가 방문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창신서화회가 남녀 구분 없이 여성들의 서화작품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개시함으로써 조선여성들을 비롯한 일반대중들의 계몽의식과 직업적 사상을 고취시키는 데에 기여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처럼 창신서화회는 1923년 3월 17일 개최된 창신서화전람회를 시작으로 하여 같은 해 9월말까지는 “남선(남조선)지방을 순회하며 전람회를 개최”하였다.²⁴⁸⁾ 이에 따라 8월 13에는 경상북도 동래(東萊), 8월 20일에는 경상남도 밀양(密陽), 9월 3일에는 전라북도 전주(全州)등에 방문하여 각지의 청년회(靑年會)를 비롯한 조선(朝鮮)·매일(每日)·동아(東亞)의 각 신문지국의 후원을 받아 서화전람회를 개최하였으며,²⁴⁹⁾ 각지마다 “유지의 기증도 많”았고, “관람자가 수백명에 달”하였다는 기사내용으로 창신서화회의 지방순

245) 「규수서화전람은 금일부터 본사에서」, 『매일신보』, 1923.3.17., 제3면.

246) 「초일의 성황인 서화전」, 『매일신보』, 1923.3.18., 제3면.

247) 「초일의 성황인 서화전」, 『매일신보』, 1923.3.18., 제3면.

248) 「규수화가 활동」, 『매일신보』, 1923.9.28., 제3면.

249) 경상북도 동래는 ‘동래여자청년회(東萊女子靑年會)와 부인회(婦人會), 남자청년회 본사 동래분국의 후원’ (「여자서화전람 동래에서」 『동아일보』, 1923.8.22., 제4면.); 경상남도 밀양은 ‘밀양청년회(密陽靑年會)와 여자청년회 본사 밀양지국 후원’ (「규수서화전람」, 『동아일보』, 1923.8.29., 제4면.); 전라북도 전주는 ‘전주청년회(全州靑年會) 전주서화연구회(全州書畫硏究會), 조선, 매일, 동아 각 신문지국 후원’ (「규수서화전람 전주에서 개최」, 『동아일보』, 1923.9.12., 제4면).

회 전람회 개최도 큰 성황을 이루었던 것을 알 수 있다.²⁵⁰⁾ 이에 따라 창신서화회를 후원하는 단체들은 주로 청년회와 같은 청년운동 단체였던 점을 미루어보아 창신서화회는 청년단체들과 연계되어 진취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민족주의적 여성 계몽단체로서 여성운동을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창신서화회는 “각지에서 많은 환영과 찬성을 받다가 일전 경성에 돌아온 후 작 27일로부터 신학기의 개학을 시작하였는데, 후원은 현재 여자 19인 남자 1인이라 하며, 내월(來月)에 개최되는 부업공진회²⁵¹⁾를 기회로 하여 전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더라.”²⁵²⁾라는 신문내용을 통해 창신서화회는 1923년 9월 27일부터 신학기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1924년 10월에 개최되는 부업공진회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인파가 몰려들 것을 예상하여 이를 기회삼아 또 다시 전람회 개최를 추진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²⁵³⁾ 이처럼 서화연구회는 여성 계몽단체의 서화 연구기관으로써 서화의 존립과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창신서화회는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일반 전람회 및 전국 순회 전람회를 통해 여성 서화가들의 위상을 높이고, 이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창신서화회에서 부회장이

250) 「여자서화전람 동래에서」 『동아일보』, 1923.8.22., 제4면.; 「규수서화전람」, 『동아일보』, 1923.8.29., 제4면.; 「규수서화전람 전주에서 개최」, 『동아일보』, 1923.9.12., 제4면.

251) 부업공진회(副業共進會)는 조선 농업 정책으로, 이에 대한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1910년대 말 일본 본토의 식량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1920년대 조선 농업정책으로 산미증식계획(産米増殖計劃)을 수립하여, 조선은 식량 및 원료 공급지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 산미증식계획을 통해 증산된 쌀의 대부분은 일본으로 반출되었으며 조선인의 연간 쌀 소비량은 감소되는 결과를 불러왔다. 또 소농 및 중소 토지소유자의 몰락이 가속화되었고 농가 부채가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와 조선농회(朝鮮農會)가 주관으로 1923년 10월 5일 경북공에서 ‘조선의 부업 장려’라는 목표를 내걸고 부업공진회는 개최한 것이다. 조선 농촌에 부업장려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농촌 피폐의 주된 원인인 소작쟁의, 농민의 해외 이주, 중소자작농의 감소 등과 같은 근원적 문제 해결 없이 지엽적인 해결책일 뿐인 부업 장려로는 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으며, 일회성의 공진회 개최로는 부업장려 또한 이루어질 수 없었다. 특히 조선인들이 얻는 이득은 극히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정소영, 「1923년 조선부업품 공진회의 개최와 영향」, 『승실사학』 제38권, 승실사학회, 2017, pp. 133-134, 174-175).

252) 「규수화가 활동」, 『매일신보』, 1923.9.28., 제3면.

253) 창신서화회에 대한 추후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1923년 9월 28일자 『매일신보』에 실린 「규수화가 활동」의 기사내용을 끝으로 찾아볼 수 없다.

로 활동한 방무길의 여성 계몽의식이 투영된 단체임과 동시에 서화를 남성 위주의 분야가 아닌 남녀평등한 근대식 가치로 두고자 앞장섰던 활동이었다.

특히 당시 서화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생들도 서화를 공부하여 조선미전 서화부에서 입선을 수상하는 등, 서화를 통해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²⁵⁴⁾ 이는 기생이라는 직업으로 인해 사회적 억압을 받았던 여성들도 능동적인 배움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주체의식을 형성하였던 것을 나타내며, 여성의 계몽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시 기생에 대한 기사내용과 『조선일보』에 수록된 방무길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여전히 극복해야 할 여성의 계급해방의 문제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웃음을 파는 기생까지 회를 거듭하여 입선 입상의 영을 입는 자가 섞이어서 일반적으로 하여금 예술의 경계에 미혹케 하고 선전의 위권을 의심케 함은 유감할 바이다. ... 일기녀의 화(畫)가 아무리 완벽에 가깝다 할지라도 주간취객의 여흥을 돋우는 한 위안거리에는 지나지 못할지라²⁵⁵⁾

조선에서는 묵화(墨畵)라면 의례히 기생이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254) 오귀숙(虹月 吳貴淑)은 가정형편으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열네 살 되는 해에 기생이 되었다. 학교를 마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김규진과 김용진에게서 서화를 배웠으며, 제3회 조선미술전람회 사군자부에 〈난(蘭)〉을 출품하여 방무길과 함께 입선을 수상하였다(「미전의 이채」, 『매일신보』, 1924.6.2.~5.); 강취운(姜翠雲, 1905-?)은 평양 출신의 기생으로 기명은 계화(桂花)였으며, 6년 동안 평양 기생 권번에 있을 때부터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여 제8회 조선미전 사군자부에 〈청난(請蘭)〉을 출품하여 입선하였다(「기생 ‘강취운’ 이가 만록에 홍일점으로」, 『조선일보』, 1929.9.1.); 강윤화(香坡 姜潤嬋, 1908-?)는 평양권번의 기생으로 15세 되던 해에 평양에서 산월(山月)이라는 기명으로 전기권번에 기생 신분을 등록하였으며, 이후 화백 김일재(金一齋)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아 매와 난을 6년 동안 배움으로써 제10회 조선미전 사군자부에 〈매(每)〉로 입선하였다. 그녀는 이에 대한 인터뷰에서 “...여러 손님께서 시험적으로 하나 그려보라고 하기에 붓을 들기는 하였으나 밤낮 손님께에 불려 다니기에 한시라도 정력을 다하여 보지 못한 것인데.....” 라고 언급한 바 있다(「미전초입선 영예를 얻은 예원의 군재」, 『동아일보』, 1931.5.27., 제4면).

255) 「논설: 선전 개기를 앞에 두고」, 『매일신보』, 1927.5.12.

다. 이것이 조선 여자로서 아직 서화가가 드문 이때에 내가 맞보는 비애
올시다.²⁵⁶⁾

당시 기생에 대한 기사내용을 통해서 미술계에서는 기생의 수상작에 대해서 ‘주간취객의 여흥을 돋우는 한 위안거리에 지나지 못할지라’ 라고 언급하면서 기생 신분에 대해 비판적이고 차별적인 시각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방무길의 인터뷰 내용에서 그녀는 ‘목화라면 의례히 기생이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내가 맞보는 비애’ 라고 언급하여 방무길이 여자 서화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선구자적 계몽의식을 지닌 신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의 계층에 대한 인식적 차이를 어느 정도 두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민족주의계열의 여성운동이 개량주의적 여권론에 머무른 채 여성의 계급과 계층에 대한 문제에 해답을 찾지 못하였던 점을 반증한다. 근대시기 미술 분야에서 서화는 여성들에게도 점차 허용이 되었으나, 계층적·계급적 차별과 편견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1920년대 초기에 민족주의 여성단체들은 사회의 총체적 구조 속에서 여성의 억압을 분석하기 보다는 가정생활개량이나 남존여비사상의 문제와 같은 남녀평등론 등의 남성과의 성차별적 대립구도에서의 여성문제와 여성의 인격 형성을 위한 계몽교육으로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여성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던 한계점이 있었다.²⁵⁷⁾ 이에 따라 민족주의계열의 여성운동은 새로운 운동 방향의 모색과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256) 「직업부인의 자랑과 비애(속), 대자연 앞에 놓고 화폭 펴는 여성들, 여서화가, 실내를 장식」, 『조선일보』, 1928.1.1., 제4면.

257) 이승희, 「1920년 여성해방론에 관한 연구」, 『역사와 경계』 제25,26권, 부산경남사학회, 1994, pp. 188-189.

② 정철성의 사회주의 여성단체의 여성해방운동과 근우회 활동

정철성은 1922년과 1925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유학을 단행하였다. 그녀는 일본유학을 통해서 자수 및 편물과로 근대식 신교육을 받았으며, 일본에 유입된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으로 귀국 후 여성단체를 조직하여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에 관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정철성의 여성운동의 전개 양상은 1922년 1차 일본유학 이후와 1925년 2차 일본유학 이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922년 정철성의 1차 일본유학은 1년간의 유학생생활을 끝으로 1923년에 귀국하였으며, 그녀는 “다시 조선에 건너와 대구에 여청을 조직하고 경성에 여성동우회를 조직하며 전선청년대회대표의 한 사람으로 활동” 하였다고 회고한 바 있다.²⁵⁸⁾ 이처럼 정철성은 먼저 고향인 대구로 돌아가 본격적인 여성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대구에는 지금까지 여자계의 단체가 없었고, 오직 종교 부속의 1,2개의 여자청년회라는 것이 있어서 미약하게나마 여자계의 소식을 말하여 왔을 따름이었다.”²⁵⁹⁾ 이에 따라 정철성은 1923년 10월 17일에 대구 명신학교 강당에서 신여성들 서복주(徐福株), 김귀조(金貴祚), 조영수(趙永守), 이원임(李元任) 등과 함께 ‘대구여자청년회(大邱女子青年會)’를 조직하였다.²⁶⁰⁾ 앞서 언급하였던 1920년대의 초기 여자청년회 단체인 경성의 ‘조선여자청년회’와 경상도 지역의 일부 여자청년회 단체들은 주로 1921년에 조직되었던 시기에 비해서 대구여자청년회는 다소 늦은 시기인 1923년에 조직되었다.²⁶¹⁾ 이처럼 대구 지역의 여성운동 전개가

258) 「저명인물 일대기」, 『삼천리』 제9권1호, 1937.1.1., p. 40.

259) 「대구여자청년 고고의성을 시발」, 『동아일보』, 1923.10.24., 제4면.

260) 「대구여자청년 고고의성을 시발」, 『동아일보』, 1923.10.24., 제4면.

261) 1920년대 경상도 지역의 여자청년회 단체는 1921년 6월 부산여자청년회(釜山女子青年會) 조직, 1921년 9월 마산여자청년회(馬山女子青年會) 조직, 1921년 9월 기장여자청년회(機張女子青年會) 조직, 1921년 10월 김해여자청년회(金海女子青年會) 조직, 1921년 12월 밀양여자청년회(密陽女子青年會) 등이 조직되었다(박혜란, 앞의 책, pp. 172-174).

미약했던 것으로 보아 정철성은 1차 일본유학 후, 대구 지역을 시작으로 하여 여성운동 단체를 발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1924년 5월 23일 경성 내의 경운동(慶雲洞) 천도교당에서 발회식이 거행된 가운데 정철성을 비롯한 박원희(朴元熙, 1898-1928), 정중명(鄭鍾鳴, 1895-?), 허정숙(許貞淑, 1902-1991), 주세죽(朱世竹, 1901-1953) 등의 대표적 인 사회주의계열의 여성운동가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사회주의적 여성해방론을 표방한 여성단체인 ‘조선여성동우회(朝鮮女性同友會, 이하 여성동우회로 칭함)’가 최초로 조직되었다.²⁶²⁾ ‘여성동우회’는 정철성이 두 번째로 활동한 여성단체로써 “우리는 성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두 성의 압박노예가 되고 말았다. …우리도 온갖 우리의 것을 찾아야하겠다”고 단결하여 여성들의 봉건적 압박의 개혁과 경제적 독립을 주장하였으며, “본회는 사회진화법칙에 의하여 신사회의 건설과 여성해방운동에 입할 일군의 양성과 훈련을 기하고, 본회는 조선여성해방운동에 참가할 여성의 단결을 기함.”이라는 사회주의 여성해방운동 사상에 입각한 진보적인 성격의 강령을 내걸었다.²⁶³⁾ 이에 따라 여성동우회는 “우리 여성을 해방함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현대 경제조직을 개혁하려는 사회운동자와 악수를 하여서 무산계급해방운동

262) 「청아한 주악리에 여성운동발회식」, 『동아일보』, 1924.4.25., 제4면.; 「여성동우총회」, 『동아일보』, 1925.2.26., 제4면.; 「조선여성운동의 사적고찰」, 『동아일보』, 1928.1.6., 제6면.

263) 「여성동우 발회식은」, 『동아일보』, 1924.5.22., 제4면.; “조선여성동우회의 강령과 선언 발표에 의하면 ①인류의 역사가 필연적 법칙으로 변환하여가는 과정 중에 여성이 남성의 횡포와 유린 아래에 받아오던 기한과 굴욕과 질병으로 사람다운 생활을 그대로 하지 못한 비참하고 잔혹한 것을 통절하게 말하였다. ②그러하여 여자는 자못 가정과 임금과 성의 노예가 될 뿐이오. 각 방면으로 생활에 필요한 일을 힘껏 다하여 사회에 공헌을 하여왔으나 횡포한 남성들이 여성에게 주는 보수는 교육을 거절하고 모성을 파괴할 뿐이라 하였다. ③더욱 조선여성은 그 위에 동양풍 도덕의 질곡에서 울고 잇게 하니 이러한 비인간적 생활에 분개하여 군세게 군세게 결속하자 하였다. ④모든 구속과 학대에서 울던 조선여성이 사람다운 각성으로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고고한 첫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름답고 알뜰한 소리요. 힘이 굳센 선언이다. ⑤뒤뚱기지 아니하면 어니 될 역사적 과도기에 이른 현대 사람이 어느 누구나 해방을 부르짖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은 조선 사람이야 말로 크게 소리치며 군세게 나아가야할 것이 해방운동이요, 단결이다. ⑥그러나 우리는 여성동우회가 우리의 사회진화정도에 합당한 운동방식으로 나아가갈 뿐이 아니라 참되고 착한 정성으로 이 위대한 일에 충실하기를 바란다”(「조선여성동우회」, 『동아일보』, 1924.4.25., 제4면)

에 노력해야한다” 라는 남성과의 투쟁이 아닌 전체 무산계급운동의 일환이라는 인식으로써 여성운동의 선전 활동에 힘을 기울였다.²⁶⁴⁾ 이처럼 여성동우회는 무산계급의 여성문제에 대한 강연회 개최, 연구반을 조직하여 매주 자체 이론학습을 진행함으로써 여성해방운동을 전개하였다.²⁶⁵⁾

이처럼 최초의 사회주의 사상을 표방한 여성단체인 경성의 여성동우회가 창립된 이후 1925년도에 이르러 “경성을 위시하여 각 지방에 사회주의적 목표 하에 다수의 여자청년회가 조직 또는 재래의 것(민족주의적·종교적 여성단체)이 전환” 되었다.²⁶⁶⁾ 이러한 지방의 사회주의적 여성운동의 발전에 있어서는 지방의 여성단체들과 여성동우회 간의 연결 관계가 주목되는데, 이를 대표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던 인물로 정칠성을 꼽을 수 있다. 정칠성은 당시 여성동우회에서 활동함과 동시에 대구여자청년회의 위원으로도 함께 활동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칠성은 1925년 3월 8일 ‘국제 부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3월 7일 대구여자청년회에서 주최하는 기념강연회에 연사로 참여하여 ‘국제 부인운동의 의의’라는 연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²⁶⁷⁾ 이처럼 ‘국제 부인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무산계급의 부인을 위해 지정된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써 여성동우회에서도 국제 부인의 날을 위해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무산계급 여성들을 기념하였다.²⁶⁸⁾ 이에 따라 대구여자청년회는 초기에 민족주의적 여성단체의 성격으로 출발하였다가 중도에 지방 여성운동의 사회주의화로 인해 사회주의적 성격의 여성단체로 전환하게 되었던 사실을 증명해준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주의사상의 여성해방론이 수용되어 자본주의적 민족주의계열 여성단체의 여성운동에 대한 침체를 보완하고자 여성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의 하나로 인식하게 되었

264) 「여성동우강연」, 『동아일보』, 1924.10.3., 제4면.

265) 조경미, 「1920년대 사회주의여성단체에 관한 연구」, 『한국학연구』 제2권, 숙명여자대학교, 1992, p. 71.

266) 「조선여성운동의 사적고찰」, 『동아일보』, 1928.1.6., 제6면.

267) 「부인 데이 기념 대구여청에서」, 『동아일보』, 1925.3.7., 제3면.

268) 「무산부인기념 강연 개최」, 『동아일보』, 1925.3.5., 제4면.

던 것이다.²⁶⁹⁾ 또한 정칠성은 1924년 7월 20일 여성동우회의 집행위원으로서 인천노동총동맹회(仁川勞動總同盟會)의 상무위원으로 임명되었는데,²⁷⁰⁾ 인천노동총동맹은 1925년 12월에 여성 노동운동이 강한 인천지역에서 발족된 단체이며, 이 또한 1925년도에 들어서 사회주의적 여성단체가 다수 조직되는 현상에 의해 발족된 단체 중에 하나였다.²⁷¹⁾ 이처럼 여성동우회가 조직된 이래로 급격히 진행된 여성운동단체의 사회주의화 현상에서는 정칠성의 역할도 일부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정칠성은 1925년 3월 31일자로 2차 일본유학을 가기 직전까지도 전국적으로 사회주의사상의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정칠성은 1925년부터 1926년 8월까지 2차 일본유학을 단행하게 되었다. 특히 이때는 1차 일본유학과 달리 일본의 전문적인 교육기관인 동경여자예학교에 입학하였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정칠성은 이 학교에서 자수와 관련된 근대식 신교육을 받았으며, 귀국 후 조선여자기예원(朝鮮女子技藝院)에서의 교사 활동과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 학예부에서 매년 개최하는 모사편물 강습, 청년회, 그리고 근우회(權友會)에서 주최한 강습회 등을 통해 강사로서 활동하여 조선여성들에게 자수와 편물을 위주로 가르치는 미술교육 측면의 여성운동을 전개하였다.²⁷²⁾[도24,25] 이처럼 정칠성은 따로 교육기

269) 대구여자청년회, 함흥여자청년회와 같이 애초에 민족주의적 혹은 종교적 단체로 출발하였다가 중도에 혁신총회를 열고 강령을 고치는 등의 방식으로 성격을 전환하는 단체들이 1925년에서 1927년 사이에 걸쳐 많이 나타나게 된다(한국여성연구회, 앞의 책, pp. 142-143).

270) 「지방인사소식」, 『동아일보』, 1924.7.20., 제3면.

271) 1925년에 들어서는 김해의 북광회(1월4일 창립), 해주의 신흥여성동우회(3월 16일 창립), 경성여성공조회(3월 26일 창립)를 비롯하여 경남의 통영, 진주와 경북의 금릉, 안동, 전남, 담양 등지에 십여 개의 사회주의 여성단체가 생겨났다(한국여성연구회, 앞의 책, p.142).

272) 「동북편물강습 성황이 개회」, 『동아일보』, 1927.9.14., 제3면.; 「여자기예원 편물개인교수」, 『동아일보』, 1927.11.9., 제5면.; 「조선여자직업사설립」, 『동아일보』, 1928.1.15., 제3면.; 「제삼회 모사편물강습회」, 『동아일보』, 1929.10.20.~25.; 「가정부녀에게 필요한 모사편물강습」, 『동아일보』, 1929.10.22., 제5면.; 「마포편물강습 삼주일 동안」, 『동아일보』, 1929.12.2., 제3면.; 「제4회 모사편물강습회」, 『동아일보』, 1930.10.13.~24.; 「편물강습회 평양에서 개최」, 『동아일보』, 1932.9.15., 제3면.; 「제팔회 모사편물강습회」, 『동아일보』, 1934.11.6.~10.; 「선산 제이회 편물강습」, 『동아일보』, 1935.1.18., 제5면.

관을 설립하여 교수하지는 않았지만, 신문사, 청년회 및 근우회의 후원으로 1927년부터 1935년경까지 꾸준한 자수와 편물 등의 강습 활동을 통해 미술 교육이자 직업교육으로써 여성운동을 전개하였다.

정칠성이 1927~8년경에 자수·편물 강사로 주로 활동하였던 조선여자기예원에서는 1926년 2월 1일부터 조선여자직업사(朝鮮女子職業社)를 창립하여 “여성계몽운동도 필요하지만 여자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면 경제적 독립이 필요하다. 그럼으로 조선여자의 특장인 자수·조화·편물 등을 전문적으로 교수하여 조선부녀에게 직업적 사상을 고취하” 고자 하는 목적을 밝혔다. 이처럼 여성들에게 자수·조화·편물 등을 가르치는 목적은 여성 계몽운동의 측면보다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의 측면에 주목한 것으로 보아 당시 사회주의적 여성해방사상에 기반을 두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여자직업사에서는 자수부·재봉부·조화부·편물부를 비롯하여 “각자 자기의 장기대로 부를 선정할 수 있다 하며, 일방으로는 판매부를 설치하여 여러 학생들이 생산한 물품을 렴가(廉價)로 판매하여 여러 사람의 편리를 도모한다”²⁷³⁾는 경영 방식을 밝혔으며, 일본에서 사회주의 여성해방사상을 수용하여 귀국한 정칠성이 단독 교사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정칠성도 ‘여성의 지위 향상과 경제적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여자직업사와 동일한 사상하에 학생들을 가르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칠성은 스웨터·조끼·양말·장갑·목도리·아동복·모자 등의 모사편물과 치마·바지 등의 일반 편물, 그리고 자수를 주 과목으로 하여 경성지역 뿐만 아니라 평양과 선산(善山) 등의 여러 지역을 오가며 강습하였다.²⁷⁴⁾

273) 「조선여자직업사 설립」, 『동아일보』, 1926.1.15., 제3면.; “조선여자 기예원에서는 혼인용구로서의 면사포 꽃 등을 만들어 렴가로 판매하는 동시에 빌리기도 한다는데, 면사포는 다른 곳에 비하여 실비로 빌려 준다하며, 누구든지 부탁만하면 즉시 쓰도록 이행한다는데 수병풍차(繡屏風次) 족자(簇子) 현판(懸板) 등의 부탁에도 응한다더라.” (「혼인용구 렴가 제공」, 『동아일보』, 1927.11.9., 제5면)

274) 「마포편물강습 삼주일 동안」, 『동아일보』, 1929.12.2., 제3면.; 「편물강습회 평양에서 개최」, 『동아일보』, 1932.9.15., 제3면.; 「선산 제이회 편물강습」, 『동아일보』, 1935.1.18., 제5면.

따라서 정철성은 일본에서 자수·편물을 전문적으로 학습함과 동시에 사회주의 여성해방사상을 수용함으로써 귀국 후 자수·편물교사로서 꾸준한 사회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여성미술가로서 정철성은 조선여성들에게 실용적 측면의 자수를 가르침으로써 조선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심과 직업적 사상을 고취시키고,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지도하였다. 정철성의 이러한 면모는 그녀가 교육자들에게 당부한 내용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교육계에 계신 여러분은 글자를 가르치는 것으로 교육자가 되지 말고, 어디로 보아서나 모범적 인물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형색색의 고급비단 의복을 입고 최첨단의 미용술을 하고 다니며, 어떻게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화장을 말아라, 사치하지 말라 하는 교육을 할 것인가. 모순된 교육이다.…맹모가 삼천지교를 하였다는 교훈은 비록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격을 양성함에 있어서 교편을 잡은 자신이 모범이 되어야한다는 위대한 교훈인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²⁷⁵⁾

이처럼 정철성은 교육에 있어서 그 환경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맹모삼천지교’라는 교훈을 예로 들었으며, ‘형형색색의 고급비단 의복을 입고 최첨단의 미용술을 하고 다니’는 부르주아 민족주의계열의 여성교육자들을 겨냥하여 비판하는 언급으로 자신의 향락에만 신경을 쓰기보다는 학생들의 인격을 양성하는 교육자의 입장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모범적 인물이 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정철성이 제시한 교육자의 사명의식에 따라 그녀는 자수·편물의 교육자로서 당시 조선의 무산계급 여성들을 위하여 경제적 여성해방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정철성은 미술 분야의 실업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자수와 편물을 통해 미술교육을

275) 「교육자여러분께 한말씀」, 『동아일보』, 1934.12.19., 제1면.

지도함으로써 조선의 무산여성들의 주체적 실력 향상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을 길러내는 활동에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로 강조되어진 자수 영역을 주체적 신여성이 직접 실업적인 가치가 부여된 미술교육이자 직업교육을 전개하면서 조선여성들의 경제적 독립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해내었으며, 자수를 여성의 근대적 신문화의 가치로 승화시킴으로써 사회주의적 여성해방운동의 충위를 넓혔던 것이다.

이처럼 정칠성은 사회주의 사상을 포함한 자수교육 활동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사회주의 여성운동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여성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한편 1926년 8월에 2차 일본유학으로부터 귀국한 정칠성은 “여러 동무와 함께 근우회를 창립하고, 당시 조직부 책임자로 전선 각지를 순회한 다음 출판부 책임을 겸하(고,)…근우회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신간회 간부로 신간회 전선대표대회 대표위원의 한 사람 등이었다.”는 활동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²⁷⁶⁾

정칠성이 1925년부터 2차로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던 시기에 조선의 여성운동계에서는 1925년을 전후로 하여 사회주의적 여성해방운동단체들이 점차 현실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사회주의계열 여성단체들이 여성의 의식적 각성을 위한 활동에만 치중한 채 여성의 일상적인 권익을 확보하려는 구체적 활동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전국적인 지도기관이 부재하여 통일적 지도단체로의 결성이 시급하게 요구되었던 것이다.²⁷⁷⁾

이로 인해 1926년에 이르러서는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은 “민족적 단일협동전선조직에 향하여 노력하게 되는 이때에, 민족적 당면 역할에 있어서 또 봉건유제에 대한 당면 역할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진 조성여성 각층이 통

276) 「저명인물 일대기」, 『삼천리』 제9권 1호, 1937.1.1., p. 40.

277) 1926년 여성운동에서의 광범위한 협동전선 결성의 계기로, 여자청년회도 질적 전환을 맞게 되었다. 여성운동을 대표하던 여자청년회의 역할이 부정되고, 조직해체를 통해 여성조직과 청년조직으로 분리되었다(박혜란, 앞의 책, pp. 186-187).

일적 조직을 가지고 공통의 적과 싸우는 것은 전술상 어디까지든지 현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였다.²⁷⁸⁾ 이에 따라 반제(反帝)·반봉건(半封建)을 조선여성의 특수성으로 주목하여 여성운동의 직면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민족주의계열의 여성운동과 협동전선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로써 1927년 5월 27일 “조선여성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조선여성의 모든 특수점을 고려하여 여성 따로의 전체적 기관”²⁷⁹⁾으로 민족주의계열의 여성단체와 사회주의계열의 여성단체들이 모두 참여한 ‘근우회(權友會)’가 새로운 통일적 여성단체로써 창립되었다. 근우회는 사회주의계열 여성 통합단체로써 종로청년회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조선여자의 공고한 단결을 도모하고 그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강령을 높이 걸고, 조선여성운동전선의 통제적(統制的)사명을 다한다는 포부”를 밝혔다.²⁸⁰⁾

이에 따라 정칠성은 동경에서 조직한 사회주의 여성단체인 삼월회에 함께 참여하였던 황신덕, 이현경 등의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귀국하였으며, 동경 여자학흥회의 민족주의 진영의 여성들과 접촉이 용이하였던 점을 이용하여 근우회의 창립에 동참하였다. 정칠성은 1927년 4월 26일 근우회 발기총회 때 발기인 총 41명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²⁸¹⁾ 이어서 열린 제1회 준비위원회

278) 「조선여성운동의 사적고찰」, 『동아일보』, 1928.1.6., 제6면.

279) 「조선여성운동의 사적고찰」, 『동아일보』, 1928.1.6., 제6면.

280) 근우회는 1927년 8월부터 1930년까지 국내지회 61개와 해외지회 3개로 총 64개의 지회가 조직되었다(「각 방면 망라 근우회창립」, 『동아일보』, 1927.5.29., 제4면).

281) 발기총회에서 발기인들은 강정희, 김마리사, 김선, 김순영, 김영순, 김활란, 김은도, 김일엽, 김순복, 길정희, 정칠성, 조원숙, 양매륜, 유영준, 이현경, 이덕요, 박경식, 박원희, 박홍순, 박신우, 방신영, 서필선, 손정규, 신알베터, 신숙경, 유각경, 이은혜, 김지자, 정종명, 정자영, 정소군, 차사백, 최은희, 최활란, 입덕신, 홍애시덕, 황신덕(「근우회 발기회 조선여성의 전국적 기관으로」, 『동아일보』, 1927.4.27., 제3면); 이와 같은 발기인 명단에는 빠졌으나, 불교여자청년회의 우봉운과 천도교여성동맹의 박호진이 후에 간부로 활동했으며, 이들이 속한 계열로는 ①민족주의계열의 조선여자교육협회, YWCA,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연합회, 조선여자청년회, 조선간호부협회, 반도여자청년회, 그밖에 경성여의회, 망월구락부 등 당시 서울의 민족주의계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던 중요인물들 거의 대부분이 참가. ②사회주의계열의 서울청년회계, 화요회계, 북풍회계, 제3차 조선공산당 등의 참여자들이 명단에 속한다(한국여성연구회, 앞의 책, p. 157, pp. 154-155).

에서는 회원모집위원으로 선임되었다.²⁸²⁾ 이후 1927년 5월 27일 개최된 근우회 창립총회에서 정칠성은 유각경(兪玉卿, 1891-1966), 정종명과 함께 신입집행위원으로서 선전조직부의 상무로 임명되었다.²⁸³⁾[도26] 이에 따라 정칠성은 정종명과 함께 평양에 파견되어 평양여성동우회(平壤女性同友會) 주최의 평양여우강연회에서 강연활동을 펼쳤으며,²⁸⁴⁾ 박원희와 함께 근우회 합흥지회 발기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1927년 10월 6일 함흥지방에 특파되어 지회 설치에 착수하였다. 이 기회로 정칠성은 9일에 함흥지역의 함흥여자청년회와 함흥여자기독교청년회의 주최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지국의 후원 하에 개최된 부인문제 대강연회에서 강연을 하는 등 선전조직부의 상무로서 전국 일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²⁸⁵⁾

근우회는 창립 초기 반제·반봉건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행동강령으로 ‘①여성 대한 사회적·법률적 일절 차별 철폐, ②일절 봉건적 인습과 미신 타파, ③조혼 폐지 및 결혼의 자유, ④인신매매 및 공창 폐지, ⑤농민부인의 경제적 이익 옹호, ⑥부인노동자의 임금차별 철폐 및 산전 산후 임금 지불 ⑦부인 및 소년노동자의 위험노동 및 야업 폐지’를 제시하였다.²⁸⁶⁾[도27] 이에 따라 근우회는 협동전선조직으로써 그들이 표방한 기본적인 활동 방침은 ‘여성 계몽운동’으로 지방 순회 경연회와 토론회, 강습회 및 부인야학 등의 민족주의적 여성 계몽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정칠성은 주로 강연회와 토론회 부분에서 여성의 주체의식의 향상과 계몽을 위해 활동하여 전국을 순회하면서 활발한 강연 활동을 전개하였다.²⁸⁷⁾ 특히 그녀는 1927년 전민족 협동전선으로써 조직된 ‘신간회’의 경성지회에서도

282) 「근우회 발기회 조선여성의 전국적 기관으로」, 『동아일보』, 1927.4.27., 제3면.; 「각계여성을 망라한 근우회 발기총회」, 『동아일보』, 1927.4.28., 제3면.

283) 「근우회위원회」, 『동아일보』, 1927.5.31., 제5면.

284) 「평양여우강연회를 경찰이 돌연해산」, 『동아일보』, 1927.6.8., 제5면.

285) 「근우회위원 함흥지방에 출장」, 『동아일보』, 1927.10.6., 제3면.; 「강연을 금지하고 연사까지 검속」, 『동아일보』, 1927.10.14., 제2면.

286) 「여성에 대한 일체차별 철폐」, 『동아일보』, 1929.7.25., 제4면.

287) 1920년대 정칠성의 강연활동에 대해서는 (박순섭, 앞의 논문, p. 258, 〈표1〉) 참고.

활동하였는데, ‘신간회와 여성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전개하였으며, 1929년 1월에는 신간회 임시회의에서 본부대회 대표회원으로 선정되는 등 여성단체의 협동전선에 활동범위를 넓혔다.²⁸⁸⁾[도27]

이처럼 정철성은 다방면의 강연 활동을 통해 “우리 여자는 남자의 완롱물이오. 남자의 위안물…에 지나지 못하는 노예”²⁸⁹⁾에 불과했으나, “근우회는 현 계단에 있어서 전 조선 모든 여성을 통일 조직한 기관이니…특수한 환경에 처하여 있는 우리로서는 남보다 더 굳게 단결하고 더 굳게 악수하여야 합니다.…우리들 사이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봉건적 사상…으로부터 완전히 탈각하는 것이 일종의 긴급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²⁹⁰⁾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정철성은 근우회의 협동전선의 단결을 더욱 촉구하여 조선여성이 억압 받아온 봉건적 인습에 대한 각성과 해방을 주장하는 여성해방사상을 전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근우회는 강연회와 토론회 등의 활동과 더불어 『근우(槿友)』라는 기관지를 발간하였다. 근우회 본부에서는 1929년 2월 16일에 근우회 회보와 관련하여 “매년 춘추(春秋)로 발행하되, 좌(左)의 임원을 선임하여 편집과 발행을 일임하기로 함”이라는 사항이 결의됨에 따라 정철성은 허정숙 등과 함께 발행 임원으로 선임되어 출판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²⁹¹⁾ 1929년 5월 10일에 『근우』 제1호가 창간되었는데,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창간호를 끝으로 더 이상 발간되지 못하였다. 『근우』 창간호에는 정철성의 ‘의식적 각성으로부터’라는 글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점차 변화된 그녀의 사상을 파악할 수 있다.²⁹²⁾[도28]

288) 「신간강연회」, 『동아일보』, 1927.12.2., 제5면.; 「신간 대강연회 팔일 밤에 연다」, 『동아일보』, 1927.12.6., 제3면.; 「황주강연회 연사 둘다 중지 그대로 해산」, 『동아일보』, 1928.5.3., 제3면.; 「신간회경성지회 간사와 대표회원」, 『동아일보』, 1929.1.22., 제4면.

289) 「황주강연회 연사 둘다 중지 그대로 해산」, 『동아일보』, 1928.5.3., 제3면.

290) 「여성운동에 대한 포부」, 『동아일보』, 1928.1.1., 제24면.

291) 「근우회 회보 발행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의」, 『동아일보』, 1929.2.19., 제4면.

292) 「근우상무위원회」, 『동아일보』, 1929.8.6., 제4면.;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제13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4, p. 427.

다 같은 세상에 같은 여자만으로도 그(유산계급여성)와 판판의 생활을 하고 있는 무산여성은 문명도 무엇도 아무 상관없이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없이 한없는 천대와 빈곤에서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나는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일반 선각(先覺) 여성들은 너무 개인의 향락에만 정신을 쓰지 말고 같은 운명에서 울고 있는 암매한 동렬(同列)을 위하여 분투와 책임을 가져야 될 줄 안다.²⁹³⁾

이처럼 정칠성은 변함없이 천대와 빈곤 속에 시달리는 무산계급 여성들을 위해 유산계급 선각 여성들의 노력이 더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정칠성의 ‘교육자들에게 당부한 내용’ 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무산계급 여성들에 대한 책임에 더 주력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즉 이러한 정칠성의 언급은 이전의 협동전선의 단결을 주장하였던 측면에서 보다 사회주의적인 성격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변화된 정칠성의 사상은 그녀가 1929년 8월 근우회의 중앙집행위원장을 역임하게 된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으며, 1930년에 ‘각 단체 주요 간부들의 포부’ 에서 새해에 대한 전망으로 밝힌 내용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정칠성은 1930년의 “새해부터는 특히 농민 노동자층의 부인들을 중심 삼아 교양을 시키고 싶소. 조선의 부인운동이 근우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니만치 어느 계급을 표준한 것이 아니나, 일반적으로 보아 농민 노동자들 부인이 좀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임으로써 입니다.”²⁹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정칠성은 농민, 노동자층의 무산계급 여성들을 위한 자립에 대한 추구하고 그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여성해방론을 표명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당시 중앙집행위원장이었던 정칠성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근우회

293) 정칠성, 「의식적 각성으로부터」, 『근우』 제1호, 1929.5.10., pp. 36-37.

294) 「1930년 전망 우리는 어떻게 할까(2)」, 『동아일보』, 1930.1.2., 제3면.

본부는 점차 사회주의적 성격의 여성해방운동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29년 7월 27일부터 개최된 전국대회에서 근우회 행동강령의 일부 보완 및 수정으로 ‘⑧교육의 성적 차별 철폐 및 여자의 보통교육 확장, ⑨언론·출판·결사의 자유, ⑩노동자·농민 의료기관 및 탁아소 제정 확립’이 추가되어 새로운 운동방향이 설정되었다.²⁹⁵⁾ 이로 인해 근우회 부서에 노동, 농민 여성을 위한 노농부가 설치되었으며, 그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경동지회가 설립되었다.²⁹⁶⁾ 특히 정칠성과 정종명 등은 농촌 여성들을 위한 농촌탁아소 증설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성과를 이루는 등 사회주의 계열 여성해방운동으로 활동 방향을 기울였다.²⁹⁷⁾

또한 근우회는 1927년 6월 숙명여고보의 동맹휴학사건에 개입한 것을 계기로 하여 여학생운동에 대한 지원활동에 열의를 쏟았다.²⁹⁸⁾ 정칠성은 허정숙과 전주여자고등보통학교(全州女子高等普通學校) 학생의 퇴학처분사건에 항의문을 발송한 이유로 검거되어 3일간 구류되기도 하였다.²⁹⁹⁾ 이어 근우회는 1930년 1월 광주학생운동의 후속운동으로 일어난 서울의 여학생 시위운동에 관여한 사건으로 인하여 일제는 근우회를 그 배후로 지목하여 간부들을 검거하기 시작하였다.³⁰⁰⁾ 이처럼 계속되는 일제의 철저한 검열과 탄압으로 인

295) 1929년 전국대회에서 3개항이 추가되었음과 동시에, 기존의 제①항 ‘여성 대한 사회적·법률적 일절 차별 철폐’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법률적·정치적 일절 차별 철폐’로 바뀌었으며, 제③항 ‘조혼 폐지 및 결혼의 자유’에서 ‘이혼의 자유’가 추가되고, 제⑥항 ‘부인노동자의 임금차별 철폐 및 산전 산후 임금 지불’에서 ‘부인노동자의 임금차별 철폐 및 산전 4주간 산후 6주간의 휴양과 그 임금 지불’로 변경되었다(한국여성연구회, 앞의 책, p. 157).

296) 장인모, 앞의 논문, p. 402.

297) “한동안 근우회의 슬로-간이 되다시피 정칠성, 정종명 등이 부르짖던 농촌탁아소는 최근에 비상한 속도로 각처에 설치되고 있다. 그래서 금년 봄까지는 수개소에 불과하던 것이 농번기에 필요를 갑자기 느끼었음인지 이 곳 저 곳에 작고 늘어서 최근 조사에는 그 수가 110개소의 다수에 달하였다. 아마 금후에도 훨씬 더 증가될 듯하다는데 탁아소에 대하여는 얼마씩의 보조금을 총독부에서 주어서 대대적으로 확장할 방침이라고 하니 조선농촌각처에는 탁아소가 격증되리라고 보여진다”(「탁아소 백십개소」, 『삼천리』 제5권9호, 1933.9.1., p. 37)

298) 「숙녀회 임시총회 위원 17인 선거 숙명여학교 졸업생대회 만사는 위원에 전임」, 『매일신보』, 1927.6.20., 제2면; 「학부형회에서 성명서발표 숙명맹휴사건」, 『동아일보』, 1927.6.27., 제3면.

299) 「항의문발송문제로 양여사구류처분」, 『동아일보』, 1929.10.2., 제4면.

300) 한국여성연구회, 앞의 책, p. 157, pp. 168.

해 근우회 본부의 활동은 지속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정철성의 새로운 시도들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정철성은 근우회 중앙위원장에서 퇴진하게 되었고, 1930년 12월 18일에 열린 중앙위원확대회에서 민족주의계열 인물인 조신성(趙信聖)이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로 근우회 본부는 점차 우경화되었다.³⁰¹⁾

이러한 상황에서 1930년대 말부터 신간회의 해소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모든 통일전선 대중단체로 파급되면서 근우회 역시 해소에 대한 찬반 논쟁에 휩싸이게 되었다.³⁰²⁾ 이는 ‘조선여성의 억압은 근본적으로 봉건적 유제인 일본의 제국주의에 있기 때문에 여성운동은 남성과 동일한 전체운동의 맥락에서 공동 투쟁하는 과정으로만 극복될 수 있으므로 근우회와 같은 여성의 독자적인 투쟁은 불필요한 것이다’라는 해소를 주장하는 논의와 ‘여성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성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에 여성운동의 독자적인 입지를 확보함으로써 근우회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형태의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해소를 반대하는 논의가 전개되었다.³⁰³⁾ 이때 정철성도 처음에는 해소 반대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근우회 내부 일부에 해소론이 대두하였으나 이것은 근우 운동에 대한 인식 착오에서 생긴 시기상조론이라고 생각한다....노동부 등의 각 부문 운동이 충분히 격화할 시기에는 근우회 같은 각 계급을 망라한 조직을 당연히 해소함에 이를 것이다. ...1931년에는 근우회 운동의 수준을 고답적인 데서 대중적인 것으로 이끌어 활발하고 꾸준하게, 일례를 들면 문맹퇴치와 같은 계몽운동 방면에 주력하려고 한다. 그리고 학생, 직업부인, 가정부인 각층의 여성을 근우회의 조직 속에 망라하기 위해 노력할

301) 「근우신위원회」, 『동아일보』, 1930.12.21., 제4면.

302) 장인모, 앞의 논문, p. 404.; 신간회 해소 논쟁에 관해서는 (「조선운동은 협동호 대립호, 신간회 ‘해소운동’ 비판」, 『삼천리』 제12호, 1931.2.1., pp. 6-19)에서 참고.

303) 장인모, 앞의 논문, pp. 405-407.

것이며, 더욱이 올해의 숙제이던 회관건축은 어떠한 곤란을 겪더라도 금
년 내에 완성하려고 한다.³⁰⁴⁾

이처럼 정철성은 근우회가 해소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며, 이는 여성운동
에 앞장서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노력으로 이
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대안을 강구하였다. 이처럼 정철성은 여성운동
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해소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철성은 1932년 1월에 입장을 바꾸게 되어 “근우
회는 무용의 장물”로서 “진개의 여성운동은 근우회를 버리고 새로운 판
길을 찾는 곳에서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³⁰⁵⁾ 이처럼 정철
성도 최종적으로 근우회 해소에 동의하게 되면서 근우회는 해소 결의도 하
지 못한 채 소멸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근우회에 속하였던 사회주의를 표
방한 여성운동가들은 노동조합과 농민조합의 여성부 운동으로 활동을 옮겨
가게 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민족주의를 표방한 여성운동가들에 대해서는
따로 조직 방침이 마련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어 활동을 중단하게 되거
나, 일부는 일제의 내선일체 정책에 동화되어 친일행적을 일삼게 되었다.³⁰⁶⁾

3) 1930년대 여성운동의 심화와 변질

① 이숙종의 민족주의 여성 계몽운동과 여학교 설립

1930년대에 이르면 일본의 억압통치로 인해 사회주의자들이 제거되었고,
1920년대 일제의 문화통치로 세력을 확장시켰던 부르주아 민족주의계열은

304) 「계몽운동에 주력, 해소론은 시기상조이다」, 『조선일보』, 1931.1.1., 제9면.

305) 정철성, 「근우회는 무용의 장물」, 『비판』 제2권1호, 1932.1.(장인모, 앞의 논문, p. 409
에서 재인용)

306) 한국여성연구회, 앞의 책, p. 176.

다시 문화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³⁰⁷⁾ 이에 따라 여성운동은 전국적 통일전선 여성단체였던 근우회의 소멸로 침체되었다가 다시 신여성들에 의해 일제가 허용한 범위 내의 합법적인 여성단체로 결성되기 시작하여 침체된 여성운동은 다시 활성화되었다.³⁰⁸⁾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여성미술가 이숙종은 일본유학 시절 조선여성의 특수한 조건인 반봉건·반제를 목적에 둔 여성운동의 협동전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에 귀국하였지만, 일제의 탄압 등으로 인한 협동전선 운동단체가 소멸되었다. 이로 인해 이숙종은 1930년경부터 민족주의를 표방한 여성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숙종의 여성운동의 방향은 1930년에 이르러 그녀가 ‘가정부인 문제’에 대해 주장한 내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조선 가옥의 궤도를 보면 세계 어느 나라를 □론하고 가장 어여쁘고 묘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양 가옥은 가옥 그것보다도 실내 장치로써 □화하여 가는 것이지만은 조선 사람의 안방이나 초당(草堂)이나 또는 산정(山亭) 같이 어여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가옥은 웅장은 하나 따뜻한 것은 조선 가옥에 비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결점이라 할 것은 남자를 위하여는 용접실(舍廊)이 있습니다만 여자를 위하여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그리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 냄새나는 것만은 사실 불쾌하다고 생각합니다.³⁰⁹⁾

이처럼 이숙종은 ‘어여쁘고 따뜻한’ 조선 가옥은 서양 가옥과 중국 가옥에 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언급한 내용을 통해 자국의 것에 대한 자긍심을

307) 전재호, 앞의 논문, p. 108.

308) 일제가 허용하는 합법적인 여성단체로는 기존의 조선YWCA연합회, 기독교절제회와 같은 기독교 단체 이외에 일반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단체로서는 경성여자소비조합, 직업부인협회, 가정부인협회 등이 있다(김성은, 「1930년대 황해도의 농촌사업과 여성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5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회, 2011, p. 143).

309) 「본사 주최 가정부인문제 좌담회」, 『중외일보』, 1930.1.1., 제6면.

드러내는 민족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한 가지 결점으로 남자를 위한 사랑방은 있지만, 여자를 위한 방은 따로 없이 부엌살림은 여자의 역할로만 규정된 조선 가정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조선의 남존여비 세태를 비판하는 여성의 주체의식과 여권의식을 드러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당시 외래와 비교하여 민족의식과 여권의식을 드러낸 이숙중은 조선의 민족문제와 여성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여성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먼저 이숙중의 본격적인 민족운동의 시작으로는 1929년 경성여자상업학교(京城女子商業學校) 미술교사로 취임한 때부터였다.³¹⁰⁾ 이때 이숙중은 학교 측으로부터 미술과목 이외에 조선의 표준어 수업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아 당시 민족적 이상과 정열을 지닌 안재홍(安在鴻, 1891-1965)은사를 찾아가 표준어에 관한 도움을 받은 후, 미술 과목과 더불어 조선 표준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숙중은 따로 그녀가 머물러있던 집에 ‘금화료’라는 이름을 지어 지방에서 올라온 여학생들이 지낼 수 있는 기숙사를 운영하였는데,³¹¹⁾ 금화료에서도 이숙중은 학생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치고 사회 저명인사들을 초대하여 강연을 진행하는 활동을 하였다.³¹²⁾[도29,30] 이처럼 이숙중은 조선어 교육에 특히 더 열의를 보였으며, 이는 그녀의 민족의식에 기인한 활동임과 동시에 조선에서 여성교육가로서 활동하게 되는 첫 발단 단계였다.

이후 1930년부터 이숙중은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에 참여하여 표준어 사정 위원으로서 활동하였다.[도31,32] 조선어학회는 1921년에 경성에서 조

310) 1927년에 총독으로 부임한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 1864-1944)는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 완화되었던 실업교육을 다시 강조하는 여성교육정책을 시행하였다(이송희, 앞의 논문,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2005, p. 211).

311) “당시 여성 재단은 극히 빈약하여 지방학생들을 수용할 건물이나 시설을 갖추기만 여유가 없어, 여학생들이 흔히 여관에서 하숙을 하여 여러 가지 교육상 좋지 못함을 통절히 느낀(이숙중)선생은 아버지를 졸라 ‘다육정’ 에다 백 여간 넘는 집을 전세로 얻어 ‘금화료’라는 기숙사를 설립, 80명을 수용하여 교육시킬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잊지 못하는 보람이라고 전한다”(「윤정 이숙중 여사 내가 겪은 이십세기(23) 문혔던 생애비화 후세에 남기련다」, 『경향신문』, 1972.6.10., 제4면); 최은희, 앞의 책, p. 417.

312) 성신학원, 앞의 책, pp. 48-49.

선말과 조선글을 연구하기 위한 학술적 모임을 가진 장지영(張志暎), 최두선(崔斗善) 등의 유지들에 의해 결성된 단체로, 처음엔 ‘조선어연구회(朝鮮語硏究會)’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³¹³⁾ 이후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다가 1931년 1월 11일 조선어연구회의 정기총회 때부터는 단체의 이름을 ‘조선어학회’로 변경하여 조선어에 대한 연구와 보급을 위해 꾸준히 활동을 전개한 민족단체였다.³¹⁴⁾ 이숙중은 이러한 조선어학회에서 조선어 표준어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여 조선의 혼란한 철자법을 통일하고, 조선의 표준어를 제정하기 위해 조사·연구하여 ‘경성어(京城語)’를 표준어로 상정하는 등의 활동으로 민족주의적 어문운동을 전개하였다.³¹⁵⁾

그러나 당시 일제는 조선에서 문화통치시기 이래로 추진해온 민족해방운동의 세력들에 대한 분열을 더욱 강화시켰기 때문에 조선어학회는 형사들의 잦은 감시 아래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³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숙중은 어학회 회원들과 함께 조선어에 대한 열의와 민족의식을 가지고 어문운동을 지속시킴으로써 자주국가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그녀의 민족운동에 대한 열의는 당시 ‘여성시론’에서 주장한 내용을 통해서도 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313) 「조선어연구회 유지제씨의 발기로 금일발기회를 개최」, 『동아일보』, 1921.12.3., 제3면.

314) “1, 조선말 문법. 2, 조선말 철자법. 3, (조선말 철자법)을 쓰이는 한문글자를 조사하여 제한함. 4, 서양말의 자모음과 고유명사를 조선글자로 맞추어 정함. 5, 조선글 가로쓰는 법을 정함”의 다섯 가지 안을 이루는 목적에 주목하였다(「조선어연구회 정총 금년사업등 결정」, 『동아일보』, 1931.1.12., 제2면).

315) 「한글 통일의 제2단 표준어를 제정」, 『동아일보』, 1934.12.30., 제2면.; 「통속적경어를 선택 우리말 표준어사정」, 『동아일보』, 1935.1.5., 제3면.; 「어문운동상대수회 사천표준어사정」, 『동아일보』, 1935.1.8., 제2면.; 「조선어표준어 사정회 개최」, 『동아일보』, 1935.8.5., 제4면.

316) “한 번은 우리 집(금화료, 이숙중의 기숙사)에서 어학회 간부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일인 형사들이 어찌 그것을 알고 우리 집 담을 넘어 들어왔다. 나(이숙중)는 그때 당황하지 않고 대담하게 그들 앞에 나서서 ‘무슨 것이오? 아닌 대낮에 담을 넘어 오다니, 여기는 여학생 기숙사요. 강도가 아니라면 어서 썩 나가시오!’라고 호통을 치니 모두들 대단한 여자구나 싶어 슬금슬금 물러서길래 대문을 열어주라고 소리쳐 대문으로 나가게끔 했다. 그리하여 위기를 모면했는데 후환이 두려워 간부들을 다른 곳으로 급히 피신시키고 나니 어느덧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성신학원, 앞의 책, pp. 50-51)

…북악산 높이 올라서 장안을 내려다보면…서양이나 일본내지나 경성이나 별로 특이한 점을 모를 만 하다. 문명의 혜택으로 된 근일의 정경이다. 그러나…조선사회의 모든 물질과 양식이 조선을 탈리(脫離)하고 순정을 잃어 천부의 향토를 저버리고 선도 색도 바탕도 당치 않은 외국 것을 모방하고 있다.…민족과 풍속을 저버린 그 땅에 인연 없는 제도라면 조선이라는 향토를 저버린 것으로서 크게 한숨지을 일이다.…식자(識者)는 마땅히 조선유훈에서 문명을 흡수하고 조선이라는 설정에 빛을 더 가하고 선을 더 진하게 가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조선의 문명이요, 조선의 마음일 것 같다.³¹⁷⁾

이처럼 이숙종은 당시 조선이 점차 문명화됨으로써 조선이라는 ‘향토’를 저버린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녀는 ‘외국의 것을 모방’하지 말고 조선의 실정을 따르는 것이 곧 ‘조선의 문명’이자 ‘조선의 마음’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이숙종의 민족의식에서 주창된 내용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숙종이 주장한 조선의 ‘향토’라는 용어는 당시 일제의 식민지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권장되었던 측면에서도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선의 ‘향토’에 대한 지향은 당시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었던 농촌진흥운동과 관련되어 있다.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서구 제패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의 농업과 농촌을 찬미하여야 한다는 중농주의 정책을 전개시켰으며, 이러한 농촌에 대한 찬미는 조선의 ‘향토’에 대한 지향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미술계에서도 조선의 향토, 즉 ‘조선 향토색’에 입각한 미술창작의 추구로 이어졌으며, 이는 1930년을 전후하여 조선미전을 통해서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아카데미즘화 되어 갔다.³¹⁸⁾

이는 당시 1929년부터 ‘전조선 남녀 학생미술전람회’의 심사위원으로 활

317) 「여성시론, 문명과 조선심, 이숙종」, 『동아일보』, 1935.7.13., 제4면.

318) 박계리, 앞의 논문, p. 176.

동하였던 서양화가 김주경(金周經, 1902-1981)이 제9회 조선미전 서양화부에 입선한 이숙종의 〈붉은 건물 있는 교외〉에 대해서 평론한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³¹⁹[도33] 김주경은 “이숙종씨 〈붉은 건물 있는 풍경(교외)〉 혹은 학창시의 구작(舊作)이 아닌가도 연상된다. 별달리 불만을 주는 점은 없으나, 다만 역량이 부족한 감이 있다. 집필을 계속한다 하면 향토 예술에 적합한 화풍이라고 생각한다.”³²⁰라고 평론하였다. 이처럼 김주경은 ‘향토 예술’을 조선미전 심사의 표준으로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제의 식민 정책인 농촌계몽운동에 기인한 조선미전의 심사기준으로 ‘조선 향토색’이 지향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당시 김주경을 비롯한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온 미술가들은 ‘일본적 서양화’에 자극을 받아 순수미술론의 입장에서 ‘조선 향토색’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³²¹ 그러나 그들은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파급된 ‘조선 향토색’의 이면에 대해서는 극복하지 못한 채 논의를 전개하였던 한계성을 보였다.³²²

이에 따라 이숙종이 ‘여성시론’을 통해 언급한 ‘조선의 향토’도 ‘일본적 서양화’에 대한 자극을 바탕으로 민족의식에 따른 ‘조선심’, 즉 ‘조선의 향토’에 대한 지향을 나타낸 것이었으며, 당시 식민지 정책의 일환이었던 측면을 간과한 것이었다. 이는 당시 이숙종이 ‘동유회(東遊會)’³²³[도34]라는 동경여자유학생들로 조직된 여성단체에 소속되어 ‘조선색(朝鮮色)과 조선취미’에 대하여 연설하였던 사실에서도 드러난다.³²⁴ 따라

319) 신수경, 「김주경의 해방 이전 민족미술론 연구」, 『인물미술사학』 제9권, 인물미술사학회, 2013, p. 59.

320) 김주경, 「제구회 조선미전」, 『별건곤』 제30호, 1930.7.1., p. 154.

321) 1929년에 동경미술대학교 동문들의 모임으로 결성된 ‘동미회(東美會)’와 일본 유학생인 김주경·심영섭·오지호 등에 의해 1930년에 결성된 ‘녹향회(綠鄕會)’는 1930년을 전후하여 동격에서 귀국하자마자 ‘조선 향토색’에 대해 주장하기 시작하였다.(박계리, 앞의 논문, p. 173).

322) 박계리, 앞의 논문, pp. 208-209.

323) 동유회는 “동경등지에 유학하여 전문 이상의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각각 조선의 여성계를 등에 지고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로 조직되어있는” 여성단체이다(「금야칠시 청년회관으로 여류논객들의 사자후를 들으라」, 『동아일보』, 1934.12.7., 제2면.).

324) 「동유회 주최 시류통론대회」, 『동아일보』, 1934.11.30., 제4면.; 「금야칠시 청년회관으

서 이숙중은 일제의 식민지정책인 농촌 찬미 정책과 동화되어 조선미전에서 아카데미즘화 되었던 ‘조선 향토색’을 오히려 더 조장하게 된 모순점을 내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조선의 식민지적 상황에 따라 이숙중의 민족운동 외의 여성 계몽운동은 일제가 허용한 합법적인 여성단체인 ‘직업부인협회(職業婦人協會)’를 통해 시작되었다. 직업부인협회는 1926년 12월에 시내 인사동(仁寺洞) 태화여학교(泰和女學校)³²⁵에 창립된 ‘망월구락부(望月俱樂部)’³²⁶가 1932년 12월 이후 ‘직업부인협회’로 단체명이 변경된 여성단체였다. 직업부인협회는 1933년 4월 7일부터 “양복 강습회를 개최하여 여성들의 편의와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양성하는데 노력했”으며, 21일부터는 “가정경제 또는 여성들의 경제에 대한 상식을 보급시키고, 경제권의 확립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여성경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³²⁷ 특히 이숙중은 1935년 12월에 직업부인협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여성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 여성도 밖으로 나와야 한다, 여성도 자기 위치를 지켜야한다”는 주장으로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고취시키는 여성 계몽운동에 앞장서게 되었다.³²⁸ 이숙중은 회장으로서 1936년 3월에 여성단체 총 간담회를 개최하여 ‘어머니주일(어머니날)을 기념할 것’과 같은 사업에 관한 토의를 진행하는 등 여성의 권리와 주체성을 고취시키는 여성운동을 전개하였다.³²⁹[도35] 이처럼 직업부

로 여류논객들의 사자후를 들으라], 『동아일보』, 1934.12.7., 제2면.

325) 태화여학교(교장은 미스 빌링스리)는 미국 북감리교회 선교부에서 경영하던 교육기관으로 학생들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연령이 초과된 사람이나 남편은 신교육을 받았는데 아내가 신지식이 없다고 구박을 받고 늦게라도 공부를 하겠다고 온 학생 등 여러 면으로 신교육의 혜택을 놓친 여성들에게 속성으로 간이 교육을 실시하던 기관이었다(「운정 이숙중 여사 내가 겪은 이십세기(23) 묻혔던 생애비화 후세에 남기련다」, 『경향신문』, 1972.6.10., 제4면).

326) 망월구락부는 1926년 12월 황애시덕, 김활란(金活蘭), 방신영(方信英) 등 YWCA계 여성들과 정중명, 황신덕 등 사회주의계 여성들이 연합하여 직업여성의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다(박용옥, 『한국여성 항일운동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 p. 259).

327) 「여성경제 강연회 조선직업부인협회 주최」, 『동아일보』, 1933.4.21., 제1면.

328) 「직업부인협회 임원을 개선」, 『동아일보』, 1935.12.12., 제2면.; 성신학원, 앞의 책, p. 40.; 「세계직업부인협회와 연락코저」, 『동아일보』, 1932.12.19., 제2면.

329) 「여성단체 총간담회」, 『조선중앙일보』, 1936.3.29., 제2면.

인협회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심과 주체의식을 형성시키기 위한 여성 계몽교육에 앞장섰지만, 여성의 역할을 가정생활 내로 한정시키는 여성교육의 측면은 일제가 허용한 여성단체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다.

이처럼 민족운동과 여성 계몽운동을 포괄하는 이숙종의 여성운동은 이후 여학교의 설립으로 심화되었다. 이숙종은 “종래부터 교육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조선 실제 가정에 가장 뚜렷한 주부를 양성할만한 교육기관을 만들고자 계획” 하던 중에 1936년 3월 25일에 태화여학교의 경영권을 인계받았다.³³⁰⁾ 이후 이숙종은 태화여학교에서 시내 경운동(慶雲洞) 천도교강당으로 이전하여 1936년 4월에 가정학교로서 ‘성신여학교(誠信女學校)’를 개교하게 되었다.³³¹⁾ 이숙종은 성신여학교를 창립하던 때를 회고하며 “우리 말과 글을 잃어가던 그때, 우리들의 자라나는 여성들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은 나라를 잃었을 때일수록 더욱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³³²⁾ 이처럼 당시 이숙종은 여성운동가이자 여성교육자로서 민족적 주체의식을 가지고 성신여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조선의 민족문제와 여성문제를 모두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성신여학교의 설립 목적은 취학 시기를 놓친 여성들에게 보통교육과 실제 기능을 가르키는데 있었다.³³³⁾ 처음 개학 당시에는 학생들이 93명에 불과하였으며, 교사(校舍)가 없는 채 임시로 천도교강당에서 여학생들을 받아 교육을 시작하였다. 이때 이숙종은 스스로가 경영자, 교장, 교사의 역할을 맡아 모든 학교의 임무를 책임지며 운영을 시작하였다.³³⁴⁾ 그러다가 경성여자상업학교가 신교사로 이전하는 기회에 성신여학교는 경성여자상업학교의 본래 건물을 신교사로 삼아 1937년 8월 22일부터는 견지동(堅志洞)에서 수업을

330) 「태화여교인계 가정학교로 변경」, 『동아일보』, 1936.3.27., 제2면.

331) 「태화가 성신여교로」, 『동아일보』, 1936.5.6., 제2면.; 최은희, 앞의 책, p. 412.

332) 「운정 이숙종 여사 내가 겪은 이십세기(23) 물렸던 생애비화 후세에 남기련다」, 『경향신문』, 1972.6.10., 제4면.

333) 「성신여학교에서는 추기에도 입학시켜」, 『동아일보』, 1936.8.28., 제3면.

334) 「연합대운동전기」, 『동아일보』, 1938.5.28., 제2면.; 최은희, 앞의 책, p. 413.

시작하게 되었다.³³⁵[도37]

한편 1936년 조선의 제7대 총독으로 미나미 지로(南次郎, 1874~1955)가 부임한 이래로, 1938년경부터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침략전쟁을 도모하기 위한 방침으로 조선인을 황국식민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창씨개명, 교육령, 징병제 등의 내선일체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1938년 3월에 제3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되었다. 이는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교육령으로써 조선인에 대한 국민교육의 목적을 ‘국민도덕을 함양함으로써 충량유위의 황국신민을 양성하는 것’에 두었으며, 조선어 사용을 금하고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하였다. 특히 여성교육에서는 “국민도덕의 함양과 부덕의 양성에 뜻을 두고, 양처현모의 자질을 얻도록 하여 충량지순(忠良至醇)한 황국여성을 양성하는데 힘쓰도록 해야 한다”는 교육정책을 제시하였다.³³⁶

이에 따라 성신여학교는 조선인 경영학교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가정에 실재를 특색으로 가르치”고자 가사과(家事科)를 증설하였고, “가정여인으로서 필요한 가정지식을 교수”하기 위한 재봉과(裁縫科)와 할팽과(割烹科)를 증설하였다.³³⁷ 또한 1937년 12월부터는 학교 내에 정규수업 외의 수업으로 서화부(書畫部)를 설치하여 지도교사로 정용희(鄭用姬, 1914-?)와 심사원으로 이상범(靑田 李象範, 1897-1972)을 두어 “가정부인들의 취미와 향상을 도모하게하기 위하여 일반가정부인들께도 공개”하도록 하였다.³³⁸[도38]

이후 1938년에 이르러 성신여학교는 “여성들을 위하여 또 사회와 가정의 임무를 위하여 뒤떨어진 여러 여성을 구급지도하며, 견실한 여성을 만들고 정신수양에 힘써 개성지도에 원만한 인격을 함양하고, 가정교육이 실제 생활에 일치하고, 조선 가정생활에 합리할 수 있도록 양성코자 하는 것이 본

335) 「장족의 성신여교 신교사에서 수업」, 『동아일보』, 1937.8.22., 제2면.

336) 이송희, 앞의 논문,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2005, p. 212.

337) 「장족의 성신여교 신교사에서 수업」, 『동아일보』, 1937.8.22., 제2면.; 「성신여학교에 가사과 설치」, 『동아일보』, 1938.3.17., 제2면.

338) 「성신여학교에 서화부를 설치」, 『동아일보』, 1937.12.7., 제3면.

교의 사업입니다.” 라는 운영방침을 밝혔다.³³⁹⁾ 이처럼 성신여학교는 여성교육의 목적을 ‘가정의 임무를 잘 수행해내어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여성’을 양성하기 위한 ‘가정교육’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학년으로는 초등정도의 본과(本科)와 보통학교 졸업생을 수용하는 보습과(補習科)로 두 과를 두었으며, 가정과(家政科)를 새로 증설하여 “가정의 이론과 실습을 수여하고 가정에 필요한 경제와 실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서화부는 여성들의 “정신수양과 가정생활의 합리화에 인도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으로 더욱 확장하였다.³⁴⁰⁾ 이처럼 이숙중은 성신여학교의 교장으로서 여성교육의 확장과 계승을 위한 활동에 주력함에 따라 1938년 5월경에 성신여학교는 교내 학생 수가 400여명에 이르는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³⁴¹⁾ 그러나 당시 성신여학교의 교습 과목은 가사, 재봉, 할팽, 가정 등으로 여성을 가정생활로 한정시키며, 여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강조하는 교육으로 치중되어있었다. 이는 일제가 강요한 조선의 여성상으로 여성을 주체적 인간으로 양성해내는 교육의 측면이 아닌, 주로 가정 내의 여성의 역할로만 국한시킨 모순된 교육이었던 것이다. 당시 성신여학교의 이숙중은 일제의 내선일체 정책과 맞물려 운영되었기 때문에 일제가 강조하였던 현모양처 여성상을 양성해내는 구습의 여성교육으로 조선여성들을 이끄는 여성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점이 있었다.

② 민족주의 여성 계몽운동의 변질

일제는 1931년 만주국을 점령한 이래로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려는 대대적인 침략전쟁을 본격화하기 위해 1936년에 이르러 조선을 침략전쟁의 병

339) 「새 주지로 세상에 나온 성신여교의 전모」, 『동아일보』, 1938.1.4., 제4면.

340) 「새 주지로 세상에 나온 성신여교의 전모」, 『동아일보』, 1938.1.4., 제4면.

341) 「연합대운동전기」, 『동아일보』, 1938.5.28., 제2면.

참기지로 활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문화통치를 포기하고 좀 더 권위적인 통치체제를 구축하여 조선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민족말살정책을 실시하여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새롭게 개조하기 위한 본격적인 황민화정책을 시행하였다. 일제는 조선인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으며,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과 1941년 ‘제4차 조선교육령’ 등을 통해 조선인의 민족의식, 언어, 역사까지 모두 말살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³⁴²⁾

이처럼 당시 조선의 식민지적 상황에 대해 이숙종은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으로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면서 우리 열이 담긴 말을 사용해 왔는데, 일제는 이 땅을 식민지화하면서 내선일체라는 미명 아래 우리말과 글, 이름과 성을 그들 식으로 할 것을 종용하면서 갖은 핍박을 가해 왔다.”라고 회고한 바 있다.³⁴³⁾ 이러한 일제의 군국주의적 통치체제에 의해 이숙종의 성신여학교는 일제가 강요한 황국여성을 양성해내기 위한 수단으로써 운영되어 여성의 부덕을 강조하는 전근대적인 여성교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의 실업교육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1939년 3월 31일부터 성신여학교는 학무당국에 인가를 받아 “시대의 요구에 순응하여 가정교육의 지식기능을 널리 알리어 주부로서의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라는 운영방침으로 기존의 성신여학교에서 ‘성신가정여학교(誠信家政女學校)’로 교명을 변경하게 되었다.³⁴⁴⁾ 이숙종은 당시 학교가 발전하자 일제의 탄압은 정비례로 심해졌다고 회고하였으며, “결핍하면 학교 시찰을 나왔고 모범학교로 지정할 테니 일본식의 가정교육을 하라, 일본인 부교장을 두라고 갖은 방법으로 괴롭히고, 교명이 불손하니 일본전함의 ‘도끼와’란 이름으로 바꾸라고 강요해왔다”라고 하였다.³⁴⁵⁾ 일제는 이숙종이 민족운동의 일환

342) 박찬승, 앞의 책, p. 191, 197-198.

343) 성신학원, 앞의 책, p. 51.

344) 「성신가정여학교 조선에서는 처음 출현」, 『동아일보』, 1939.4.3., 제2면.

345) 「운정 이숙종 여사 내가 겪은 이십세기(23) 물렸던 생애비화 후세에 남기련다」, 『경향

으로 활동하였던 조선어 연구단체인 조선어학회도 1943년에 강제 해산시켰으며, 관계자들을 투옥하여 조선어를 연구하고 보급하였던 학자들에게도 탄압을 가하는 등 민족운동마저도 빼앗으려고 강요하였다.³⁴⁶⁾ 그러나 이숙중은 이러한 일제의 꾀박에도 불구하고 “성신에는 끝까지 일인(日人) 선생을 안 두었다. 오히려 일제 말기 그들의 발악이 최고조인 때에…김윤경, 이운행, 방신영 선생 등 한글학자들을 받아들여 곳곳이 버티었다.”³⁴⁷⁾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숙중은 성신여학교를 통해 여성 계몽운동은 포기하였으나, 최소한 민족운동은 끝까지 유지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제의 탄압이 본격적으로 가중되기 시작한 1938년부터 일제는 황민화 정책과 전쟁동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하 국민정신총맹)’을 발족하였으며, 1940년에는 이를 더 확대·개편한 ‘국민총력조선연맹’을 조직하여 연맹의 지도하에 조선 내의 모든 단체와 전조선인을 움직이게 하였다. 더 나아가 일제는 조선의 지식인, 언론인, 종교인 등의 친일 지식인들을 이용하여 전시동원과 전쟁협력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³⁴⁸⁾

이에 따라 애국금차회(愛國金釵會), 조선언론보국회(朝鮮言論報國會), 조선임전보국단(朝鮮臨戰報國團)등의 수많은 친일단체가 조직되었으며, 그 중 친일적인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단체로는 전위여성격려대, 부인생활정의강연대, 조선교화단체연합회(朝鮮教化團體聯合會),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대(朝鮮臨戰報國團婦人隊)등이 있었다.³⁴⁹⁾ 특히 이러한 여성친일단체에 중심적인 활동은 주로 조선여성의 지식층이었던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던 여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1920년대 이후 주로 부르주아 민족주

신문』, 1972.6.10., 제4면.

346) 박찬승, 앞의 책, p. 199.

347) 「윤정 이숙중 여사 내가 겪은 이십세기(23) 문혔던 생애비화 후세에 남기련다」, 『경향신문』, 1972.6.10., 제4면.

348)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동아일보』, 1938.7.2., 제1면.; 박찬승, 앞의 책, pp. 202-204.

349) 박찬승, 앞의 책, p. 204.; 한국여성연구회, 앞의 책, p. 288.

의 여성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이었다. 일제는 내선일체 정책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해 당시 조선여성들을 지도하며 이끌고 있던 교육계의 여성들을 어용단체로써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성신여학교를 이끈 이숙종을 비롯한 김활란, 박인덕, 황신덕 등이 친일여성단체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³⁵⁰⁾ 이들은 주로 각종 순회강연, 연설, 좌담회, 방송 등을 통해 조선여성들에게 전쟁의식을 고취시키고 일제가 주장하는 내선일체 정책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일제의 침략전쟁을 위해 창씨개명과 학도병 권유, 근로대, 정신대 등을 미화하여 조선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조장하는데 앞장섰다.³⁵¹⁾

특히 이러한 친일여성들 중 유일한 여성미술가였던 이숙종은 1937년 1월부터 친일여성단체인 ‘방송선전협의회’에 소속되었으며, 1938년 6월 24일 시내 종로 중앙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여성 각 단체 연합의 시국강연으로는 처음” 개최된 시국강연회에서 ‘비상시국에 처한 부인 보국’이라는 연제로 첫 시국강연을 하게 되었다.³⁵²⁾ 이를 시작으로 이숙종은 국민정신총명에서 조직한 순회 강연반에 참여하였으며, 전국을 순회하며 ‘비상시에 처한 우리의 생활개선’과 ‘조선부인의 새로운 의무’라는 연제 등을 연설하였다.³⁵³⁾ 이는 한 가정의 어머니를 상대로 일제의 탄압정책을 충실히 따르게 하고, 자녀를 잘 양성하여 긴박한 전쟁 상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식화하기 위한 강연이었다.

350) 친일행위를 한 대표적 여성으로는 교육계에서 김활란, 이숙종, 송금선, 박인덕, 손정규, 황신덕, 유각경, 고헌경 등을 들 수 있고, 문학계에서는 모윤숙, 노천명, 최정의 등이 있었다 (한국여성연구회, 앞의 책, p. 290).

351) 한국여성연구회, 앞의 책, pp. 294-295.; “일제의 마지막 발악에 많은 저명한 교육가들이 강연회 참가, 국민복 착용, 일어 방송 등에 참가해야했던 쓰라린 기억을 지금도 운정은 잊지 않고 있다” (「운정 이숙종 여사 내가 겪은 이십세기(23) 문혔던 생애비화 후세에 남기련다」, 『경향신문』, 1972.6.10., 제4면).

352) 「비상시의 여성 시국강연회 입사일, 기독교관서」, 『동아일보』, 1938.6.22., 제2면.

353) 「순회 강연반 파송」, 『동아일보』, 1938.11.1., 제2면.; 「부인강연회개최」, 『동아일보』, 1938.11.9., 제2면.; 「각지시국강연」, 『동아일보』, 1938.11.13., 제3면.; 「제2회 총후강조 부인강연회」, 『동아일보』, 1939.10.25., 제2면.

이처럼 여성 친일단체들은 “조선 가정부인을 위하여 일층 비상시국 인식을 깊이하고 단결·협력하여 국책을 수행하여 그 실천을 촉진” 하고자 전국적으로 활동하였다.³⁵⁴⁾ 이를 기반으로 이숙종을 비롯한 교육계의 지식층 여성들은 다양한 친일단체에 가담하여 1945년 해방 이전까지 일제의 내선일체 정책에 앞장서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³⁵⁵⁾ 이숙종은 당시 이러한 자신의 친일행적에 대하여 “학교설립과 여성교육자체가 일제에 대한 저항이었지만, 당시 총독부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학교를 지킬 수 없었던 한국 교육자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³⁵⁶⁾라고 회고한 바 있다.

이처럼 식민지 말기 친일단체에서 주로 활약한 여성들은 기존에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사회진화론에 따른 실력양성론을 제기하였던 민족주의계열이었다. 이에 따라 민족주의계열의 여성운동가들은 실력이 곧 세력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여학교를 설립하는 등 여성교육계를 이끌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력양성론에 따른 교육체제를 옹호해주는 정치체제는 총독부였기 때문에 교육체제에 대해서는 일제의 지원이나 간섭이 불가피하였

354) 「제2회 총후강조 부인강연회」, 『동아일보』, 1939.10.25.

355) ‘〈부표〉 친일 단체 및 친일 여성 명사의 활동’에서 ‘이숙종’ 부분 참고(한국여성위원회, 앞의 책, pp. 304-308).

이숙종의 친일단체 및 활동			
단체	시기	역할 및 지위	내용
방송선전협의회	1937.1.13.	부인 강좌반	황민화를 위한 교육 강화
조선부인연구회	1937.1.	연사	주제: 가정 보국운동으로서의 국민 생활의 기본양식
여성단체연합 시국 강연	1938.6.24.	연사	비상시국에 처한 부인교육
국민정신총동원연맹	1938.11.9.	순회 강연반/연사	비상시에 처한 우리의 생활 개선
국민정신총동원연맹	1938.11.13.	순회 강연반/연사	부녀 생활에 관한 강연
국민정신총동원연맹	1939.8.5.	순회 강연반/여강사	시국 추여에 대한 인식, 국민정신 동원, 백역 저축, 생활쇄신
동민회 부인강연회	1939.10.25.	연사	조선부인의 새로운 의무
임전대책협력회	1941.8.	회원	
전위 여성 격려 대강연	1941.9.		
부인생활 정의 강연	1941.10.30.	연사	부인문제와 총력 운동
조선임전보국단	1941.12.22.	평의원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대	1942.1.5.	지도위원	
국민총력 조선연맹	1943.1.	연성부 연성위원	

356) 「윤정 이숙종 여사 내가 겪은 이십세기(23) 물렸던 생애비화 후세에 남기련다」, 『경향신문』, 1972.6.10., 제4면.

다.³⁵⁷⁾ 따라서 그들은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실력양성과 민족개조가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겼으며, 조선이 강력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³⁵⁸⁾ 이에 따라 1930년대에는 일본에 기대어 조선민족의 번영을 꿈꿨던 것이며, 이로써 그들은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 친일행적을 일삼게 되었던 것이다.³⁵⁹⁾ 이는 친일여성들 중에 여성교육계에 종사자가 많은 이유를 반증하는 부분이다.

이처럼 당시 조선여성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여성 계몽운동을 이끌어 오던 민족주의계열의 여성운동가들은 여성운동의 최종적 목표로서 여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이숙중은 민족주의계열 여성운동가로서 교육을 통한 실력양성을 목적으로 학교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일제에 동화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광복 이후 이숙중은 학교를 더욱 발전시켜 운영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이상적인 여성 계몽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 여성운동에도 매진하게 되었다.³⁶⁰⁾ 그러나 이숙중은 여성교육을 통해 일제의 정책에 협력함으로써 여성교육의 본질을 왜곡시켜버렸으며, 제국주의를 추종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을 희생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친일 행적은 민족주의계열의 여성 계몽운동의 본질을 변질시켰으며, 그 동안 쌓아 온 근대시기 여성운동의 방향성을 왜곡시켜버린 부분에서 한계점을 지녔다.

357) 전승주, 「1920년대 민족주의 문학과 담론」, 『민족문화사연구』 25호, 민족문화사학회, 2004, p. 37.

358) 당시 강대국들은 약소국의 민족자결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노선을 통한 조선의 독립 쟁취는 무장투쟁을 통한 독립만큼이나 비현실적인 대안이었다. 따라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대안은 조선에서 실력양성과 문화운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전재호, 앞의 논문, pp. 108-109).

359)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일본의 힘을 보면서 조선 내 많은 지식인들은 민족독립의 희망을 잃어 갔고, 희망을 잃은 지식인들은 민족운동에서 점차 탈락하면서 친일의 길에 발을 들여놓았다. 1930년대에 국내의 반일운동, 특히 민족주의자들의 운동이 쇠퇴한 것은 결코 일제의 탄압이 가중되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한홍구, 『대한민국사』, 한겨레신문사, 2003, p. 92. 전재호, 앞의 논문, p. 110에서 재인용)

360) 이숙중은 광복이후 여성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1946년 ‘독립축성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기획조사부장을 맡았으며, 1959년에는 국내의 9개 여성운동단체를 통합하여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발족하여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1960년에는 ‘국제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하여 그간 국내의 활동을 세계적으로 확장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범여성가족법개정추진회’의 회장을 겸임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 앞의 책, pp. 168-169).

V.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한국 근대시기 여성미술가들의 여성운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여성운동의 전체적인 전개 양상을 사상적 범주에 따른 시기적 흐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여성미술가들은 근대기 전체적인 여성운동의 흐름에 따라 식민지 사회의 제국주의와 봉건적 가부장제의 인습, 그리고 자본주의적 계급으로 억압받는 조선여성의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타파하고자 여성운동에 앞장섰으며, 그들의 전문 분야인 미술계에서도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를 변혁하고자 시도하기도 하였다.

먼저 1910년대는 여성운동의 발단 단계로써 여성들의 여권의식과 민족의식이 형성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나혜석은 일본유학을 통해 자유주의 여성해방운동의 영향을 받아 조선의 민족문제와 여권문제를 드러내는 자유주의 여권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나혜석은 조선여성으로서 최초로 서양화 개인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남성과 비등한 입장에서 서양화라는 하나의 전문적인 분야를 통해 실력 있는 전문인으로 성장하여 여성의 자아실현 및 입지를 다질 수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나혜석은 주로 개인적인 여성운동을 전개하여 1920년대의 본격적인 여성운동의 단초를 제공하는데 일조하였다.

1920년대는 3·1운동을 계기로 여성운동이 보다 발전되어 여성들이 ‘단체’라는 틀 안의 결속으로 보다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 전개되던 시기였다. 1920년대 초의 여성운동을 대표하는 방무길은 부르주아 민족주의계열의 여성단체에 귀속되어 여성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특히 방무길은 서화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여성교육기관을 통해 조선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을 따로 마련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순회하는 서화전람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적인 민족계층을 기반으로 여성의 주체의식에 대

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발전시키는 여성 계몽활동을 전개하여 민족주의적 여성운동의 범주를 확장시켰다. 이어 1920년대 중반부터 사회주의 사상이 수용됨에 따라 이 시기를 대표하는 정칠성은 앞서 나혜석과 방무길이 다루지 못했던 소외된 무산계급 여성들에 중점을 둔 사회주의 여성운동단체에 앞장섰다. 특히 정칠성은 여성들에게 자수를 지도함으로써 실업적 측면에서 여성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독립의지와 주체의식을 고취시켰다. 또한 정칠성은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 민족주의계열과 사회주의계열의 두 여성단체의 통일전선을 대표하는 근우회를 결성하는데 일조함으로써 여성운동 전체가 보다 단결하여 조선여성의 특수한 반제·반봉건적 구조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앞장섰다. 이러한 여성운동단체의 협동전선 상황은 민족주의를 표방한 이숙종이 영향을 받게 되어 조선의 미술연구에 있어 무산계급의 미술 향락에도 주목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 등 여성운동의 보다 확장된 층위를 보여주었다.

1930년대는 일제의 내선일체 정책으로 식민지배가 보다 더 강화된 시기였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민족주의계열의 이숙종은 여권운동 및 민족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성신여학교를 설립함으로써 민족주의 여성 계몽운동이 한층 심화 및 제도화되는 발전을 이루었다. 이숙종은 성신여학교를 학무국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 정규 기관으로 정착시켰다. 그러나 그녀가 운영한 성신여학교의 교육방침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 동화됨으로써 기존의 민족주의계열의 여성 계몽운동에서 강조한 계몽 교육적 측면에서 조선 여성의 역할을 가정교육으로 한정시키는 변질된 측면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이숙종은 끝까지 성신여학교에는 일본인 교원을 두지 않는 등 민족의지를 발휘한 민족운동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1910년대부터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성미술가들은 여성운동의 주체로서 활발히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여성운동에서 미술 분

야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나타났다.

첫 번째로 일제시기 총독부의 여성 중등교육 과정에서는 ‘도화’, ‘재봉 및 수예’, ‘습자’ 등의 미술 관련 과목이 학교수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근대적 신교육으로 새롭게 등장하였다. 비록 근대시기 미술 관련 과목의 이면은 식민지 교육으로써 여성의 부덕을 강조하는 남녀차별적인 중등교육 과정이었지만, 기존에 남성으로만 한정되었던 전통적인 미술 분야는 근대적 신교육으로 규정되어 여성들에게도 미술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두 번째로 미술 분야는 훗날 교사로서 사회진출이 용이한 과목이었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다수의 여성들이 일본유학 및 국내의 전문교육기관에서 미술 분야의 과목을 전공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서양화 및 자수와 같은 근대적 미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제도가 미비하였기 때문에, 이를 전공하려는 조선여성들은 주로 일본으로 유학을 단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그들은 주로 문명이 앞선 일본에서 신사상 및 신지식을 직접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으며, 그들 스스로의 주체의식이 용이하게 형성될 수 있었다. 이러한 미술 분야의 특수성으로 조선여성들은 신여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후, 조선으로 건너와 미술교사로 활동함으로써 조선여성들에게 신사상 및 신지식을 전파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근대시기 서화 및 서양화 등을 포괄하는 도화적 측면의 미술 분야는 조선미전과 개인전시회와 같은 전시 제도를 통해 일반 사회의 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남성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성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으며, 남녀 구별 없이 여성도 같은 미술인으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개인의 실력을 통해 전문인으로 부각되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네 번째로 근대시기 자수 및 편물 등의 실업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미술

분야는 여성의 전통적인 부덕이 강조되었음에도, 여성들만의 역할로 편중된 과목으로써 조선 여성들의 주체의식과 경제적 자립의식이 형성이 용이하였다. 이처럼 자수 및 편물은 전통적 여성의 역할과 근대적 신여성으로서의 역할이 절충된 특수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실질적인 경제적 활동을 이루게 하는 직업교육으로써 여성들 스스로가 자수 및 편물 등의 실질적인 제작활동으로 생산에서 판매까지 이루어지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외된 무산여성에 대한 여성운동이 단순히 발언적인 선전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활동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제의식을 한층 일깨울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다.

이처럼 근대시기 전체 여성운동에서는 미술 분야의 특성이자 장점이 가시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근대시기 여성미술가들은 여성으로서의 주체의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여성운동을 담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제 근대시기 여성미술가들의 여성운동 활동을 조망함으로써 미술을 통한 새로운 자아상의 실현과 사회적·역사적 기여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다만 여성미술가들이 여성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여성의식이나 민족의식과 같은 여성운동에 대한 이념이 그들의 미술작품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참 고 문 헌

1. 신문·잡지

『경향신문』, 1973.3.2., 1974.8.28.

『계벽』, 1924.6.1.(제48호), 1924.7.1.(제49호)

『공립신보』, 1906.12.7., 1907.4.26., 1907.7.12., 1908.9.2.

『근우』, 1929.5.10.(제1호)

『기호홍학회월보』, 1908.10.25.(제3호), 1909(제7호)

『대한매일신보』, 1909.7.15.

『독립신문』, 1896.9.5., 1897.5.18., 1898.9.9., 1898.9.15., 1898.9.28., 1898.10.23.,
1899.2.25., 1899.3.1., 1899.5.26., 1899.9.21.

『동아일보』, 1921.2.26., 1921.3.23., 1921.12.3., 1922.3.22., 1923.2.7., 1923.3.14.,
1923.8.22., 1923.8.29., 1923.9.12., 1923.9.22., 1923.10.1., 1923.10.24., 1924.2.9.,
1924.3.15., 1924.3.26., 1924.4.8., 1924.4.12., 1924.4.25., 1924.5.22., 1924.5.29.,
1924.7.20., 1924.10.3., 1925.2.24., 1925.2.26., 1925.3.5., 1925.3.7., 1925.3.8.,
1925.4.2., 1925.6.18., 1925.11.7., 1926.1.15., 1926.5.14. 1926.5.20., 1926.6.12.,
1927.4.20., 1927.1.20., 1927.2.17., 1927.4.21., 1927.4.27., 1927.4.28., 1927.5.29.,
1927.5.31., 1927.6.8., 1927.6.27., 1927.9.14., 1927.10.6., 1927.10.14., 1927.11.9.,
1927.12.6., 1928.1.1., 1928.1.6., 1928.1.15., 1928.5.3., 1929.1.22., 1929.2.19.,
1929.7.25., 1929.8.6., 1929.10.2., 1929.10.20.~25, 1929.12.2., 1930.1.2.,
1930.10.13.~24, 1930.12.21., 1931.1.12., 1931.5.27., 1932.9.15., 1932.12.19.,
1933.2.4., 1933.4.21., 1934.11.6.~10, 1934.11.30., 1934.12.7., 1934.12.19.,
1934.12.30., 1935.1.5., 1935.1.8., 1935.1.18., 1935.8.5., 1935.7.13., 1935.12.12.,
1936.3.27., 1936.5.6., 1936.8.28., 1937.8.22., 1937.12.7., 1938.1.4., 1938.3.17.,

1938.5.28., 1938.6.22., 1938.7.2., 1938.11.1., 1938.11.9., 1938.11.13., 1939.4.3.,
1939.10.25., 1972.12.23., 1980.12.4.

『만국부인』, 1932.10.1.(제1호)

『매일경제』, 1982.4.6.

『매일신문』 1898.8.13., 1898.10.13.

『매일신보』, 1913.4.1., 1914.4.7., 1915.7.13., 1916.7.25., 1919.1.21., 1919.1.30.~31,
1919.2.1., 1919.2.2.~4, 1919.2.6.~7, 1922.5.22., 1922.6.1.~3, 1922.7.20., 1923.2.28.,
1923.3.14., 1923.3.17., 1923.3.18., 1923.3.25., 1923.3.31., 1923.9.28., 1924.6.3.,
1927.5.12., 1927.6.20.

『별건곤』, 1930.7.1.(제30호)

『삼천리』, 1930.5.1.(제6호), 1931.2.1.(제12호), 1932.3.1.(제4권3호), 1933.3.1.(제5
권3호), 1933.9.1.(제5권9호), 1934.5.1.(제6권5호), 1934.6.1.(제6권7호), 1935.12.1.
(제7권11호), 1937.1.1.(제9권 1호), 1938.5.1.(제10권5호), 1939.1.1.(제11권1호)

『시대일보』, 1924.4.7., 1925.7.11.

『신가정』, 1935.5.

『신한민보』, 1923.3.15., 1911.4.19.

『여자계』, 1918.3.22.(제2호), 1918.9.10.(제3호), 1920.3.25.(제4호)

『조선일보』, 1923.5.5., 1923.5.9., 1925.5.31., 1926.1.4., 1926.5.20.~23., 1928.1.1.,
1931.1.1.

『조선중앙일보』, 1936.3.29.

『조선총독부관보』, 1912.4.9.(제482호)

『중외일보』, 1928.3.16., 1929.9.1., 1930.1.1.

『학지광』, 1914.12.3.(제12호), 1917.4.19.(제12호), 1917.7.19(제13호)

2. 단행본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역대서화가사전』 上,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제13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4.
- _____,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제14권, 과천: 문교부 국사편찬위원회, 1991.
- 김형목·김홍희·문정희·박영택·박환·최홍규, 『나혜석, 한국 근대사를 거닐다』, 서울: 푸른사상, 2011.
- 박용옥, 『한국여성 항일운동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
- 박찬승, 『한국 근현대사를 읽는다』, 경인문화사, 2010.
- 박혜란, 「1920년대 여성청년단체의 조직과 활동」,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1995.
- 성신학원, 『운정의 향기로』,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 유길준, 재훈 역, 『서유견문』, 명문당, 2003.
- 이옥수, 『한국근세여성사화』, 규문각, 1985.
- 이현희, 『한국근대여성개화사』, 이우출판사, 1978.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2.
- 정미량, 『1920년대 재일조선유학생의 문화운동』, 지식산업사, 2012.
- 최은희, 『한국개화여성열전』, 조선일보사출판국, 2003.
-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역사 속의 여성인물』 下, 한국여성개발원, 1998.
- 한국여성연구회, 『한국여성사, 근대편』, 풀빛, 1992.
- 한문영, 『한국서화가인물사전』, 범우사, 2000.

3. 학술지·학위논문

- 가와나 우유코, 「1920년대 조선여성의 일본유학과 여성해방론」, 연세대학

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강혜경, 「숙명여고보 맹휴사건으로 본 식민지 여성교육」,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7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10.

관원백합, 「1920년대의 여성운동과 근우회」,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김경애, 「나혜석의 여성해방론의 실현과 갈등」, 『여성과 역사』 제19권, 한국여성사학회, 2013.

김성은, 「1930년대 황애덕의 농촌사업과 여성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5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회, 2011.

김소연, 「한국 근대 여성의 서화교육과 작가활동 연구」, 『미술사학』 제20권,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6.

_____, 「한국 근대 ‘동양화’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_____, 「한국 근대 전문 서화교육의 선도, 서화미술회」, 『미술사논단』 36호, 한국미술연구소, 2013.

김용철, 「도쿄미술학교의 입학제도와 조선인 유학생」, 『동양미술사학』 제6권, 동양미술사학회, 2005.

김지혜, 「미술가에서 선각자로, 근대기 제국을 경험한 여성 미술가들」, 『나혜석연구』 제8권, 나혜석학회, 2016.

김형목, 「나혜석의 현실인식과 민족운동에서 역할」, 『숭실사학』 제24권, 숭실사학회, 2010.

목수현, 「일제하 이왕가 박물관의 식민지적 성격」, 『미술사학연구』 227호, 한국미술사학회, 2000.

문정희, 「동아시아 관전(官展)의 심사위원과 지방색」, 『한국근대미술사학』 제11권, 한국미술사학회, 2003.

- _____, 「나혜석 회화창작에 나타난 근대적 자아」, 『한국문화연구』 제11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6.
- 박계리, 「일제시대 ‘조선 향토색’」,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4권,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1996.
- 박순섭, 「1920~30년대 정철성의 사회주의운동과 여성해방론」, 『여성과 역사』 제27권, 한국여성사학회, 2017.
- 박승희, 「대한제국기 찬양회의 설립과 활동」,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사학 석사학위논문, 2007.
- 박정애, 「1910-1920년대 초반 여자일본유학생 연구」, 숙명여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 박찬승, 「1920년대 독일유학생과 그 사상적 동향」, 『한국근대사연구』 제30권, 한국근대사학회, 2004.
- 백옥경, 「근대 한국여성의 일본유학과 여성현실인식」, 『이화사학연구』 제39권, 이화여자대학교 사학연구소, 2009.
- 송인자, 「개화기 여성교육론 연구」, 숙명여대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 신수경, 「김주경의 해방 이전 민족미술론 연구」, 『인물미술사학』 제9권, 인물미술사학회, 2013.
- 신창호, 「『동몽선습』에 나타난 아동교육과정의 특징」, 『한국교육사학』 제33권 3호, 한국교육사학회, 2011.
- 여운실, 「1990년대 여자야학 연구」, 『성신사학』 제12·13권, 동선사학회, 1995.
- 이경수, 「1910~20년대 재일본 조선유학생 친목회지에 나타난 신여성 담론」, 『한국학연구』 제31권, 2009.
- 이배용, 「일제시기 신여성의 개념과 연구사적 검토」, 『역사문화연구』 제

- 12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0.
- _____, 「19세기 개화사상에 나타난 여성관」, 『한국사상사학』 제20권, 한국사상사학회, 2003.
- 이병철, 「교육 계몽담론과 여성의 위상」, 『청소년과 효문화』 제21권, 한국청소년효문화학회, 2013.
- 이송희, 「1920년 여성해방론에 관한 연구」, 『역사와 경계』 제25,26권, 부산경남사학회, 1994.
- _____, 「대한제국말기 계몽단체의 여성교육론」, 『이대사원』 제28권,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1995.
- _____, 「일제하 여성운동의 전개」, 『유관순연구』 제5호,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2005.
- _____, 「한말, 일제하의 여성교육론과 여성교육정책」, 『여성연구논집』 제16권,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2005.
- _____, 「신여성 나혜석의 민족의식과 민족운동」, 『여성연구논집』 제17권,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2006.
- _____, 「한국 근대사 속의 여성 리더십」, 『여성과 역사』 제15권, 한국여성사학회, 2011.
- _____, 「한말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일 연구」, 『대한제국기의 애국계몽운동과 사상』, 국학자료원, 2011.
- 이애선, 「아나키즘과 생명의 발현으로서의 일본 후기인상파」, 『미술사학보』 제34호, 미술사학연구회, 2014.
- 장인모, 「1920년대 근우회 본부 사회주의자들의 여성운동론」, 『한국사연구』 제142권, 한국사연구회, 2008.
- 전승주, 「1920년대 민족주의 문학과 담론」, 『민족문학사연구』 25호, 민족문학사학회, 2004.

- 전재호, 「식민지 시기의 민족주의 연구: 국내 부르주아 우파와 사회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제16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 정미량, 「1920년대 재일조선유학생의 자유주의적 문화운동론 연구」, 『사회와 역사』 제74권, 한국사회사학회, 2007.
- 정소영, 「1923년 조선부업품공진회의 개최와 영향」, 『승실사학』 제38권, 승실사학회, 2017.
- 조경미, 「1920년대 사회주의여성단체에 관한 연구」, 『한국학연구』 제2권, 숙명여자대학교, 1992.
- 조경원, 「개화기 여성교육론의 양상 분석」, 『교육과학연구』 제28권,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1998.
- 조규태, 「한국 근대 정치·사회단체의 ‘국민’ 만들기」, 『승실사학』 제29집, 승실사학회, 2017.
- 최경욱, 「메이지기 일본의 서양 문명 수용과 번역」, 『번역학연구』 제6권 2호, 한국번역학회, 2005.
- 홍선표, 「고희동의 신미술운동과 창작세계」, 『미술사논단』 제38권, 한국미술연구소, 2014.
- 홍인숙, 「여학교 주변의 여자들」,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3권,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도 판 목 록

- [도1] 이화학당 정동 한옥교사
- [도2] 토산애용부인회 모임 사진 (『동아일보』, 1923.2.7., 제3면)
- [도3] 1910년대 삼일여학교 교사와 학생 모습
- [도4] 진명여학교 개교 1주년 기념식 사진
- [도5] 1914년 무렵 남성 누드모델을 그리는 도쿄여자미술학교 서양화과 수업 광경
- [도6] 1910년경 동경여자미술학교 서양화과 수업 광경
- [도7] 1910년 『시라카바(白樺)』 창간호 표지
- [도8] 1911년에 발간된 『세이토(靑鞆)』 창간호 표지
- [도9] 1917년에 창간된 『여자계(女子界)』 제5호의 표지
- [도10] 글씨 쓰는 방무길의 모습 (『매일신보』, 1922.5.22., 제3면)
- [도11] 방무길, 「죽(竹)」 (『매일신보』, 1928.2.20., 제3면)
- [도12] 방무길, 「매죽(梅竹)」, 조선미전 사군자부 입선작
(『동아일보』, 1926.5.20., 제3면)
- [도13] 숙명여고보 시절 학우들과 이숙종의 모습 (두 번째 줄 오른쪽 다섯 번째가 이숙종)
- [도14] 동경여자미술학교 재학 당시 그림 그리는 이숙종의 모습
- [도15] 동경유학 시절 동급생들과 이숙종의 모습, 1926.1.14. (세 번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이숙종)
- [도16] 동경여자미술학교 2학년 재학시절 자신의 얼굴을 석경에 비추어 스케치한 이숙종의 초상화 (1927.5.10., 『동아일보』, 제3면)
- [도17] 이숙종의 동경유학 시절, 삼하도(三河島)의 노동자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과 이숙종의 모습 (앞줄 오른쪽 두 번째가 이숙종)

- [도18] 나혜석, 「선달대목(1)」 (『매일신보』, 1919.1.21., 제3면)
 나혜석, 「선달대목(2)」 (『매일신보』, 1919.1.30., 제3면)
 나혜석, 「선달대목(3)」 (『매일신보』, 1919.1.31., 제3면)
 나혜석, 「선달대목(4)」 (『매일신보』, 1919.2.1., 제3면)
 나혜석, 「초하루날(6)」 (『매일신보』, 1919.2.2., 제3면)
 나혜석, 「초하루날(7)」 (『매일신보』, 1919.2.3., 제3면)
 나혜석, 「초하루날(8)」 (『매일신보』, 1919.2.4., 제3면)
 나혜석, 「초하루날(9)」 (『매일신보』, 1919.2.6., 제3면)
 나혜석, 「초하루날(10)」 (『매일신보』, 1919.2.7., 제3면)
- [도19] 나혜석, 「김일엽의 하루」 (『신여자』, 1920.6)
- [도20] 경성일보사 내청각에 개최된 나혜석의 개인 전람회에 출품된 작품
 (『동아일보』, 1921.3.19., 제3면)
- [도21] 제1회 고려미술회 회원전 사진, 1923.9.1. (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이숙종, 세 번째가 나혜석)
- [도22] 여성 규수들이 선생님 앞에서 글씨를 쓰고 있는 창신서화연구회의
 실내 광경 (『매일신보』, 1923.2.28., 제3면)
- [도23] 창신서화전람회의 첫날 광경 (『매일신보』, 1923.3.18., 제3면)
- [도24] 동북 편물 강습 사진 (『동아일보』, 1927.9.14., 제3면)
- [도25] 본사를 견학하는 조선여자기예원 학생들 사진
 (『동아일보』, 1927.11.9., 제5면)
- [도26] 서울 종로 YMCA에서 열린 근우회 창립총회모습, 1927.5.27.
- [도27] 신간회 창립 2주년기념 사진 (『동아일보』, 1929.2.17., 제4면)
- [도28] 1929년 7월 근우회 전국대회 제1일 광경 (『동아일보』, 1929.7.28.,
 제2면)
- [도29] 경성여자상업학교 금화료 기숙생들과 이숙종의 모습 (두 번째 줄 왼

쪽에서 여덟 번째가 이숙중)

[도30] 1930년대 금화료의 전경

[도31] 1935년 온양에 있는 조선어학회 모임 (앞쪽 왼쪽부터 다섯 번째가 이숙중, 『경향신문』, 1972.6.10., 제4면)

[도32] 조선어학회의 표준어 사정위원들과 이숙중의 모습, 1935.1.4. (가운뎃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이숙중)

[도33] 이숙중, 「붉은 건물이 있는 교외」, 1930, 제9회 조선미전 입선작, 조선미술전람회 도록

[도34] 동유회총회광경 사진 (『동아일보』, 1934.7.17., 제6면)

[도35] 여성단체 총 간친회 모습 (『조선중앙일보』, 1936.3.29., 제2면)

[도36] 1936년경 태화여학교 인수 후 찍은 이숙중 사진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이숙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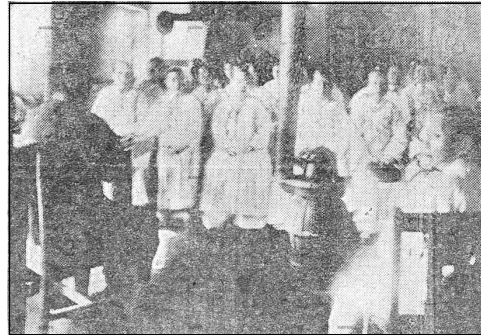
[도37] 성신여학교 초창기 견지동 교사 앞에서 직원들과 이숙중의 모습 (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이숙중)

[도38] 성신여학교 서화부에서 묵화 그리는 장면 (『동아일보』, 1938.1.4., 제11면)

도 판



[도1] 이화학당 정동 한옥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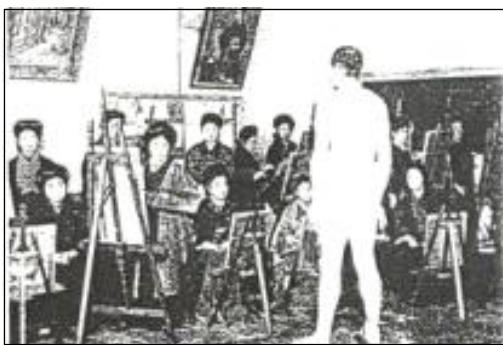
[도2] 토산애용부인회 모임 사진
(『동아일보』, 1923.2.7., 제3면)



[도3] 1910년대 삼일여학교 교사와 학생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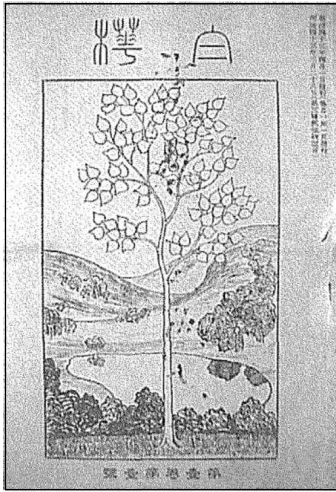
[도4] 진명여학교 개교 1주년 기념식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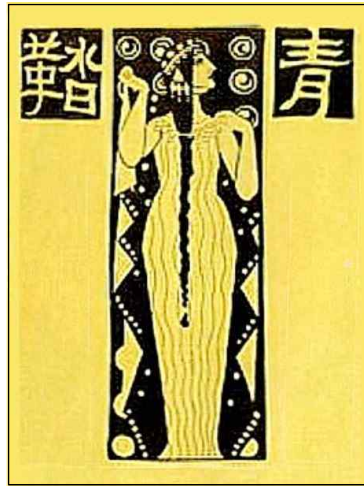
[도5] 1914년 무렵 남성 누드모델을 그리는 동경여자미술학교 서양화과 수업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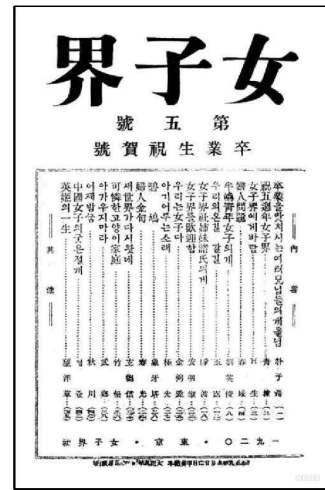
[도6] 1910년경 동경여자미술학교 서양화과 수업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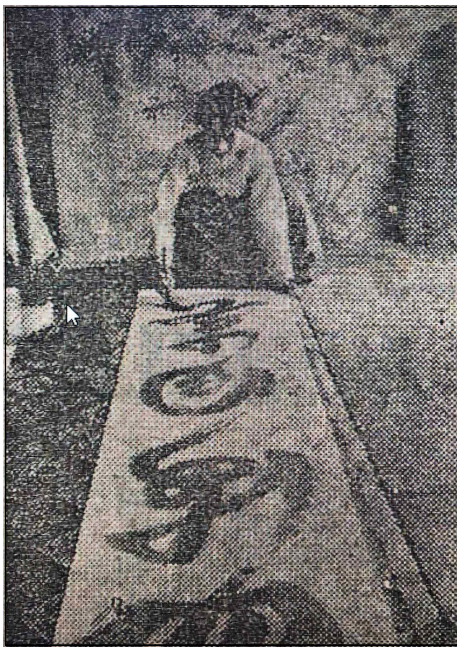
[도7] 1910년 『시라카바(白樺)』 창간호 표지



[도8] 1911년에 발간된 『세이토(靑鞆)』 창간호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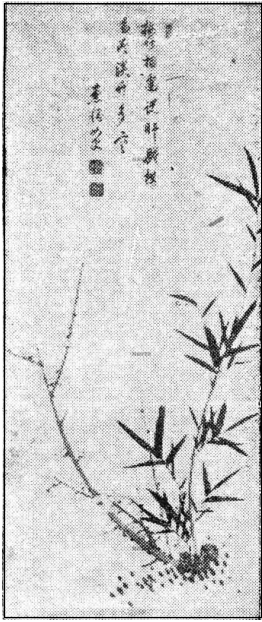
[도9] 1917년에 창간된 『여자계(女子界)』 제5호의 표지



[도10] 글씨 쓰는 방무길의 모습
(『매일신보』, 1922.5.22., 제3면)



[도11] 방무길, 「죽(竹)」
(『매일신보』, 1928.2.20., 제3면)



[도12] 방무길, 「매죽(梅竹)」,
조선미전 사군자부 입선작
(『동아일보』, 1926.5.20., 제3면)



[도13] 숙명여고보 시절 학우들과 이숙종의 모습
(두 번째 줄 오른쪽 다섯 번째가 이숙종)



[도14] 동경여자미술학교 재학 당
시 그림 그리는 이숙종의 모습



[도15] 동경유학 시절 동급생들과 이숙종의 모습,
1926.1.14. (세 번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이숙종)



[도16] 동경여자미술학교 2학년 재학시절 자신의 얼굴을 석경에 비추어 스케치한 이숙중의 초상화 (1927.5.10., 『동아일보』, 제3면)



[도17] 이숙중의 동경유학 시절, 삼하도(三河島)의 노동자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과 이숙중의 모습(앞줄 오른쪽 두 번째가 이숙중)



[도18] (상단 첫 번째) 나혜석, 「선달대목(1)」 (『매일신보』, 1919.1.21., 제3면)
 (상단 두 번째) 나혜석, 「선달대목(2)」 (『매일신보』, 1919.1.30., 제3면)
 (상단 세 번째) 나혜석, 「선달대목(3)」 (『매일신보』, 1919.1.31., 제3면)
 (상단 네 번째) 나혜석, 「선달대목(4)」 (『매일신보』, 1919.2.1., 제3면)
 (하단 첫 번째) 나혜석, 「초하루날(6)」 (『매일신보』, 1919.2.2., 제3면)
 (하단 두 번째) 나혜석, 「초하루날(7)」 (『매일신보』, 1919.2.3., 제3면)
 (하단 세 번째) 나혜석, 「초하루날(8)」 (『매일신보』, 1919.2.4., 제3면)
 (하단 네 번째) 나혜석, 「초하루날(9)」 (『매일신보』, 1919.2.6., 제3면)
 (하단 다섯 번째) 나혜석, 「초하루날(10)」 (『매일신보』, 1919.2.7., 제3면)



[도19] 나혜석, 「김일엽의 하루」
(『신여자』, 1920.6)



[도20] 경성일보사 내청각에 개최된 나혜석의 개인 전람회에 출품된 작품
(『동아일보』, 1921.3.19., 제3면)



[도21] 제1회 고려미술회 회원전 사진, 1923.9.1.
(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이숙중, 세 번째가 나혜석)



[도22] 여성 규수들이 선생님 앞에서 글씨를 쓰고 있는 창신서화연구회의 실내 풍경 (『매일신보』, 1923.2.28., 제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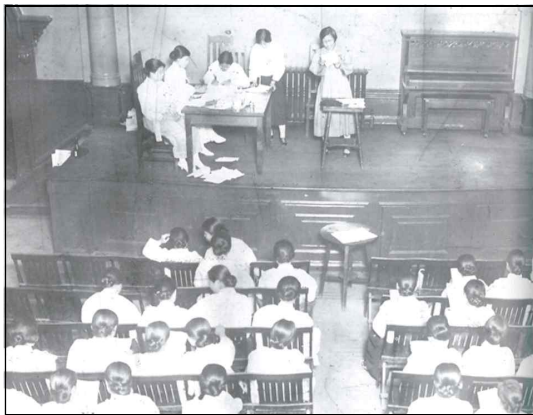
[도23] 창신서화전람회의 첫날 풍경 (『매일신보』, 1923.3.18., 제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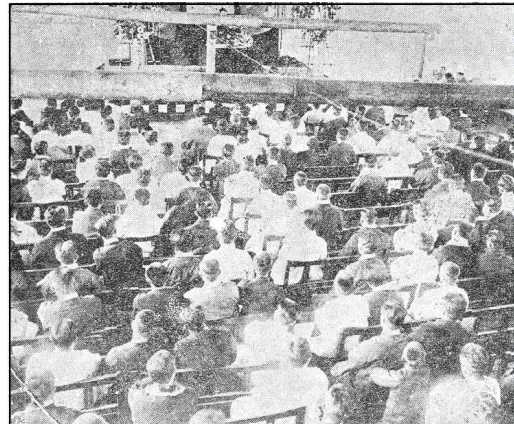
[도24] 동복 편물 강습 사진
(『동아일보』, 1927.9.14., 제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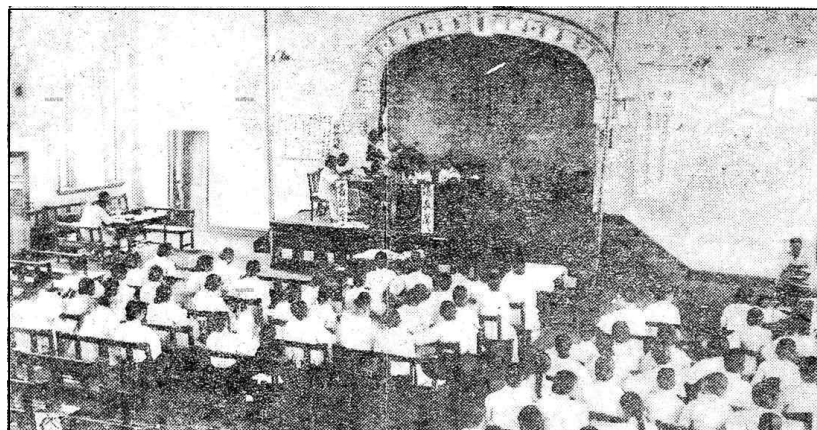
[도25] 본사를 견학하는 조선여자기예원
학생들 사진 (『동아일보』, 1927.11.9., 제5면)



[도26] 서울 종로 YMCA에서 열린 근우회 창
립총회 모습, 1927.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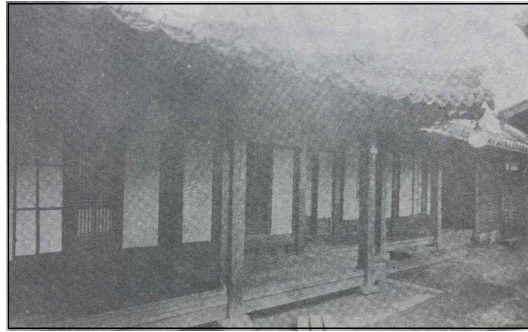
[도27] 신간회 창립 2주년기념 사진
(『동아일보』, 1929.2.17., 제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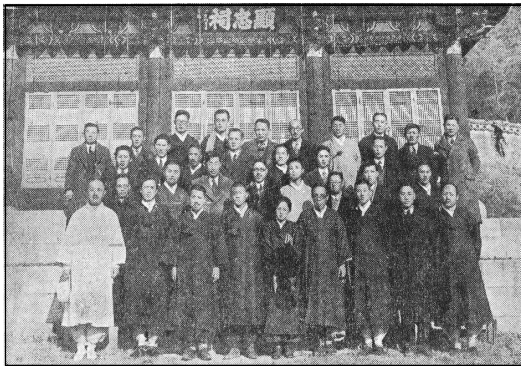
[도28] 1929년 7월 근우회 전국대회 제1일 광경 (『동아일보』, 1929.7.28., 제2면)



[도29] 경성여자상업학교 금화료 기숙생들과 이숙종의 모습 (두 번째 줄 왼쪽에서 여덟 번째가 이숙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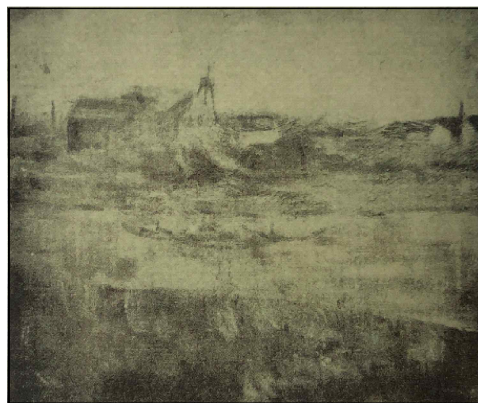
[도30] 1930년대 금화료의 전경



[도31] 1935년 온양에 있는 조선어학회 모임 (앞쪽 왼쪽부터 다섯 번째가 이숙종, 『경향신문』, 1972.6.10., 제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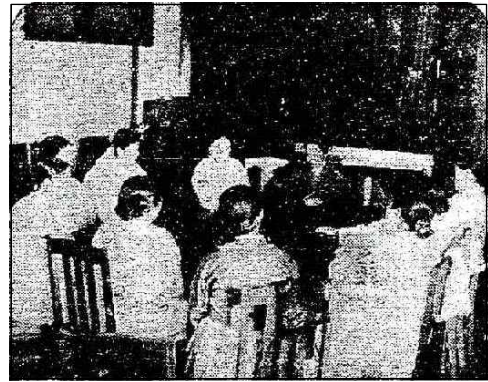
[도32] 조선어학회의 표준어 사정위원들과 이숙종의 모습, 1935.1.4. (가운뎃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이숙종)



[도33] 이숙종, 「붉은 건물이 있는 교외」, 1930, 제9회 조선미전 입선작, 조선미술전람회 도록



[도34] 동유희총회광경 사진
(『동아일보』, 1934.7.17., 제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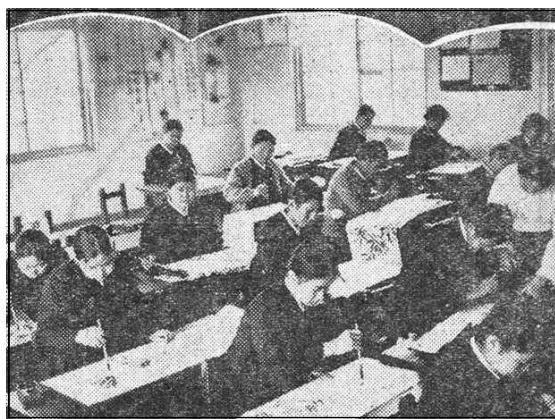
[도35] 직업부인협회 주최의 여성단체 총 간담회
모습 (『조선중앙일보』, 1936.3.29., 제2면)



[도36] 1936년경 태화여학교 인수 후 찍은 이
숙종 사진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이숙종)



[도37] 성신여학교 초창기 견지동 교사
앞에서 직원들과 이숙종의 모습
(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이숙종)



[도38] 성신여학교 서화부에서 묵화 그리는 장면 (『동아일보』, 1938.1.4., 제11면)

ABSTRACT

A Study on Development of Women' s Movement by Female Artists in Korean Modern Times

Roh Hyunhwa
Department of Art Histor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of women' s movement carried out by female artists by focusing on Haesuk Na, Mugil Bang, Chilsung Jeong, and Sukjong Lee who were female artists and female activists during the modern times. By spotlighting the women' s movement during modern times in aspect of art history,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female artists' activities for women' s movement in detail and tried to focus on the background for female artists appearing as the modern women. In modern Korean times, various phenomenon newly appeared. Among them, the women' s movement developed after the advent of modern women and art field also newly appeared as the outcome of new culture during modern times.

Thus,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background of starting of overall

women's movements during the modern Korean times and spotlighted the importance of female artists in the female movement occurred from 1910 to 1920. In the body's last paragraph, this study focused on modern new education and new thought as the background for development of women's movement by female artists acting as the new women. In addition, this study classified the ideological categories of each female artists. For instance, Haesuk Na covered liberal female rights issues in 1910s while Mugil Bang addresses nationalist women enlightenment issue in 1920. Also, Chilsung Joeng talked about socialistic female class release issues in 1920s and Sukjong Lee who first covered nationalist women enlightenment but later changed. By classifying the ideological categories, this study analyzed the connective development of women's movement by female artists.

In the analysis on women's movement conducted by female artists during modern Korean times, the result showed that the artistic characteristic was visualized. In female education course during the modern times, the art field was emphasized and the women could easily become art teacher by majoring in art. Therefore, female artists could advance to society and carry out economic activities. Furthermore, through the national exhibition system such as the Joseon Art Exhibition held by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in 1922, the female artists could express the status of women in competition with men. Also, in the modern Korean times, women could be socially emphasized through exhibitions such as solo exhibition and nationwide exhibition tour.

This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 of women's movement by female

artists by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and strengths of art fields. This study aimed on how female artists during the modern Korean times focused on enlightening and releasing Korean women based on sense of independence and contributed to various aspects of women' s movement.